

# 1

## 문학과 삶 [문학]

01 상처가 더 꽃이다

02 노새 두 마리

### 대단원 학습 목표

- 문학은 **심미적 체험**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소통** 활동임을 이해할 수 있다.
- **과거의 삶이 반영된 작품**을 오늘날의 삶에 비추어 감상할 수 있다.

### 소단원별 핵심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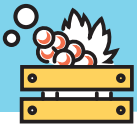
#### 01 상처가 더 꽃이다

- 작품에 담긴 심미적 인식 파악하기 ☆☆☆☆☆
- 자신의 심미적 인식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기 ☆☆☆☆☆

#### 02 노새 두 마리

- 작품에 반영된 과거의 삶과 오늘날의 삶을 ☆☆☆☆☆  
비교하며 이해하기
- 작품을 자신의 삶에 비추어 수용하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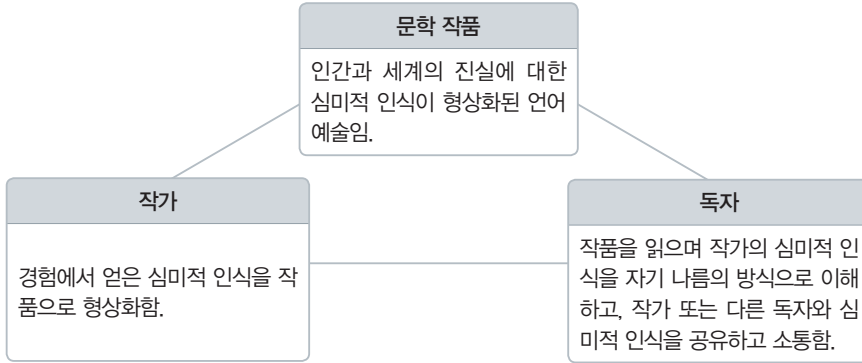
# 01

## 상처가 더 꽃이다 \_유안진

### 단원 맛보기

#### 중요 1 심미적 체험으로서의 문학

- 심미적 인식: 인간을 포함한 세계를 아름다움의 관점에서 보는 것



#### 2 문학 작품을 통한 심미적 체험의 효과

- 심미적 상상력과 감수성을 기를 수 있다.
- 주체적으로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독자가 될 수 있다.
- 문학 작품 감상이 즐겁고 감동적인 체험이 될 수 있다.

#### 중요 3 심미적 인식을 공유하고 소통하기

문학 작품을 매개로 하여 작가와 독자, 독자와 독자가 심미적 인식을 공유하고 소통함.



세계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삶의 의미를 성찰함.

#### 4 자신의 경험에서 얻은 심미적 인식 표현하기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글감을 선정함.



경험의 내용과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정리함.



정리한 내용을 표현하기에 적절한 문학 갈래를 선정하여 갈래에 맞게 자신의 경험과 깨달음을 글로 표현함.

★ 바른답·알찬풀이 2쪽

#### 1 <보기>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보기

문학 작품은 인간과 세계의 진실에 관한 ( ) 인식이 형상화된 ( ) 예술이다.

#### 2 심미적 인식에 관한 설명으로 맞으면 ○표, 틀리면 ×표를 하시오.

- (1) 심미적 인식이란 인간을 포함한 세계를 아름다움의 관점에서 보는 것을 말한다. ( )
- (2) 작가는 경험에서 얻은 심미적 인식을 작품으로 형상화한다. ( )
- (3) 독자와 작가의 심미적 인식이 다르면 독자는 작가의 심미적 인식을 따라야 한다. ( )

#### 3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 묶은 것은?

작가와 독자, 독자와 독자가 심미적 인식을 공유하며 소통하면 ( ).

보기

- ㄱ. 삶의 의미를 성찰할 수 있다.
- ㄴ. 세계를 깊이 이해할 수 있다.
- ㄷ. 다른 독자의 생각대로 작품을 이해할 수 있다.
- ㄹ. 문학 작품을 아름다움의 관점에서만 바라볼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ㄴ, ㄷ
-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 4 다음은 자신의 경험을 심미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정리한 것이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경험을 떠올려 글감을 선정함. → 경험의 내용과 ( )을/를 정리함. → 적절한 문학 ( )을/를 선정하여 표현함.



### ▶ 상처가 더 꽃이다 교과서 14~15쪽

어린 매화나무는 꽃 피느라 한창이고

사백 년 고목은 꽃 지느라 한창인데

구경꾼들 고목에 더 몰려섰다

→ 어린 매화나무와 고목을 보는 구경꾼들의 모습

둥치도 가지도 꺾이고 구부러지고 휘어졌다

큰 나무의 밑동

갈라지고 뒤틀리고 터지고 또 튀어나왔다

진물은 얼마나 오래 고여 흐르다가 말라붙었는지

주먹만큼 굵다란 혹이며 패인 구멍들이 험상궂다

거무죽죽한 혹도 구멍도 모양 굽기 깊이 빛깔이 다 다르다

새 진물이 번지는가 개미들 바빠 오르내려도

의연하고 의젓하다

사군자 중 으뜸답다

→ 상처를 지닌 고목의 의연한 모습

꽃구경이 아니라 상처 구경이다

상처 깊은 이들에게는 훈장(勳章)으로 보이는가

나이지거나 나왔던 병이 도르 심해지는

상처 도지는 이들에게는 부적(符籙)으로 보이는가

잡귀를 쫓고 재앙을 물리치기 위하여 붉은색으로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려 몸에 지니거나 집에 붙이는 종이

백 년 못 된 사람이 매화 사백 년의 상처를 헤아리라마는

감탄하고 쓸어 보고 어루만지기도 한다

만졌던 손에서 향기까지 맡아 본다

진동하겠지 상처의 향기

상처야말로 더 꽃인 것을.

→ 고목에 난 상처의 의미를 깨달음.



#### ❶ 작가 소개

유안진(1941~)

섬세하고 유려한 문체와 치밀한 구성 방식이 돋보이는 작품을 쓰는 시인이자 수필가이다. 대표작으로 《지란지교를 꿈꾸며》 등이 있다.

#### 내용 분석

##### 1 이 시의 화자는?

에 몰려선 구경꾼들을 바라보는 '나'

##### 2 시적 상황은?

구경꾼들이 어린 매화나무가 아닌 고목에 몰려서서 고목의 를 어루만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음.

##### 3 시인의 심미적 인식은?

꽃보다 상처가 더 는 것을 깨달음.

#### 표현 분석

##### > 다양한 심상

시각적 심상	둥치도 가지도 꺾이고 ~ 개미들 바빠 오르내려도
촉각적 심상	감탄하고 쓸어 보고 어루만지기도 한다
후각적 심상	진동하겠지 상처의 향기

고목의 상처를 시각적·촉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표현함.

##### > 역설 표현

모순된 표현	상처야말로 더 꽃인 것을.
그 속에 담긴 진리	• 아름다운 꽃보다 고통을 이겨 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가 더 아름다움. • 외양적 아름다움보다 내면적 아름다움이 감동을 줄 수 있음.

겉으로는 모순된 표현이지만 그 속에 깊은 진리를 담고 있는  표현을 사용함.

 **이해와 탐구** 교과서 16~19쪽

## 1 이 시의 내용을 정리해 보고, 시를 감상한 느낌 이야기하기

(1) 시에 나타난 구경꾼들의 행동을 중심으로 내용 정리하기

내용	
	□□□들은 꽃이 한창 피고 있는 어린 매화나무가 아닌, 꽃이 한창 지고 있는 고목에 더 몰려서 있다.
	구경꾼들은 고목의 □□를 바라보고 있다.
	구경꾼들은 고목의 상처를 보며 감탄하고 쓸어 보고 어루만지기도 하고 □□도 맡아 보고 있다.

(2) 이 시를 감상한 느낌이나 시에 담긴 아름다움 이야기하기

- 상처가 많지만 의연하게 서 있는 □□의 모습에서 큰 감동을 받았어.
- 상처에서 □□가 난다는 표현이 참신했어.
- 사람들이 꽃보다 □□에 더 주목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야.
- 일반적으로 꽃이 아름답다고 여기는 상황에서 시인은 고목의 상처를 꽃보다 아름답다고 새롭게 인식하고 있어.

## 2 이 시에 담긴 시인의 심미적 인식 파악하기

(1) 이 시와 관련하여 시인이 어떤 경험을 했을지 추측해 보기

- 시인은 구경꾼들이 한창 꽃 피고 있는 어린 □□□□보다 꽃이 지고 있는 □□에 더 몰려선 모습을 보았을 것이다.
- 시인은 구경꾼들이 고목의 상처를 바라보고 만지며 냄새를 맡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것이다.

(2) (1)의 경험을 통해 시인이 무엇을 느꼈는지 이야기해 보기

- 어린 매화나무보다 고목이 더 □□□□.
- 고목의 □□가 아름답다.

### ! 학습 활동 응용

**01** 이 시에 나타난 구경꾼들의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고목의 상처를 바라보고 있다.
- ② 고목을 쓸어 보고 어루만지고 있다.
- ③ 한창 꽃이 지고 있는 고목을 바라보고 있다.
- ④ 고목을 만졌던 손에서 나는 향기를 맡아 보고 있다.
- ⑤ 꽃이 한창 피고 있는 어린 매화에 더 많이 몰려서 있다.

**02** 이 시를 감상한 느낌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상처에서 향기가 난다는 표현이 참신했어.
- ② 고목의 울퉁불퉁한 모습을 묘사한 부분이 인상적이었어.
- ③ 사람들이 꽃보다 상처에 더 주목한다는 것이 신선했어.
- ④ 홀로 외롭게 우뚝 서 있는 고목의 모습이 쓸쓸해 보였어.
- ⑤ 상처가 많지만 의젓하게 서 있는 고목의 모습이 감동적이야.

**03** 이 시와 관련된 시인의 경험을 추측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구경꾼들이 고목에 몰려선 모습을 보았을 것이다.
- ② 어린 매화나무와 고목이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보았을 것이다.
- ③ 구경꾼들이 상처보다 꽃에 더 주목하는 모습을 보았을 것이다.
- ④ 구경꾼들이 고목의 상처를 바라보고 만지는 모습을 보았을 것이다.
- ⑤ 사백 년 된 매화나무를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드는 장소에 갔을 것이다.

(3) 시인이 (2)에서 느낀 심미적 인식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찾아보기

- 어린 매화나무와 고목의 모습을 □□하여 대상을 강조하였다.
- 고목의 모습을 자세히 □□하여 상처의 이미지를 생생하게 드러내었다.
- '상처가 더 꽃이다'라는 □□ 표현으로 의미를 강조하였다.

**3** 이 시를 읽고 깨달은 삶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기

(1) 이 시에 관한 생각을 담은 블로그를 보고, 사람들이 이 시의 어떤 부분에 공감하고 있는지 말해 보기

← →
🔍 ☰

내 블로그 | 이웃 블로그 | 🏠



☀ 아침

목록

- 시 읽는 아침
- 이야기가 있는 저녁
- 나의 발자국
- 
-

어린 매화나무는 꽃 피느라 한창이고  
:  
상처야말로 더 꽃인 것을.

- 유안진 <상처가 더 꽃이다>

상처는 고통스럽습니다. 그것이 훈장이든지, 부적이든지요. 하지만 우리 인생에 상처가 없다면 그것을 극복한 성숙 또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도 있나 봅니다.

이 시를 읽으니 발레리나 강수진과 축구 선수 박지성의 발이 떠오릅니다. 상처 투성이지만 그들의 노력을 알기에 그들의 발은 꽃보다 아름다워요.




▲ 강수진의 발
▲ 박지성의 발

♡ 공감 90 | ▾
💬 댓글 21 | ▾

댓글 쓰기

- 👤 상처는 고통. 하지만 상처가 주는 교훈이 있어 성장하게 되는 것 같아요.
- 👤 친구를 함부로 대해서 그 친구와 멀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뒤로는 아무리 친해도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죠. 아픔이 오히려 저를 성장하게 했어요.
- 👤 아픈 자리에서 화사한 꽃이 피어나길..... 마음속 상처들이 꽃이 된다면 마음은 화사한 꽃밭이 되겠네요.
- 👤 매화 가지의 뒤틀림에서 귀함을 발견한 시인과 이 시를 알려 준 아침님께 감사!

- 상처가 아름답다.
- 상처는 고통스럽지만 그 □□이 사람을 성장하게 한다.

**04** 이 시에서 시인이 느낀 심미적 인식을 표현한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 ① 고목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했다.
- ② 고목이 겪은 세월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 ③ 고목이 상징하는 바를 사회 현실과 관련지어 표현했다.
- ④ 자신의 속마음과 반대로 표현하는 반어 표현을 사용했다.
- ⑤ 어린 매화나무와 고목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었다.

**05** <보기>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 보기 -

시인은 아름다운 꽃보다 고통을 이겨 낸 상처가 더 아름답다는 생각을 '상처가 더 (       ) (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

**06** 이 시에 관한 생각을 담은 블로그에서 사람들이 공감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 ② 상처를 받지 않도록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한다.
- ③ 상처를 이겨 내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 ④ 상처는 고통스럽지만 결국 더 성장하게 도와준다.
- ⑤ 상처를 받아야만 다른 사람의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다.


**문제 해결과 적용** 교과서 20~25쪽

**1** 작품에 담긴 심미적 인식을 파악하며 수필 읽기

그 아이와 읍내까지의 오십 리 길을 여행한 것도 5학년 2학기였던 것 같다. 읍내 아이들은 좋은 참고서며 입시 문제집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없으니 어떻게 그들을 따라가겠느냐는 담임의 탄식은 우리를 초조하게 만들었다. 장에 오는 ㉠책전에 진열된 문제집이나 참고서는 가짓수도 적고, 말하자면 ㉡덤핑물로, 내용도 조잡한 것들뿐이었다. 나와 그 아이는 상의하고 또 상의했다. 그러고는 직접 읍내 큰 서점에 가서 문제집이며 참고서를 고르기로 결정했다. 아버지나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는 그 먼 길을 어떻게 갔다 오겠느냐며 읍내에 살고 있는 고모에게 부탁하여 사 보내게 하면 좋지 않겠냐고 했지만 나는 막무가내였다.

→ 읍내 큰 서점에 가기로 한 '나'

우리는 그 토요일로 당장 길을 떠났다. 두 시간쯤 걸으니 흰 돛 단 배, 누런 돛 단 배가 점점이 떠 있는 강이 나왔다. 강을 따라 다시 한 시간쯤 가니 살구꽃이 만발한 ㉢나루, 나루를 건너니 널따란 ㉣채마밭, 채마밭을 끼고 큰길을 또 한 시간쯤 걸으니 읍내였다. 읍내에는 이층집이 즐비하고 많은 차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질주했다. 나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다. 병이 나서 삼촌의 등에 업혀 읍내에 들어와 본 일은 있었지만 내 발로 걸어 들어오기는 처음이었던 것이다.

물어 물어 서점을 찾아갔을 때는 이미 거리에 어둑어둑 ㉤땅거미가 깔리고, 서점에는 환하게 전등불이 켜져 있었다. 너무 책이 많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데 점원이 우리에게 찾는 책을 물었고, 우리가 말하자 책을 찾아 주었다. 우리는 자세히 보지도 않고 책값을 냈고, 그 책들을 배낭에 넣고 밖으로 나왔다. 밖은 이미 한밤중이 되어 있어, 나는 더덕 겁이 났다. 그래도 저녁은 먹어야겠어서 가까이 있는 식당을 찾아 들어갔다. 잠은 고모네 집을 찾아가 자기로 정해져 있었다.

→ 읍내 서점에서 정신없이 책을 구경하고 삼.

밥을 시켜 먹고 있는데 옆자리의 아저씨들이 우리가 촌에서 온 것을 알고는 말을 붙였다. 나는 책을 사러 왔다는 말을 하고 찾아갈 고모네 집 주소가 적힌 쪽지를 내밀었다. “야, 너희들 멀리서 왔구나!” 그러면서 쪽지를 받아 든 그는 “어, 이거 너무 멀잖아.” 했다. 고모네 집까지는 걸어서 한 시간도 더 걸린다는 것이었다. 결국 우리는 군청 직원인 그 아저씨들을 따라가 군청 숙직실에서 자고 아침밥까지 얻어먹었다. 이튿날 다시 서점에 가서 이번에는 동화책들을 뒤졌는데, <포도와 구슬>로 익숙해 있던 현덕의 소설집 <남생이>를 어린이물로 알고 산 것도 이때다.

→ 군청 직원의 도움으로 잠을 자고 아침밥을 먹음.

돌아오는 길은 훨씬 즐거웠던 것 같다. 먼지가 폭삭대는 길, 강가의 널따란 채마밭, 강바람에 날리던 살구 꽃잎들, 나루터의 늪은 사공, 새파란 강물에 드문드문 박힌 노랑고 흰 돛을 단 배들……. 이때 본 이런 것들은 군청 마당의 늪

**07** 이 글에 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 ① 계절의 변화에 따라 사건을 제시한 글이다.
- ② 현실에서 있음직한 일을 상상하여 쓴 글이다.
- ③ 어린 시절 친구와의 추억을 회상하여 쓴 글이다.
- ④ 검증된 사실 위주로 구성하여 객관적을 쓴 글이다.
- ⑤ 서글프고 울적했던 어린 시절의 감정을 전달하고 있다.

**08** 글쓰기가 친구와 함께 읍내로 간 까닭을 서술하시오.

**09** 이 글의 중심 생각으로 알맞은 것은?

- ① 새로운 도전의 무모함
- ② 어린 시절 추억에 관한 그리움
- ③ 다른 이에게 도움이 되는 선행
- ④ 어린 시절 잊지 못할 우정 여행
- ⑤ 읍내와 대조되는 시골의 교육 환경

**10** ㉠~㉤의 뜻풀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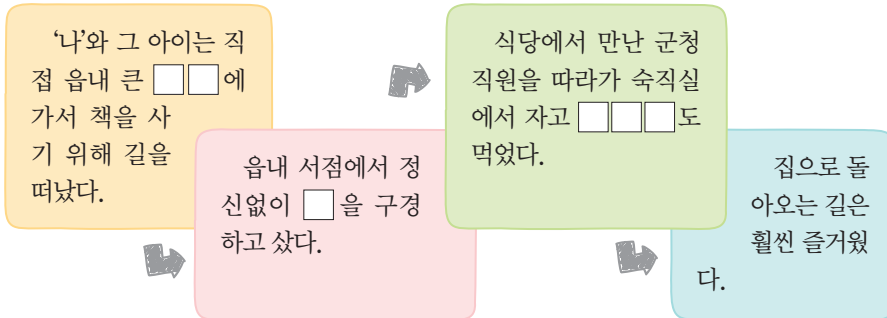
- ① ㉠: 서점
- ② ㉡: 원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파는 물건
- ③ ㉢: 강이나 내에서 배가 건너다니는 일정한 곳
- ④ ㉣: 먹을거리나 입을 거리로 심는 식물을 심어 가꾸는 밭
- ⑤ ㉤: 해가 진 뒤 어스레한 상태

은 느티나무와 마음씨 좋은 직원의 웃는 모습, 그리고 현덕의 소설 <군맹(群盲)> 속의 인물들인 만수 또는 점숙의 모습과 함께 아직도 내 뇌리에 짙은 색깔의 그림으로 박혀 있다.

→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느낀 즐거움

- 신경림, <사립 학교 자리, 시새움과 책전이 키운 아이들>에서

(1) 이 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경험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하기



(2) (1)의 경험을 하면서 글쓴이가 무엇을 느꼈는지 추측해 보기

이 경험은 글쓴이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새로운 세계를 만나는 것은 자신에게 도전이 된다는 걸 깨달았을 거야.

나

- 글쓴이는 처음으로 읍내에 나가서 매우 □□하고 설레었을 거야.
- 자신을 도와준 아저씨들의 □□□ 마음에 감동했을 거야.
- 힘들었던 읍내 나들이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올 때 느꼈던 편안 하고 □□□ 기분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을 거야.

(3) 위 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글쓴이가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찾아보기

- 새로운 경험을 하고 돌아올 때 느꼈던 즐거운 마음을 풍경 □□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 자신을 도와준 아저씨들과 돌아오는 길에 본 풍경을 □□이라고 표현하여 글쓴이의 느낌을 강조하고 있다.

11 이 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경험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친구와 함께 읍내 큰 서점에 감.
- ② 읍내로 가는 길에 살구꽃이 핀 나무를 봄.
- ③ 읍내 서점에 가서 참고서와 소설 집을 샀.
- ④ 읍내에서 길을 잃어서 군청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함.
- ⑤ 군청 직원을 따라가서 숙직실에서 자고 아침밥을 먹음.

12 이 경험을 통해 글쓴이가 느꼈을 감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처음으로 친구와 읍내에 나가서 무척 설레었을 거야.
- ② 자신을 도와준 아저씨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을 거야.
- ③ 힘들었던 읍내 나들이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허탈함을 느꼈을 거야.
- ④ 완벽하지 않아도 도전하지 않았다면 느끼지 못했을 뿌듯함을 느꼈을 거야.
- ⑤ 새로운 세계를 만나는 것은 자신에게 도전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거야.

13 글쓴이가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표현한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 ① 새로운 경험을 한 글쓴이의 마음을 풍경 묘사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 ② 자신에게 도움을 준 아저씨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직접 표현하고 있다.
- ③ 읍내 서점에서 책을 구경한 모습을 비유 표현을 사용해 드러내고 있다.
- ④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느낀 글쓴이의 심정을, 행동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 ⑤ 읍내에 가면서 본 풍경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본 풍경을 대조하여 글쓴이의 느낌을 강조하고 있다.



수록 글 **한눈에** 쏙!

● 작품 개관

갈래	현대시, 자유시, 서정시	성격	대조적, 감각적, 교훈적
제재	매화나무(어린 매화나무, 고목)	주제	아름답고 고귀한 □□
특징	① 한창 꽃이 피고 있는 어린 매화나무와 한창 꽃이 지고 있는 고목을 □□ 하여 표현함. ② 고목의 □□ 를 자세하게 묘사함. ③ 상처가 꽃보다 더 □□□□ 는 역설적이고 참신한 발상이 드러남.		

● 시의 짜임

1행~3행	4행~11행	12행~19행
어린 매화나무와 고목을 바라보는 □□□ 들의 모습	□□ 를 지닌 고목의 의연한 모습	고목에 난 상처의 의미를 깨달음.

학습 내용 **핵심** 꼭!

● 어린 매화나무와 고목의 대조

어린 매화나무	□□
• 한창 꽃이 피고 있음.	• 한창 꽃이 지고 있음. • 오랜 세월을 살아와 울퉁불퉁하고 거친 모습임. • 고통 속에서도 의연하고 의젓함.

● 고목의 송고함

사군자 중 □□□□	• 이른 봄, 추위를 무릅쓰고 제일 먼저 꽃을 피우는 □□ 는 사군자 중 하나임. • 고목의 의연하고 의젓한 모습이 사군자 중 으뜸이라는 생각이 드러남.
상처 깊은 이들에게는 훈장(勳章)으로 보이는가 상처 도지는 이들에게는 부적(符籙)으로 보이는가	• 고목의 상처는 고통을 이겨 내고 살아온 이들에게는 □□ 과도 같이 느껴짐. • 고목의 상처는 마음의 상처가 심한 이들에게는 그것을 치유해 줄 부적과 같이 보임.

● 시인의 심미적 인식

심미적 인식	아름다운 꽃보다 고통을 이겨 낸 상처가 더 아름답음.
표현 방법	• 어린 □□□□ 와 고목의 모습을 대조하여 대상을 강조함. • 다양한 심상(시각적·촉각적·후각적 심상)을 활용해 고목의 모습을 자세히 묘사하여 상처의 이미지를 생생하게 드러냄. • '상처가 더 꽃이다'라는 □□ 표현으로 의미를 강조함.





[01~06]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린 매화나무는 꽃 피느라 한창이고  
 사백 년 고목은 꽃 지느라 한창인데  
 구경꾼들 고목에 더 몰려섰다  
 등치도 가지도 꺾이고 구부러지고 휘어졌다  
 갈라지고 뒤틀리고 터지고 또 튀어나왔다  
 진물은 얼마나 오래 고여 흐르다가 말라붙었는지  
 주먹만큼 굵다란 흑이며 패인 구멍들이 험상궂다  
 거무죽죽한 흑도 구멍도 모양 굵기 깊이 빛깔이 다  
 다르다

[A]

새 진물이 번지는가 개미들 바빠 오르내려도  
 의연하고 의젓하다  
 사군자 중 으뜸답다  
 꽃구경이 아니라 상처 구경이다  
 상처 깊은 이들에게는 훈장(勳章)으로 보이는가  
 상처 도지는 이들에게는 부적(符籙)으로 보이는가  
 백 년 못 된 사람이 매화 사백 년의 상처를 헤아리라마는  
 감탄하고 쓸어 보고 어루만지기도 한다  
 만졌던 손에서 향기까지 맡아 본다  
 진동하겠지 상처의 향기

㉠ 상처야말로 더 꽃인 것을.

01 이와 같은 글을 감상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 ① 경험과 상상을 구분하며 감상한다.
- ② 사건이나 구성, 시점을 파악하며 감상한다.
- ③ 구성 단계에 따른 줄거리를 파악하며 감상한다.
- ④ 시어에 담긴 함축적인 의미를 파악하며 감상한다.
- ⑤ 지문에 따라 인물이 행동하는지 확인하며 감상한다.

02 이 시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고목은 사백 년 된 매화나무이다.
- ② 고목의 고통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 ③ 사람들이 만져서 고목의 상처가 더 깊어졌다.
- ④ 구경꾼들의 모습에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 ⑤ 구경꾼들은 꽃이 한창 지고 있는 고목에 몰려서 있다.

03 이 시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고목의 아름다운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 ② 어린 매화나무와 고목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다.
- ③ 다양한 심상을 사용하여 고목의 상처를 표현하고 있다.
- ④ 상처가 아름답고 고귀하다는 시인의 생각이 담겨 있다.
- ⑤ 상처가 꽃보다 더 아름답다는 참신한 발상이 드러나 있다.

04 [A]에서 두드러지는 심상과 유사한 심상이 쓰인 것은?

- ① 메마른 입술에 쓰디쓰다. - 정지용, <고향>
- ② 꽃 피는 사월이면 진달래 향기 - 김동환, <산너머 남촌에는>
- ③ 꽃가루와 같이 부드러운 고양이 털에 - 이정희, <봄은 고양이로다>
- ④ 불현듯 아버지의 서늘런 옷자락을 느끼는 것은 - 김종길, <성탄제>
- ⑤ 그이의 깊고 붉은 상처 위에 돋는 / 새살이 되자. - 안도현, <우리가 눈발이라면>

05 ㉠에 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 ① 꽃은 매화 자체를 의미한다.
- ② 도치법을 사용하여 꽃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
- ③ 촉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고목의 상처를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④ 내면적 아름다움보다 외면적 아름다움이 감동을 줄 수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아름다운 꽃보다 고통을 이겨 낸 상처가 더 아름답다는 시인의 생각이 드러나 있다.

서술형 학습 활동 응용

06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을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시인은 구경꾼들이 ( )을/를 보았을 것이다.

조건 /  
 • ‘어린 매화나무, 고목’과 관련한 구경꾼들의 행동을 쓸 것



[07~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그 아이와 읍내까지의 오십 리 길을 여행한 것도 5학년 2학기였던 것 같다. 읍내 아이들은 좋은 참고서며 입시 문제집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없으니 어떻게 그들을 따라가겠느냐는 담임의 탄식은 우리를 초조하게 만들었다. (중략) 나와 그 아이는 상의하고 또 상의했다. 그러고는 직접 읍내 큰 서점에 가서 문제집이며 참고서를 고르기로 결정했다.

**나** 우리는 그 토요일로 당장 길을 떠났다. (중략) 읍내에는 이층집이 즐비하고 많은 차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질주했다. 나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다. 병이 나서 삼촌의 등에 업혀 읍내에 들어와 본 일은 있었지만 내 발로 걸어 들어오기는 처음이었던 것이다.

물어 물어 서점을 찾아갔을 때는 이미 거리에 어둑어둑 땅거미가 깔리고, 서점에는 환하게 전등불이 켜져 있었다. 너무 책이 많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데 점원이 우리에게 찾는 책을 물었고, 우리가 말하자 책을 찾아 주었다. 우리는 자세히 보지도 않고 책값을 냈고, 그 책들을 배낭에 넣고 밖으로 나왔다. 밖은 이미 한밤중이 되어 있어, 나는 더럭 겁이 났다.

**다** 밥을 시켜 먹고 있는데 옆자리의 아저씨들이 우리가 촌에서 온 것을 알고는 말을 붙였다. 나는 책을 사러 왔다는 말을 하고 찾아갈 고모네 집 주소가 적힌 쪽지를 내밀었다. “야, 너희들 멀리서 왔구나!” 그러면서 쪽지를 받아 든 그는 “어, 이거 너무 멀잖아.” 했다. 고모네 집까지는 걸어서 한 시간도 더 걸린다는 것이었다. 결국 우리는 군청 직원인 그 아저씨들을 따라가 군청 숙직실에서 자고 아침밥까지 얻어먹었다.

**라** 돌아오는 길은 훨씬 즐거웠던 것 같다. 먼지가 폭삭대는 길, 강가의 널따란 채마밭, 강바람에 날리던 살구 꽃잎들. 나루터의 늪은 사공, 새파란 강물에 드문드문 박힌 노랗고 흰 돛을 단 배들…….

07 글쓴이의 경험을 시간에 따라 정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는 우리의 교육 환경에 탄식하는 담임 선생님의 말에 초조해졌다. → ② ‘나’와 그 아이는 직접 읍내 큰 서점에 가서 책을 사기 위해 길을 떠났다. → ③ 읍내 서점에서 신중하게 책을 살펴보고 구경하였다. → ④ 식당에서 만난 군청 직원을 따라가 숙직실에서 자고 아침밥도 먹었다. → 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훨씬 즐거웠다.

08 (나)에서 ‘나’가 느낀 감정으로 알맞은 것은?

- ① 재미있고 신남.
- ② 설레고 신기함.
- ③ 속상하고 슬픔.
- ④ 두렵고 긴장됨.
- ⑤ 억울하고 야속함.

실력 UP 고난도

09 (다)의 경험과 관련하여 글쓴이의 심미적 인식을 적절히 공유한 사람은?

- ① 수미: 낯선 사람과의 대화는 항상 조심해야 해.
- ② 건우: 언제 어디서든지 인연은 만들 수 있는 거야.
- ③ 용호: 어른들 없이 먼 곳으로 외출하는 일은 삼가야지.
- ④ 정아: 힘들 때 얼마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시절이 그리워.
- ⑤ 형진: 모르는 사람인데도 자신을 도와주었을 때 정말 감동이었던것다.

학습 활동 응용

10 <보기>에서 설명하는 소재가 무엇인지 이 글에서 찾아 쓰시오.

- 보기
- ‘나’가 새롭게 도전하는 세계이다.
  - ‘나’가 심미적 체험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11~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어린 매화나무는 꽃 피느라 한창이고  
 사백 년 고목은 꽃 지느라 한창인데  
 구경꾼들 고목에 더 몰려섰다  
 둥치도 가지도 꺾이고 구부러지고 휘어졌다  
 갈라지고 뒤틀리고 터지고 또 튀어나왔다  
 진물은 얼마나 오래 고여 흐르다가 말라붙었는지  
 주먹만큼 굵다란 흑이며 패인 구멍들이 험상궂다  
 거무죽죽한 흑도 구멍도 모양 굽기 깊이 빛깔이 다 다르다  
 새 진물이 번지는가 개미들 바빠 오르내려도  
 의연하고 의젓하다  
 사군자 중 으뜸답다  
 꽃구경이 아니라 상처 구경이다  
 상처 깊은 이들에게는 훈장(勳章)으로 보이는가  
 상처 도지는 이들에게는 부적(符籙)으로 보이는가  
 백 년 못 된 사람이 매화 사백 년의 상처를 헤아리라마는  
 감탄하고 쓸어 보고 어루만지기도 한다  
 만졌던 손에서 향기까지 맡아 본다  
 진동하겠지 상처의 향기  
 상처야말로 더 꽃인 것을.

**나** 우리는 그 토요일로 당장 길을 떠났다. 두 시간쯤 걸  
 으니 흰 돛 단 배, 누런 돛 단 배가 점점이 떠 있는 강이  
 나왔다. 강을 따라 다시 한 시간쯤 가니 살구꽃이 만발한  
 나루, 나루를 건너니 널따란 채마밭, 채마밭을 끼고 큰길  
 을 또 한 시간쯤 걸으니 읍내였다. 읍내에는 이층집이 즐  
 비하고 많은 차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질주했다. 나는 숨  
 이 턱 막히는 것 같았다. (중략)

돌아오는 길은 훨씬 즐거웠던 것 같다. 먼지가 폭삭대는  
 길, 강가의 널따란 채마밭, 강바람에 날리던 살구 꽃잎들.  
 나루터의 늙은 사공, 새파란 강물에 드문드문 박힌 노랑고  
 흰 돛을 단 배들……. 이때 본 이런 것들은 군청 마당의 늙  
 은 느티나무와 마음씨 좋은 직원의 웃는 모습, 그리고 현덕  
 의 소설 <군맹(群盲)> 속의 인물들인 만수 또는 점숙의 모습  
 과 함께 아직도 내 뇌리에 짙은 색깔의 그림으로 박혀 있다.

11 (가)의 주제로 알맞은 것은?

- ① 아름답고 고귀한 상처
- ② 이른 봄 구경꾼들의 나들이
- ③ 사군자 중 매화가 으뜸인 까닭
- ④ 어린 매화나무와 고목의 차이점
- ⑤ 고목의 상처에서 나는 향기의 아름다움

• 학습 활동 응용

12 <보기>의 ㉠, ㉡에 해당하는 소재를 각각 (가)와 (나)에서 찾아 쓰시오.

보기

- ㉠: 시인이 아름답다고 인식한 것으로, 내면적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소재
- ㉡: '나'를 도와준 아저씨들과 돌아오는 길에 본 풍경을 표현한 소재

13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문학은 인간과 세계의 진실에 관한 심미적 인식이 형상화된 예술이다. 작가는 경험에서 얻은 자신의 심미적 인식을 문학 작품으로 형상화하며, 독자는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작품과 관련된 작가의 체험을 상상하고 삶에 관한 심미적 인식을 공유한다.

- ① (가)와 (나) 모두 작가의 심미적 인식이 드러난다.
- ② (가)와 (나)를 통해 독자는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다.
- ③ 심미적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가)와 (나)같이 매우 특별한 체험을 소재로 삼아야 한다.
- ④ (가)와 (나) 같이 작가는 자신이 느낀 정서를 문학 작품으로 표현하여 독자와 공유하고자 한다.
- ⑤ 자신의 생각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문학적 갈래로 (가)의 작가는 시, (나)의 작가는 수필을 택했다.



# 02

## 노새 두 마리 최일남

### 단원 맛보기

#### 1 현실의 삶을 반영하는 문학 작품



#### 중요 2 과거의 삶이 반영된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

작가는 현실을 작품에 반영하고, 독자는 작품 속 과거의 삶을 감상한다.

- 작품에 반영된 과거의 삶과 오늘날의 삶을 서로 비교하면서 이해함.
- 작품을 자신의 삶에 비추어 주체적으로 수용함.
- 당시 사람들이 중요시한 삶의 가치 가운데 오늘날에도 변하지 않는 가치나 현대인의 관점에서 새롭게 평가할 수 있는 가치를 발견하고 통찰함.

#### 3 문학 작품에 반영된 과거의 삶의 모습을 파악하는 방법

- 시대상을 드러내는 배경이나 소재, 어휘 등을 찾아본다.
- 시대상이 드러나는 인물의 말과 행동 등을 찾아본다.
- 당대에만 있고 후대에는 사라진 소재들이 있는지 찾아본다.

#### 4 작품 속 내용을 현재의 삶과 관련지어 이해하기

- 문학 작품 속 시대 상황과 현재의 시대 상황을 비교한다.
- 자신이 작품 속 인물이라면 어떻게 행동할지 자신의 삶과 관련 짓는다.
- 문학 작품 속 세계와 창작 당시의 시대 상황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파악한다.

작품 속 세계와 창작 당시의 시대 상황을 이해함으로써 현재의 삶을 성찰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지닐 수 있다.

★ 바른답·알찬풀이 3쪽

#### 1 <보기>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보기

문학 작품 속 세계는 작가가 보고 느낀 ( )와/과 ( )을/를 반영하여 작가가 상상해서 만든 허구적인 세계이다.

#### 2 과거의 삶이 반영된 문학 작품의 감상 방법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 묶은 것은?

보기

- ㄱ. 작품을 자신의 삶에 비추어 주체적으로 수용한다.
- ㄴ. 오늘날에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발견하고 통찰한다.
- ㄷ. 과거의 삶은 옛것이므로 현재의 삶에서 배제할 수 있다.
- ㄹ. 작품에 반영된 과거의 삶과 오늘날의 삶을 서로 비교하면서 이해한다.

- ① ㄱ, ㄴ                      ② ㄴ, ㄷ
-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 3 <보기>에서 시대를 짐작할 수 있는 소재를 찾아 쓰시오.

보기

우리 동네는 변두리였으므로 얼마 전까지도 모두 그날그날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 연탄 배달도 일거리가 그리 많지 않았다.

#### 4 문학 작품의 내용을 현재와 관련지어 이해하는 방법으로 맞으면 ○표, 틀리면 ×표를 하시오.

- (1) 문학 작품 속 시대 상황을 현재와 비교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 )
- (2) 작품 속 인물의 상황과 자신의 삶과 관련 지어 본다. ( )
- (3) 작품 속 시대 상황을 이해하면서 현재를 성찰할 수 있다. ( )



### ▶ 노새 두 마리 교과서 30~57쪽



**가** 그 골목은 몹시도 가팔랐다. 아버지는 그 골목에 들어서기만 하면 미리 저만치 앞에서부터 마차를 세계 몰아 가지고는 그 힘으로 하여 단숨에 올라가곤 했다. 그러나 이 작전이 매번 성공하는 것은 아니고, 더러는 마차가 언덕의 중간쯤에서 더 올라가지 못하고 주춤거릴 때도 있었다. 그러면 아버지는 이마에 **심줄을 잔뜩** 힘줄의 변한 말 돌우며,

“이랴, 이랴!”

하면서 노새의 잔등을 손에 휘감고 있는 긴 고삐 줄로 세 번 네 번 후려쳤다. 노새 사람이나 동물의 몸통에서 가슴과 배의 반대 부분을 말함.는 그럴 때마다 뒷다리를 **바둑바둑** 악착스럽게 애쓰는 모양 바둥거리며 안간힘을 쓰는 듯했으나 그쯤 되면 마차가 슬슬 아래쪽으로 미끄러져 내리기는 할망정 조금씩이라도 올라가는 일은 드물었다.

물론 마차에 연탄을 많이 실었을 때와 적게 실었을 때에도 차이는 있었다. 적게 실었을 때는 그깟 것 달랑달랑 단숨에 오르기도 했지만, 그런 때는 드물고 대개는 짐을 가득가득 싣고 다녔다. 가득 실으면 대충 오백 장에서 육백 장까지 실었는데 아버지는 그래야만 다소 **신명이** 흥겨운 신이나 멍 나지 이백 장이나 삼백 장 같은 것은 처음부터 성이 안 차는 눈치였으며, 백 장쯤은 누가 부탁도 안 할뿐더러 아버지도 아예 실으려고 하지도 않았다.

→ 마차에 연탄을 가득 싣고 가파른 골목에서 노새를 모는 아버지

### 빈출지문

#### 핵심 1

**나** 우리 동네는 **변두리**였으므로 얼마 전까지도 모두 그날그날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 연탄 배달도 일거리가 그리 많지 않았다. 기껏해야 **구멍가게**에서 두서너 장을 사서는 새끼줄에 대롱대롱 매달고 가는 게 고작이었다. 그랬는데 이삼 년 전부터 아직도 많은 빈터에 집터가 다져지고, 하나둘 **문화 주택**이 들어서더니 생활하기에 편리하고 보건 위생에 알맞은 새로운 형식의 주택 이제는 제법 그럴듯한 동네 꼴이 잡혀 갔다. 원래부터 있던 허름한 집들과 새로 생긴 집들과는 **골목** 하나를 경계로 하여 금을 굵듯 나누어져 있었는데, 먼 데서 보면 제법 그럴싸한 동네로 보였다. 일단 들어와 보면 지저분한 흰 동네가 이웃에 널려 있지만, 그냥 먼발치로만 보면 2층 슬래브 집들에 가려 닳지닥지 붙은 **판잣집** 콘크리트를 부어 한 장의 판처럼 만든 구조물로 만든 집 판자로 사방을 이어 둘러서 허술하게 지은 집 동속이 보이지 않았으므로 서울의 **변두리**에 **흔한** 여느 **신흥 부락**으로만 보였다.

나열한 사물과 같은 종류의 것들을 몰아서 이르는 말

→ 문화 주택에 가려져 신흥 부락으로 보이는 동네의 모습

#### 작가 소개

최일남(1932~)

소설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고향의 모습과 그 고향의 희생을 받고 출세한 시골 출신의 도시인들이 느끼는 여러 의식을 그린 작품을 주로 썼다. 주요 작품으로 <흐르는 북>, <장씨의 수염> 등이 있다.

#### 제대로 독해 & 문제로 확인

#### 핵심 1 공간적 배경

변두리 동네	성장과 개발에서 소외되었거나 뒤처진 지역임을 드러냄.
구멍가게	구비된 품목이 변화한 모습에서 동네 사람들의 생활에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음.
골목	구동네와 새 동네 사이의 경제 수준 및 문화의 차이와 소통의 단절을 드러냄.

**교과서 날개** 이삼 년 전부터 우리 동네에 생긴 변화는 무엇인가?

**1** '나'가 살고 있는 동네에 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 ① 도시의 중심지에 자리 잡고 있다.
- ② 멀리서 보기에는 지저분한 동네이다.
- ③ 슬래브 집과 판잣집이 함께 있는 동네이다.
- ④ 최신식 문화 주택들로 가득 찬 신흥 부락이다.
- ⑤ 노새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한적한 시골이다.

**2** ㉠이 의미하는 바로 알맞은 것은?

- ① 구동네와 새 동네 아이들의 놀이터
- ② 구동네와 새 동네를 이어 주는 매개체
- ③ 구동네와 새 동네 사람들의 만남의 장소
- ④ 구동네와 새 동네 사람들 아무도 가지 않는 곳
- ⑤ 구동네와 새 동네 사이의 경제적 수준 차이가 드러나는 곳



**다** 동네가 이렇게 바뀌자 그것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 중의 하나가 아버지였다. 아까 말한 대로 그전에는 동네 사람들이 연탄을 두서너 장, 많아야 이삼십 장씩만 사는 터여서 아버지의 일거리가 적고, 따라서 이곳에서 이삼 킬로나 떨어진 만 동네까지 배달을 가야 했는데 동네에 새 집이 많이 들어서면서부터는 그렇게 먼 걸음을 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집에서 연탄을 한번 들여놓았다 하면 몇 달씩 때까지 자주 주문을 하지 않아서 아버지의 일감이 이 동네에서 끝나는 것만은 아니고, 여전히 타 동네까지 노새 마차를 몰기는 했지만 그전보다는 자주 먼 곳까지 가지 않아도 된 것만은 사실이었다.

**행님 2** 새 동네(우리는 우리가 그전부터 살던 동네를 구동네, 문화 주택들이 차지하고 들어선 동네를 새 동네라 불렀다.)가 생기면서 좋아하는 것은 비단 아버지만은 아니었다. 구동네에 두 곳 있던 구멍가게 주인들도 은근히 무언가를 기대하는 눈치였다. 그전까지는 가게의 물건들이 뽐양게 먼지를 쓰고 있었고, 두 홉짜리 소주병만 부피의 단위, 곡식, 가루, 액체 따위의 부피를 잴 때 씀. 한 홉은 한 되의 10분의 1로 약 100mL에 해당함. 육실하게 많았는데 그 병들 사이에 차츰 환타니 미린다니 하는 음료수병들이며 퍼문매상 ‘소주병만 못마땅하게 많다.’는 뜻을 속되게 표현한 것으로 보임. 머스트 아이스크림도 섞이고, 할머니의 주름살처럼 주름이 콕콕 가 말라비틀어진 사과 사이에 꿀 상자도 끼이게 되었다. 그전에는 볼 수 없었던 우유 배달부가 아침마다 골목을 드나들고, 신문 배달부들이 조석으로 골목 안을 누비고 다녔다. 전에는 얼씬도 않던 아침저녁으로 슈샤인 보이가 새벽이면, “구두 닦으…….” ‘구두닦이’를 뜻하는 말

하면서 외치고 다녔다. 전에는 저 아래 큰 한길가 근처에 차를 대 놓고, 올 테면 오고 말 테면 마라는 식으로 버티던 청소부들이 골목 안까지 차를 들이대고 쓰레기를 퍼 갔다.

→ 새 동네가 들어서면서 변화된 구동네의 모습

**라** 그러나 동네의 모습이 이처럼 달라지기는 했어도 구동네와 새 동네 사람들이 서로 어울리는 일은 없었다. 너는 너, 나는 나 하는 식으로 새 동네 사람들은 문을 푹푹 걸어 잠그고 누가 다가오는 것을 거절하고 있었다. 다만 그들이 들어오므로 해서 구동네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 조금 달라지기는 했는데 아무도 그걸 입에 올리지는 않았다. 아버지도 배달 일이 늘어나서 속으로는 새 동네가 생긴 것을 은근히 싫어하지는 않는 눈치였지만, 식구들 앞에서조차



**행님 2** 구동네와 새 동네의 차이

구동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딱지닥지 붙은 판잣집</li> <li>•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음.</li> </ul>
↕
새 동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 주택, 2층 슬래브 집</li> <li>• 구동네보다 경제 사정이 양호함.</li> <li>• 개인주의적·폐쇄적인 모습을 보임.</li> </ul>

**3** 구동네와 새 동네 사람들의 모습으로 알맞은 것은?

- ① 구동네와 새 동네 사람들은 서로 어울리지 않았다.
- ② 새 동네 사람들은 친화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다.
- ③ 구동네 사람들은 새 동네 사람들에 대해 말하는 것을 좋아했다.
- ④ 새 동네가 들어오면서 구동네 사람들의 형편은 더욱 어려워졌다.
- ⑤ 아버지는 새 동네가 생긴 것을 좋아하며 이를 노골적으로 표현했다.

**행님 3** 새 동네가 생기면서 구동네에 일어난 변화

구멍가게 주인들	새로운 상품을 진열함.
우유 배달부	아침마다 골목을 드나들.
신문 배달부	조석으로 골목 안을 누빔.
슈샤인 보이	새벽에 골목 안을 돌아다님.
청소부들	골목 안까지 차를 들이대고 쓰레기를 퍼 감.

**4** 새 동네가 생기면서 구동네에 일어난 변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신문 배달부가 다니기 시작했다.
- ② 아침에 우유 배달부가 드나들었다.
- ③ 슈샤인 보이가 새벽에 동네에 왔다.
- ④ 청소부들이 골목까지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다.
- ⑤ 구멍가게에서 전에 못 보던 음료수와 아이스크림을 팔기 시작했다.

맞대 놓고 그런 내색을 하지는 않았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 노새는 온 동네 사람들의 눈길을 모으고 짹짹 이 골목 저 골목을 헤집고 다녔다. **행닝 4** 원래의 우리 동네에서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자기들은 아이들의 싯누런 똥이 든 요강 따위를 예사롭게 수젯구멍 같은 데 버리면 수채에서 허드렛물이 빠져나가는 구멍. '수채'는 집 안에서 버림 물이 집 밖으로 흘러 나가도록 만든 시설을 말함. 서도, 어쩌다 우리 노새가 짐을 부리는 골목 한쪽에서 오줌을 짹 짹 끼기면, 사람의 등에 지거나 자등차나 배 따위에 실었던 것을 내려놓는 “왜 하필이면 여기서 싸. 어이구, 저 지린내, 말을 부리려면 오줌통이라도 갖고 다닐 일이지. 이게 뭐야. 동네가 뭐 공동변손가.”

어찌고 하면서 아낙네들은 코를 찡 풀어 노새 앞에다 팽개쳤다. 말과 노새의 구별도 잘 못하는 주제에, 아무 데서나 가래침을 튼뉘 뺏는 주제에 우리 노새를 보고 눈을 찢어지게 흘렸다. **그러나 새 동네에서는 단연 달랐다.** 여간해서 말을 잘 확실히 단정할 만하게 않는 아주머니들도 우리 노새를 보면 입가에 미소를 머금었다. 개중에는,

- “아이, 귀여워, 오랜만에 보는 노새네.” / 하기도 하고,
- “어머, 지금도 노새가 있었네.” / 하기도 하고,
- “아니, 이게 노새 아니에요? 아주 예쁘게 생겼네.” / 하기도 하고,
- “오머 오머, 이게 망아지는 아니고…… 네? 노새라구요? 아, 노새가 이렇게 생겼구나아.”

하면서 모가지에 매달린 방울을 한번 만져 보려다가 노새가 고개를 젓는 바람에 짹짹 놀라기도 했다. 부정하는 말 앞에서 '다만', '오직'의 뜻으로 쓰이는 말 비단 연탄 배달을 간 집에서만이 아니라 이 근처의 길을 가던 사람들도, 우리 노새를 힐끗 쳐다본 순간 분명히 다소 놀라는 기색으로 다시 한번 거들떠보곤 했다. 대야를 옆에 끼고 불이 빨강계 익은 채 목욕 갔다 오던 아주머니도 부드러운 눈길로 노새를 바라보고, 보폭이 짧고 빠른 걸음 다정하게 나들이를 가려고 막 대문을 나서던 내외분도 우리 노새가 짹짹 지나가면 ‘고것…….’ 하는 표정으로 한동안 지켜보고, 파 한 단 사 가지고 보폭이 짧고 빠른 걸음 쫄쫄거리고 가던 식모 아가씨도 잠시 발을 멈추고 노새를 바라보았다.. **→ 노새를 싫어하는 구동네 사람들과 노새를 좋아하는 새 동네 사람들**

**마** 무엇보다도 우리 노새를 보고 좋아하는 것은 새 동네 아이들이었다. 노새만 지나가면 지금까지 하던 공차기나 배드민턴을 멈추고 한동안 노새를 따라왔다.

- “야, 노새다.”
- 한 아이가 외치면 다른 아이들도 덩달아 외쳤다.
- “그래그래, 노새다.”
- “야, 이게 노새구나.”
- “그래, 인마. 넌 몰랐니?”
- “듣기는 했는데 보기는 처음이야.”
- “야, 귀 한번 대빵 크다.” 은어로, '크게 할 수 있는데까지 한껏'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말
- “힘도 세니?”
- “그럼, 저것 봐, 저렇게 연탄을 많이 싣고 가지 않니.”

**행닝 4** 노새를 대하는 태도의 차이

구동네 사람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음.</li> <li>• 골목에 오줌을 싯다며 못마땅하게 여김.</li> </ul>
<p>늘 보던 존재이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음.</p>



새 동네 사람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부드러운 눈길로 바라봄.</li> <li>• 노새를 흥미로운 존재로 여김.</li> </ul>
<p>낯선 동물이기 때문에 신기해하고 관심을 가짐.</p>

**5** 새 동네 사람들이 노새를 대하는 태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새 동네 아이들이 노새를 가장 좋아했다.
- ② 노새가 오줌을 싸면 빈정거리고 싫어했다.
- ③ 노새에게 호감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이 많았다.
- ④ 처음 보는 노새에게 호기심과 신기함을 느꼈다.
- ⑤ 미소를 머금고 애정 어린 시선으로 노새를 바라보았다.

**교과서 날개** 구동네와 새 동네의 사람들이 노새를 대하는 태도가 다른 까닭은 무엇일까?

**6** 구동네 사람들이 노새에 관심이 없는 까닭으로 알맞은 것은?

- ① 지저분하고 시끄러워서
- ② 늘 보던 익숙한 존재라서
- ③ 좁은 골목을 함부로 헤집고 다녀서
- ④ 골목에 오줌을 싸는 것이 못마땅해서
- ⑤ 먹고살기 바빠 관심을 줄 여유가 없어서



아이들이 이러면 나는 나의 시키면 몰골도 생각하지 않고 어깨가 으쓱해졌다. 아버지도 그런 심정일까. 이런 때는 그럴 만한 대목도 아닌데 괜히,

“이라, 이라!”

하면서 고삐를 잡아끌었다. **㉠** 나는 사실 새 동네 아이들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다.

**해설 5**

개네들은 집 안에서 무얼 하는지 도무지 밖에 나오는 일도 드물었는데, 나온다 해도 저희네끼리만 어울리지 우리 구동네 아이들을 붙여 주지 않았다. 처음부터 우리가 개네들더러 끼워 달라고 한 일은 없으니까 붙여 주고 안 붙여 주고 할 것은 없었는데, 보면 알지 돌아가는 꼴이 그런 처지가 못 되었다. 우리 구동네 아이들야 학교 가는 시간을 빼고는 내내 밖에서만 노는데, 놀아도 여간 시망스럽게 놀지 않았다. 걸핏하면 싸움질이요, 걸핏하면 욕질이었다. 말썽은 어찌 그리도 잘 부리는지 아이들 싸움이 커진 어른 싸움도 끊일 날이 없었다. 그러자니 구동네 아이들은 자연히 새 동네 골목에까지 진출했다. 같은 골목이라도 새 동네는 조금 널찍한 데다가 사람들의 왕래도 그리 잦지 않아서 놀기에 좋았다. 그렇다고 새 동네 아이들이 텃세를 부리지도 않았다. 그들은 저희끼리 놀다가도 우리들이 내려가면 하나 먼저 자리를 잡은 사람이 뒤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대하여 가지는 특권 의식, 또는 뒷사람을 염신여기는 행동 들씩 슬며시 자기네 집으로 들어갔다. 그런 아이들이었으므로 나는 평소에 데면데면하게 대했는데 이들이 우리 노새를 보고 놀라거나 칭찬할 때에는 어쩐지 그들이 좋았다. 거기 비해서 우리 동네 아이들은 노새만 보면 엉덩이를 툭 치거나, 꼬챙이 같은 걸로 건드리고 머리를 쓰다듬는 척하면서 콧잔등을 한 대씩 쥐어박고 하기가 일쑤였다. 평소에 말수가 적고 화내는 일이 드문 아버지도 이런 때는 눈에 불을 켜고 개구쟁이들을 내몰았다.

“이 때갈 놈의 새끼들, 노새가 밥 달라든, 옷 달라든? 왜 지랄들이야!”

죄지은 사람이 잡혀갈

→ 노새를 좋아하는 새 동네 아이들과 노새를 못 살게 꾸는 구동네 아이들

**핵심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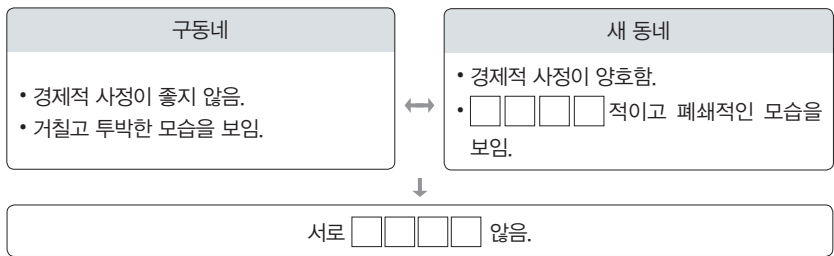
발단: 새 동네가 생기고 구동네와 새 동네 사람들은 서로 어울리지 않음.

• 소설에 나타난 삶의 모습

- □□가 끄는 마차로 연탄 배달을 함.
- 이삼 년 전부터 □□ □□이 들어섬.
- □□□□과 판잣집이 섞여 있음.
- 구멍가게에 ‘환타’, ‘미린다’, ‘퍼머스트 아이스크림’이 놓이고 슈샤인 보이가 다님.

→ 근대화가 이루어진 1970년대 서울 변두리 동네

• 구동네와 새 동네 사람들의 차이



**해설 5** 구동네 아이들과 새 동네 아이들의 차이

- 구동네 아이들
- 주로 밖에서만 놀.
  - 걸핏하면 싸움질과 욕질을 함.
  - 말썽을 잘 부림.
  - 노새를 귀찮게 건드림.



- 새 동네 아이들
- 공차기나 배드민턴을 하고 놀.
  - 집에서 잘 나오지 않음.
  - 저희끼리만 어울림.
  - 노새를 보고 놀라거나 칭찬함.

**교과서 날개** 새 동네 아이들과 구동네 아이들은 서로 어떻게 지냈을까?

**7** 구동네와 새 동네 아이들의 모습으로 알맞은 것은?

- ① 새 동네 아이들은 걸핏하면 싸웠다.
- ② 새 동네 아이들은 집에서 주로 놀았다.
- ③ 새 동네 아이들은 노새에게 짓궂은 장난을 했다.
- ④ 구동네 아이들은 새 동네 아이들에게 어울려 놀자고 말했다.
- ⑤ 구동네 아이들이 새 동네에 가서 놀면 새 동네 아이들은 텃세를 부렸다.

**8** 새 동네 아이들이 노새를 대하는 태도를 보는 ‘나’의 심정은?

- ① 창피함
- ② 뿌듯함
- ③ 억울함
- ④ 답답함
- ⑤ 부끄러움

**9** ㉠의 까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새 동네에 살기 때문에
- ② 우리 집보다 잘 살기 때문에
- ③ 노새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 ④ 저희들끼리만 어울려서 놀기 때문에
- ⑤ 대부분 새 동네 골목에서 놀기 때문에



**해님 6**

**바** 우리 집에 노새가 들어온 것은 이 년 전이었다. 그 전까지는 말을 부렸는데 누군가가 노새와 바꾸지 않겠느냐고 제의해 왔다. 싫으면 옷돈을 조금 얻어 주고라도 바꾸어 주겠다는 것이었다. 한 삼 년 가까이 그 말을 부려 온 아버지는 막상 놓기가 싫은 모양이었으나 그 말이 눈이 자주 짓무르고, 뒷다리 복사뼈 근처에 늘 상처가 가시지 않는 등 **잔병치레**가 잦은 터라, 두 번째 말을 걸어왔을 때 그러자고 응낙해 버렸다. 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큰형은 그래도 말이 낫지 그까짓 노새가 무슨 힘을 쓰겠느냐고, 바꾸지 말자고 했으나 노새를 한 번 보고 온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길로** 노새와 말을 맞바꾸었다. 아닌 게 아니라 노새는 힘이 하나도 없어 보였다. **보기**에도 **비리비리한** 게 약하디약하게만 보였다. 할머니나 어머니, 그리고 큰형은 **그것** 보라고, 이게 어떻게 그 무거운 연탄 짐을 나르겠느냐고 빈정댔는데, 그래도 아버지는 **가타부타** 말이 없이 노새를 우리로 끌고 가 우선 솔질부터 시작했다. 말이 **우리**이지 **그것**은 방과 바로 잇닿아 있는 처마를 조금 더 달아낸 곳에 있었다. 그래서 우리 집에는 항상 말 오줌 냄새가, 똥 냄새가 가실 날이 없었다. 그뿐 아니라 그 우리의 바로 옆방이 내가 할머니나 큰형과 함께 자는 방이었으므로 나는 잠결에도 노새가 앉았다 일어나는 소리, 히힃거리는 소리, 방귀 소리까지 들을 수 있었다. 어쨌거나 이 노새가 들어오면서 **그 뒤**치다꺼리는 주로 내가 맡게 되었다. 큰형도 더러 돌봐 주기는 했으나 **큰형**마저 **군**에 들어가고 난 뒤부터는 나에게 전적으로 그 일이 맡겨졌다. 고등학교를 나온 작은형이 있기는 해도 그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성화**에 아랑곳없이, 늘상 밖으로 싸다니기만 하고 집에 있을 때도 기타를 들고 **골방**에 **처박히기**가 일쑤였다. 가엾게도 노새는 원래는 회색빛이었는데도 우리 집에 온 뒤로는 차츰 연탄 때가 묻어 검정빛으로 변해 갔다. 엉덩이께는 물론 갈기도 까맣게 연탄 가루가 앉아 있었다. 내가 **감냥**으로는 지성스럽게 털어 주고 닦아 주고 하는데도, 연탄 때는 **속살**까지 **들어박히는지** 닦아 줄 때만 조금 희끗하다가 한바탕 배달을 갔다 오면 도로 그 모양이었다. 하지만 노새도 내 그런 정성을 짐작은 하는지, 멍청히 서 있다가도 내가 가까이 가면 고개를 위아래로 흔들며 알은체를 했다. **그랬는데 그 노새가** 오늘은 우리 집에 없다.

→ 노새가 우리 집에 오게된 경위와 노새가 없어진 사건

**빈출지문**

**사** 노새가 갑자기 달아난 건 어저께 일이었다. 아버지는 연탄을 실은 뒤 노새의 고삐를 잡고 나는 그냥 뒤따르고 있었다. 내가 뒤따르는 것은 아버지에게 큰 도움이 못 되고 하릴없이 따라다니기만 할 뿐이었다. **야트막한 언덕길**을 오를 때 마차의 뒤를 밀기도 했으나 그것은 그대로 시늉일 뿐, 내 어린 힘으로 어떻게 된다는가 하는 일은 없었다. 아버지는 이따금 따라다니지 말고 집에 가서 공부나 하라고 했지만, 내가 공부 다 했어요, 하면 그 이상 더 말리지는 않았다. 그러나 연탄을 싣거나 부릴 때 내가 거들려고 나서면 아버지는 **한사코** 그걸 말렸다. 아버지가 그랬으므로 나는 그러면 더 좋지 하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망아지 모양 마차 뒤만 졸졸 따라다녔다. 바로 어저께도 그랬다. 새 동네의 두 집에서 이백 장씩 갖다 달라고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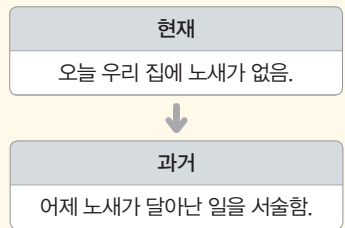
**해님 6** '과거 회상 장면' 삽입의 기능

내용	노새가 어떤 과정을 거쳐 '나'의 가족에게 오게 되었는지 보여 줌.
의미	노새는 삶의 도구로 우리에게 왔지만 어느새 가족과 같은 존재가 됨.
기능	노새가 '나'의 가족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려 주며, 앞으로 전개될 사건이 '나'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주는 것인지 독자가 짐작할 수 있게 함.

**10** (바)와 같이 과거 회상 장면을 삽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로 알맞은 것은?

- ① 노새가 말보다 나은 까닭을 알 수 있다.
- ② 노새가 도망 간 까닭을 짐작할 수 있다.
- ③ 노새가 잔병치레를 많이 했음을 알 수 있다.
- ④ '나'의 가족에게 노새가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다.
- ⑤ '나'가 노새보다 말을 좋아하게 된 까닭을 알 수 있다.

**해님 7** 사건의 전개: 역순행적 구성



**11** 이 글에서 사건을 전개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 ① 평면적 구성으로 전개하고 있다.
- ② 역순행적 구성으로 전개하고 있다.
- ③ 공간의 이동에 따라 전개하고 있다.
- ④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하고 있다.
- ⑤ 인물의 심리 변화에 따라 전개하고 있다.



서 아버지는 연탄 사백 장을 신고 새 동네로 들어가는 그 가파른 골목길을 들어서고 있었다. 애기의 앞뒤가 조금 뒤바뀌었지만, 우리 아버지는 연탄 가게의 주인이 아니고 큰길가에 있는 연탄 공장에서 배달 일만 맡고 있다. 그러므로 연탄 공장의 배달 주임이 어느 동네 어느 집에 몇 장을 날라다 주라고 하면, 그만한 양의 탄을 실어다 주고 거기 따르는 구전만 받으면 그만이었다. **행님 8** 그런데 한 가지 자랑스러운 일은 아버지는 아무리 찾기 힘든 집이라도 척척 알아낸다는 것이다. 연탄 공장 사람들의 설명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알 만하오, 한마디면 그만이었다. 열이면 열 거의 틀리는 일이 없었다. 오죽하면 공장 사람들도,

“마차 영감은 집 찾는 데 귀신이라니깐.”

하면서 혀를 내두를까. 그들도 아버지에게 실려 보내면 마음이 놓인다는 것이었다. 어저께도 아버지는 이러이러한 맥에 갖다주라는 말을 듣자, 두 번 다시 물어보지 않고 짐을 신고 나선 것이다. **→ 노새가 달아난 사건에 대한 회상**

**행님 9** **아** 그 가파른 골목길 어귀에 이르자 아버지는 미리 노새 고삐를 낚아 잡고 한달음에 올라갈 채비를 하였다. 그러나 어떤 일인지 다른 때 같으면 사백 장 정도 신고는 힘 안 들이고 올라설 수 있는 고개인데도 이날따라 오름길 중턱에서 턱 걸리고 말았다. 아버지는 어, 하는 눈치더니 고삐를 거머쥐고 힘껏 당겼다. 이마에 힘줄이 굽게 돋았다. 얼굴이 빨개졌다. 나는 얼른 달라붙어 죽어라고 밀었다. 그러나 길바닥에는 살얼음이 한 겹 살짝 깔려 있어서 마차를 미는 내 발도 줄줄 미끄러져 나가기만 했다. 노새는 앞뒤 발을 딱딱 소리를 낼 만큼 힘껏 땅을 밀어 냈으나 마차는 그때마다 살얼음 위에 노새의 발자국만 하얗게 굽힐 뿐 조금도 올라가지 않았다. 아직은 아래쪽으로 밀려 내리지 않고 제자리에 버티고 선 것만도 다행이었다. 사람들이 몇 명 지나갔으나 모두 쳐다보기만 할 뿐 아무도 달라붙지는 않았다. 그전에도 그랬다. 사람들은 얼핏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났다가도, 상대가 연탄 마차인 것을 알고는 감히 손을 내밀지 못했다. 도대체 어디다 손을 댄단 말인가. 제대로 하자면 손만 아니라 배도 착 붙이고 밀어야 할 판인데 그랬다간 옷을 모두 망치지 않겠는가. 옷을 망치면서까지 친절을 베풀 사람은 이 세상엔 없다고 나는 믿어 오고 있다. 그건 그렇고, 그런 시간에도 마차는 자꾸 밀려 내려오고 있었다. 돌을 괴려고 주변을 살펴보았으나 그만한 돌이 얼른 눈에 띄지 않을뿐더러, 그나마 나까지 손을 놓으면 와르르 밀려 내려올 것 같아서 손을 뗄 수가 없었다. 아버지는 평소의 그답지 않게 사정없이 노새에게 매질을 해댔다.



“이랴, 우라질 놈의 노새, 이랴!”  
 뜻대로 일이 안 되거나 마음에 안 들 때 혼자서 욕으로 하는 말

**→ 노새가 골목길을 오르지 못하자 찼찼매는 아버지와 ‘나’**

**행님 8** 아버지에 대한 ‘나’의 태도

- 아버지는 노새가 끄는 마차에 연탄을 실어 배달함.
- 아버지는 아무리 찾기 힘든 집이라도 척척 알아냄.



‘나’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김.

**교과서 날개** ‘나’가 아버지에 관해 자랑스러워하는 일은 무엇인가?

**12** 아버지에 대한 ‘나’의 심리로 알맞은 것은?

- ① 두려움                      ② 그리움
- ③ 부끄러움                  ④ 안타까움
- ⑤ 자랑스러움

**13** (아)에서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소재를 찾아 2어절로 쓰시오.

- 보기 -

- 아버지와 노새의 고달프고 힘든 삶의 공간
- 노새가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하는 공간적 배경

**행님 9** ‘노새’의 상징적 의미

무거운 짐을 지고 언덕을 올라가는 노새

-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되었지만 가정의 책임을 다하려는 아버지
- 힘겹고 고단하게 살아가는 이 시대의 아버지

**14**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소재로 알맞은 것은?

- 보기 -

이것은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되었지만 가정의 책임을 다하려는 아버지를 상징한다.

- ① 연탄                      ② 공장                      ③ 노새
- ④ 힘줄                      ⑤ 살얼음

자 노새는 눈을 뒤집어 까다시며 하면서 **바득바득** 악을 써 댔으나 판은 이미 그  
 른 판이었다. 그때였다. 노새가 발에서 잠깐 힘을 빼는가 싶더니 마차가 아래쪽으  
 로 와르르 흘러내렸다. 뒤미처 노새가 **고꾸라지고** 연탄 더미가 데구루루 무너졌  
 다. 아버지는 밀려 내려가는 마차를 따라 몇 발짝 뒷걸음질을 치다가 **홀랑** 물구나  
 무서는 꼴로 나자빠졌다. 나는 얼른 **한옆으로** 비켜섰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러나 ㉠정작 일은 그다음에 벌어지고 말았다. 허우적거리며 마차에 질질 끌려가  
 던 노새가 마차가 **내박쳐진**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냅다 뛰  
 기 시작한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벌떡 일어섰다가 순간적으로 아버지와 내가 있  
 는 쪽을 힐끔 쳐다보고는 이내 뛰어 버린 것이다. 마차가 넘어지면서 무엇이 부러  
 져 몸이 자유롭게 된 모양이었다.

㉠“어, 어, 내 노새.”

아버지는 넘어진 채 그 **경황에도** 뛰어가는 노새를 쳐다보더니 얼굴이 새하얘졌  
 다. 그러나 그런 **망설임도** 그때뿐 아버지는 힘들게 일어서자 **판사람이** 되어 빠른  
 걸음으로 노새를 뒤쫓았다.

→ 달아나는 노새를 뒤쫓아가는 아버지

**핵심 속독** 전개: 연탄 배달 마차가 언덕에서 넘어지면서 노새가 달아남.

• 아버지의 특징

아버지

- 말수가 적고 화를 잘 내지 않음.
- 가장으로서의 이 강함.
- 주변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음.

→ 1970년대 가정의 모습

• ‘노새’의 상징적 의미

무거운 을 지고 언덕을 올라가는 노새 → 힘겹고 고단하게 살아가는 이 시대의 아버지

차 “내 노새, 내 노새.”

아버지는 크게 소리 지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입안엿소리도 아닌, 엉거주춤  
 한 소리로 연방 뇌면서 노새가 달려간 곳으로 뛰어갔다. 나도 얼른 아버지의 뒤를  
 따랐다. 노새는 십 미터쯤 앞에 뛰어가고 있었다. 뒤미처 앞쪽에서는 악악 하는 비  
 명 소리가 들려왔다. 어깨에 스케이트 주머니를 메고 오던 아이들 둘이 기겁을 해  
 서 길옆으로 비켜서고, 뒤따라오던 여학생 한 명이 **엄마!** 하면서 오던 길을 달려갔  
 다. 손자를 업고 오던 할머니 한 분은 이런 이런! 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그  
 자리에 폭삭 주저앉고 말았다. 막 옆 골목을 빠져나오던 택시가 짹 브레이크를 걸  
 더니 덜렁 한바탕 춤을 추고 멎었다. 금세 이 집 저 집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  
 서 골목은 어느 사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웅성대기 시작했다.

“왜 그래,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말이 도망갔구나 봐, 말이 도망갔구나 봐.”

“무슨 말이, 무슨 말이.”

15 (자)와 (차)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몸이 자유롭게 된 노새가 도망치게 되었다.
- ② 노새는 탈출에 성공한 것이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 ③ 노새가 여기저기 날뛰는 바람에 동네가 아수라장이 되었다.
- ④ 도망친 노새를 보고 사람들은 깜짝 놀라 기겁하여 비명을 질렀다.
- ⑤ 노새가 도망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골목으로 나와 웅성대기 시작했다.

교과서 날개 노새가 도망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16 ‘나’와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태도로 알맞은 것은?

- ① 아버지와 ‘나’의 평소 행동을 비판한다.
- ② 아버지와 ‘나’의 행동에 불만을 표현한다.
- ③ 아버지와 ‘나’가 느낀 낭패감에 공감한다.
- ④ 아버지와 ‘나’가 고난을 스스로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⑤ 아버지와 ‘나’의 모습을 보고 응성 거릴 뿐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다.

17 ㉠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3어절로 쓰시오.

18 ㉠에서 짐작할 수 있는 아버지의 심리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놀람
- ② 절박함
- ③ 다급함
- ④ 부끄러움
- ⑤ 당황스러움



“저기 뛰어가지 않아.”

“얼라, 얼라, 그렇군. 말이 뛰어가는군.”

“별꼴이야, 말 마차가 지금도 있었군.”

이런 웅성거림 속을 아버지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땀박질 쳐 갔다.

“내 노새, 내 노새.”

→ 달아나는 노새 때문에 난장판이 된 골목

**카** 그때 나는 아버지보다 몇 발짝 앞서 있었다. 아버지의 헉헉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노새는 우리보다 훨씬 빨랐다. 노새는 이미 큰길로 나가고 있었다. 드디어 아버지는 큰길로 나오자 덜컥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노새는 이제 보이지 않았지만 나는 노새보다도 아버지의 일이 더 큰일일 것 같아서, 뛰던 것을 멈추고 아버지의 손을 잡고 끌어 일으키려고 했다. ㉠한데 아버지는 쉽게 일어나지를 못했다. **학님 10** 아버지의 눈은 더할 수 없는 실망과 깊은 낭패로 가득 차, 나는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슬며시 고개를 돌리다가 이내 축 쳐지고 말았다. 얼굴 근육이 실룩거리는데, 계획한 일이 실패로 돌아가거나 기대에 어긋나 매우 딱하게 됨. 근육의 한 부분이 자주 실그러지게 움직이는 눈물이 날 것 같았으나 나는 그것을 억지로 참고 계속해서 아버지의 팔목을 이끌었다.

“아버지, 여기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해요. 노새를 찾아야지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부자의 이런 모습을 구경거리나 되는 듯이 잠깐잠깐 쳐다보았다.

“그래.”

아버지는 힘없이 일어났으나 나는 어디를 어떻게 가야 할지 그저 막막하기만 했다. 아버지도 그런 눈치인 듯 나를 한 번 덤덤히 쳐다보다가 아무 말 없이 앞장을 서기 시작했다. 두 사람 중 아무도 내박쳐진 마차며 연탄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그 뒤처리도 큰일일 테니 말이다. 터덜터덜 걸어서 네거리까지 온 우리는 정작 그때부터 막막함을 느꼈다. 동서남북 어느 쪽으로 가야 할 것인가.

“아버지, 이렇게 하면 어때요. 둘이 같이 다닐 게 아니라 따로따로 헤어져서 찾아보도록 해요. 내가 이쪽 길로 갈 테니깐 아버지는 저쪽 길로 가세요. 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나와는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다.

→ 큰길로 달아나는 노새를 잡지 못해 절망하는 아버지

**타** 아버지와 헤어진 나는 사뭇 뛰었다. 사람들은 거리에 가득 넘쳐 있었다. 크고 작은 자동차는 뽕뽕거리면서 거리낌 없이 마구 찹찹 달려가고 달려오고 하였다. 5층 건물, 3층 건물이 즐비한 거리는 언제나처럼 분주했다. **학님 11** 아무도 나를 붙잡고 왜 뛰느냐고, 노새를 찾아 나선 길이라고 묻지 않았다. 아무도 내가 찾는 노새가 방금 저쪽으로 뛰어갔다고 걱정 말라고 일러 주지 않았다. 나는 이 사람에게 툭 부딪치고, 저 사람에게 툭 부딪치면서 사뭇 뛰었다. 그러나 뛰면서도 돌레돌레 사방을 쳐다보는 것을 잊지 않았다. 벌써 거리는 조금씩 어두워지고 있었다. 이미 앞이마에 헤드라이트를

**해님 10** 노새를 잃은 아버지의 심리와 '나'의 반응

아버지의 심리	더할 수 없는 실망과 깊은 낭패로 가득 참.
---------	--------------------------



'나'의 반응	• 슬픔이 복받침. • 아버지를 이끌며 노새를 찾으러 가져다 함.
---------	---

**19** ㉠에서 알 수 있는 아버지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두 단어를 (카)에서 찾아 쓰시오.

**교과서 날개** 아버지를 보는 '나'의 심정은 어떠한가?

**20** (카)에서 아버지를 보는 '나'의 심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슬픔                      ② 서운함
- ③ 안타까움                ④ 안쓰러움
- ⑤ 걱정스러움

**해님 11** 주변 사람들의 태도

노새가 달아나는 모습을 본 사람들
노새가 달아나는 모습을 보며 한마디씩 말만 할 뿐 도와주려고 하지 않음.

거리에 있던 사람들
• 아무도 '나'에게 왜 뛰는지, 노새를 찾아 나선 길이라고 묻지 않음. • 아무도 내가 찾는 노새가 방금 저쪽으로 뛰어갔다고 걱정 말라고 일러 주지 않음.



남에게 무관심한 도시인의 태도를 보여 줌.
-------------------------

**21** (카), (타)에서 주변 사람들이 보이는 태도로 알맞은 것은?

- ① 남에게 무관심한 모습
- ② 타인의 불행을 즐거워하는 모습
- ③ 과정보다 결과에 치중하는 모습
- ④ 새로운 일에 도전하지 않는 모습
- ⑤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는 모습



큰 자동차도 있었다. 나는 그런 자동차들이 막 뛰어다니는 노새로 보였다. 파랑 노새, 빨강 노새, 까만 노새들이 마구 뛰어다니는 것이 아닌가. 바람같이 달리는 놈, 슬슬 가는 놈, 엉금엉금 기는 놈, 갑자기 멈추는 놈, 막 가다가 **휙** 돌아서는 놈, 그것은 가지가지였다. 그런데도 그중에 우리 노새는 없었다. **두 귀가 쫑긋하고 눈이 멀뚱멀뚱 크고, 코가 예쁘고, 알맞게 살이 찐, 엉덩이에 까맣게 연탄 가루가 묻어 반질반질하고, 우리 사촌 이모 머리채처럼 꼬리를 길게 늘어뜨린 우리 노새는 안 보였다.**

→ 노새를 찾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외로운 '나'의 모습

**비밀지문**  
**파**

어디까지 왔지도 몰랐다. 차츰 다리가 아프기 시작했다. 배도 고프기 시작했다. 그리고 보면 나는 오늘 점심도 **설친 채**였다. 아이들하고 한참 놀다가 집에서 점심을 **뭇 술 뜨는 등 마는 등** 하다가 아버지의 일이 **궁금하여 연탄 공장에 갔었는데** 그때 마침 아버지가 짐을 싣고 나오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 노새를 찾아야 한다, 노새를 찾아야 한다는 마음이 내 걸음에 앞서, 뭇 번고꾸라지기도 하였다. 더러는 어떤 신사 아저씨의 옆구리에 넘어지듯 부닥치기도 하였는데, 그러면 그 아저씨는 / “이 녀석아…….”

어찌고 하면서 못마땅하게 쳐다보고, 더러는 어떤 아주머니의 **치마꼬리를 밟기도** 하였는데, 그러면 그 아주머니는, / “애가 왜 이래, 눈을 어디 두고 다녀?”

하면서 호통을 치기도 하였다. 그럴 때마다 나는,

‘미안해요, 우리 노새를 찾느라고 그래요.’

하고 뇌까렸으나 그것이 입 밖으로 말이 되어 나오지는 않았다. 입안이 메말라서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마구 지껄였으나 도무지 말을 하고 싶지도 않았다. 언뜻 내가 왜 이렇게 **쏘다니고 있을까**, 노새가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왜 이렇게 방황해야만 하는가 하는 생각이 없지도 않았으나 그런 마음에 앞서 내 눈은 **부산하게 거리의 구석구석을 살피고 있었다**. 그리고 보면 나는 그동안 **우리 노새와 깊이 정이 들어 있었는지도 몰랐다**. 자다가도 바로 옆 마구간에서 노새가 **투레질하는 소리, 발을 들었다 놓았다 하는 소리를 들으면** 웬지 마음이 **놓였고, 길에서 놀다가도 저만치서 아버지에게 끌려오는 노새가 보이면 후딱 달려가 그 시커먼 엉덩이를 한번 두들겨 주기도 했다**. 그러면 저도 나를 알아보는지 **그 큰 눈을 한번 크게 치떴다가 내리곤 했다**. 아이들은 그런 나를 더욱 **놀**

**해상 12** 노새에 대한 '나'의 관점

노새의 외양 묘사  
쫑긋한 두 귀, 멀뚱멀뚱 한 큰 눈, 예쁜 코, 알맞게 살이 찐 엉덩이, 길게 늘어뜨린 꼬리



'나'의 관점  
노새를 친근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여기고 있음.

**교과서 날개** '나'의 눈에 자동차들이 노새처럼 보인 까닭은 무엇일까?

**22** <보기>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 보기 -

'나'가 ( )들을 노새로 본 까닭은 노새를 찾아야 하는 다급함과 노새를 꼭 찾고 싶은 절박한 마음 때문이다.

**23** (파)에서 노새를 찾는 '나'의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노새를 찾기 위해 오랫동안 돌아다녔다.
- ② 지치고 힘들지만 노새 찾는 것을 멈출 수 없다.
- ③ 너무 힘들어서 노새를 찾는 것을 포기하려고 한다.
- ④ 노새를 꼭 찾아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이 느껴진다.
- ⑤ 호통을 치는 다른 사람들과 대비되어 더욱 안쓰러워 보인다.

**교과서 날개** '나'에게 노새는 어떤 의미일까?

**24** '나'에게 노새가 지니는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생계를 이어 갈 수단
- ② 삶의 지향점이자 목표
- ③ 친근한 가족 같은 존재
- ④ 유일하게 의지하는 친구
- ⑤ 책임지고 지켜 줘야 할 존재



려 됐다.

“비리비리 노새 새끼.”

그리고 나더러는 ‘까마귀 새끼’라고 말이다. 까마귀 새끼라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까맣게 연탄 가루를 뒤집어쓰고 다닌대서 그 아들인 나를 가리키는 말이다. 사실 아버지는 노상 시키면 몰골을 하고 다녔다. 옷은 물론 국방색 신발도 어느새 언제나 변함없이 한 모양으로 줄곧 육군의 군복 빛깔과 같은 카키색이나 어두운 녹색 눈이 속 들어가 크고 기운 없이 → 노새를 찾으려고 절박하게 거리를 헤매고 있는 ‘나’ 상대편이 눈치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미리 슬그머니 일깨워 줌. 크게 들이마신 숨을 길게 내뿜고 → 노새를 찾으려고 절박하게 거리를 헤매고 있는 ‘나’ 상대편이 눈치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미리 슬그머니 일깨워 줌. 크게 들이마신 숨을 길게 내뿜고

**해설 13**

영길이네 아버지는 조그마한 기계와 연탄불을 피워 가지고 다니면서 빵 소리와 함께 생쌀을 납작하게 눌러 튀겨 내는 장사를 하고 있었고, 종달이네 형님은 번데기 장수였다. 순철이네 아버지는 시장 경비원이었고, 귀달네 아버지는 포장마차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영길이더러 ‘빵’, 종달이더러는 ‘뻐’이라는 별명을 붙여 주었으며, 순철이, 귀달이도 모두 하나씩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까마귀 새끼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고 별로 억울할 것도 없었다.

**반출지문**

**하** 내가 집에 돌아온 것은 밤 열 시도 넘어서였으나 아버지는 그때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할머니와 어머니는 동네 사람들의 귀뜸으로 미리 사건을 알고 있었

“찾았니?”

“아버지는 어떻게 되셨어?”

내가 혼자 들어서는 걸 보면 찾지 못한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어머니는 다그쳐 물어 됐다. 어머니는 나에게 밥을 줄 생각도 하지 않고 한숨만 내리쉬고 올려 쉬곤 하였다.

아버지가 돌아온 것은 ㉠통행금지 시간이 거의 되어서였다. 예상한 일이지만 아버지는 빈 몸이었고 형편없이 힘이 빠져 있었다. 그때까지 식구들은 아무도 잠들지 않았다. 작은형도 일이 일인지라 기타도 치지 않고 죽은 듯이 방 안에만 처박혀 있었다. 아버지를 보고도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다만 할머니만이 말을 걸었다.

“이제 오니?”

“네.”

그뿐, 아버지는 더는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어머니가 보아 온 밥상을 한엿으로 밀어 놓고는 쓰러지듯 방 한가운데 드러눕고 말았다. 아버지는 지금 내일부터 당장 벌이를 나갈 수 없는 아픔보다도 길들여 키워 온 노새가 가여워서 저러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아버지는 원래가 마부였다. 서울에 올라오기 전 시골에서도 줄곧 말 마차를 끌었다. 어찌다가 말을 부려서 마차나 수레를 모는 사람 소가 끄는 수레 → 노새를 찾으려고 절박하게 거리를 헤매고 있는 ‘나’ 상대편이 눈치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미리 슬그머니 일깨워 줌. 크게 들이마신 숨을 길게 내뿜고

**해설 13** 구동네 사람들의 직업

‘나’의 아버지	연탄 배달부
영길이네 아버지	빵튀기 장수
종달이네 형님	번데기 장수
순철이네 아버지	시장 경비원
귀달네 아버지	포장마차 장사



주로 육체노동에 종사함.

**25** 아이들의 별명을 통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 ① 도시화가 되면서 다양한 직업이 생겨났다.
- ② 구동네 사람들은 힘들고 낯은일을 기피한다.
- ③ 구동네 사람들은 가족들끼리 교류가 적었다.
- ④ 구동네 사람들은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다.
- ⑤ 구동네 사람들은 서로의 가족에게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26** 아이들이 ‘나’의 아버지를 ㉠으로 부르는 까닭을 찾아 쓰시오.

**27** ㉠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노새의 슬픈 운명을 암시한다.
- ② 1970년대 시대 상황을 드러낸다.
- ③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까닭이 된다.
- ④ 당시에는 밤 시간에 일반인의 통행을 금지하였다.
- ⑤ 아버지가 늦게까지 노새를 찾다가 돌아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서 도로 말 마차로 바꾸곤 했다. 그런 아버지였으므로 서울에 올라와서는 내내 말 마차 하나로 버텨 나왔었는데 어떻게 마음먹었는지 노새로 바꾸고 만 것이다. **노새나 말이나 요즘은 그놈의 삼륜차 때문에 아버지의 일감이 자칫 줄어들듯하기도 했다.** 바뀌기 세 개 달린 차, 주로 짐을 실어 나르는 데 쓰임. 웬만한 오르막길도 끄떡없이 오르고, 웬만한 골목 안 집까지도 드르륵 들이닥치니 아버지의 말 마차가 위협을 느낌 직도 했고, 사실 일감을 빼앗기기도 했다. 그런데도 그때마다 아버지는 큰소리였다.

“휘발유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서 자동차만 많으면 뭘 해.”

마치 애국자처럼 말하는 것이었으나 나는 아버지의 그 말 뒤에 숨은 **오기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너무 고단해서였을까, 이날 밤 나는 능력은 부족하면서도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마음 앞뒤를 가릴 수 없을 만큼 깊이 잠에 빠졌던 것 같다.

→ 노새를 잃어버린 아버지의 시름

**행님 15**  
**거** 골목에서 뛰쳐나온 노새는 **큰길**로 나오자 잠시 망설이다가 곧 길 복판으로 뛰어 들어 갔다. 그러자 달려가고 달려오던 차들이 브레이크를 밟느라고 짹, 짹 소리를 냈으나 노새는 그걸 본체만체하고 달렸다. 어디서 뛰어났는지 교통순경이 호루라기를 불며 달려오다가 노새가 가까이 오자 **혼비백산**해서 도망갔다. 인도를 걸어 가던 사람들이 일제히 발을 멈추고 노새의 몸이 놀라 넋을 잃음을 이르는 말 가는 곳을 쳐다보곤 저마다 놀라고, 또는 재미있다는 표정을 지었다.

“허허, 저놈이 제 세상 만났군.”

“고삐 풀린 말이라더니 저놈도 저렇게 한번 뛰어 보고 싶었을 거야.”

“엄마, 저게 똥데 저렇게 뛰어가? 말이지?”

“글쎄, 말보다는 작은데 노새 같다, 애.”

사람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노새는 뛰고 또 뛰었다. 연탄 짐을 매지 않은 몸은 훨훨 날 것 같았다. 가파른 길도 없었고 채찍질도 없었고 앞길을 막는 사람도 없었다. 신호등에 파란불이 켜진 때도 있었고 노란불이 켜진 때도 있었으며 빨간불이 켜진 때도 있었으나, 막무가내로 그냥 뛰기만 했다. 노새는 이윽고 **횡단보도**에 이르렀다. 마침 파란불이 켜져서 우우 하고 길을 건너던 사람들이, 앓, 앓,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풍비박산**이 되었다. 사방으로 날아 흩어짐. 보통이를 이고 가던 아주머니가 오메 소리를 지르며 물건을 보에 써서 꾸러 놓은 것 딱 그 자리에 넘어지자 머리 위에 있던 보통이가 대구루루 굴렀다. 다정히 손 잡고 가던 모녀가 어머뭇 소리를 지르며 제자리에 우뚝 섰다. 재잘거리며 가던 두아가씨가 엄마! 소리를 지르며 한꺼번에 엉켜 넘어졌다. 자전거에 맥주 상자를 싣고 기우뚱기우뚱 건너가던 인부가 앞사람이 갑자기 뒷걸음질 치는 바람에 자전거의 핸들을 놓쳐 중심을 잃은 술상자가 우르르 넘어졌다. 밍크 목도리에 몸을 휘감고 가던 아주머니가 난 몰라! 하고 소리를 지르며 **휙** 돌아서다가 자기도 모르게 옆에 있는 낫모르는 아저씨 품에 안겼다. 땃국이 잘잘 흐르는 잠바 청년 하나가 이때 위! 위! 하면서 앞을 가로막았으나 노새가 앞다리를 번쩍 한 번 들자 아이쿠 소리를 지르면서 인도 쪽으로 도망갔다.

→ 자유롭게 거리를 뛰어다니는 노새와 이로 인해 복새등을 이루는 사람들

#### 행님 14 작품에 반영된 삶의 모습

도시 변두리 주민은 주로 육체노동에 종사함.

성장과 개발에서 소외되어 경제 형편이 넉넉하지 않음.

새로운 운송 수단의 등장으로 아버지의 일자리가 위협받음.

산업화·도시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발생함.

**교과서 날개** 아버지는 왜 삼륜차가 아닌 말이나 노새를 끌었을까?

**28** (하)를 통해 알 수 있는 당시의 삶의 모습으로 알맞은 것은?

- ① 자동차보다 마차를 더 많이 사용했다.
- ② 도시에서 시골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 ③ 삼륜차 때문에 말 마차의 일감이 줄어들었다.
- ④ 휘발유가 전혀 나지 않아 자동차를 탈 수 없었다.
- ⑤ 배달 일에는 삼륜차보다 노새 마차가 더 효율적이었다.

#### 행님 15 꿈속 노새의 이동 경로와 상징성

##### 노새의 이동 경로

골목 → 큰길 → 횡단보도 → 변화가  
→ 큰 시장 → 한길 → 한강 다리 →  
고속 도로

##### 상징적 의미

산업화·도시화에 뒤쳐진 사람들이 고단한 삶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는 소망

**29** (거)에 나타난 노새의 이동 경로가 아닌 것은?

- ① 골목
- ② 큰길
- ③ 변화가
- ④ 경찰서
- ⑤ 횡단보도



노새는 그대로 달렸다. 뒤미처 순경이 쫓아오는 소리가 나고 <sup>차체에 흰 철을 한, 경찰이나 헌병의 순찰차</sup>앵앵거리며 백차가 따라오고 있었다. 노새는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았다. 노새는 어느덧 **변화가** 들어서고 있었다. 여기는 아까의 횡단 길보다도 더욱 사람이 많았다. 노새는 자꾸 자동차가 걸리는 것이 귀찮았던지 성큼 인도 쪽으로 방향을 꺾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더욱 요란스러운 혼란이 벌어졌다. 사람들은 달랑달랑하는 노새의 목에 달린 방울 소리가 들릴 때는 호기심으로 그쪽을 쳐다보았다가도, 금세 **인파**가 우우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하면서 눈앞에 노새가 <sup>사람의 물결이란 뜻으로, 수많은 사람을 이르는 말</sup>뛰어오자 **어쩔 바를 모르**고 **왹, 왹,** 소리를 지르며 달아나기에 바빴다. 분홍색 하이힐 짝이 나뒀굴고, 곱게 싼 상품 상자들이 이리저리 흩어졌다. 신사가 한옆으로 급히 비키다가 콘크리트 전봇대에 이마를 찡고, 군인이 앞사람의 뒤통지에 밟혀 기우뚱하다가 뒤에 오는 할아버지를 안고 넘어졌다. 배지를 단 여대생이 **황망히** 길옆 제과점으로 도망치다가 안에서 <sup>마음이 몹시 급하여 당황하고 허둥지둥하는 면이 있게</sup>나오던 청년과 마주쳐 나무토막 **쓰러지**듯 넘어지고, 아이스크림을 **핥고** 가던 꼬마들이 얼싸안고 넘어졌다.

변화가 옆은 **큰 시장**이었다. 노새가 이번에는 그 시장 속으로 뚫고 들어갔다. 머리에 수건을 **동이고** 좌판 앞에 앉아 있던 아낙네들이 아이구 이걸 어찌지, 하면서 <sup>끈이나 실 따위로 감거나 둘러 묶고</sup>벌떡 일어서는 것을 신호로, 시장 안에 벌집 쑤신 듯한 소동이 사방으로 번져 갔다. 콩나물 통이 엷어지고, 시금치가 흩어지고, 도라지가 짓이겨지고, 사과알이 테굴테굴 굴렀다. 미꾸라지 통이 엷어지고, 시루떡이 흩어지고 **테토론** **웃감**이 나폴 <sup>폴리에스터계 합성 섬유, 또는 이 섬유로 짠 천</sup>거리고 제주 밀감이 사방으로 굴렀다. 갈치가 뛰고 동태가 날고, 낙지가 **미끈뚱미끈뚱** 길바닥을 메웠다. 연락을 받고 달려왔는지 시장 경비원 두세 명이 이놈의 노새, 이놈의 노새, 하면서 앞뒤를 막았으나 워낙 젓 먹던 힘까지 다 내서 길길이 뛰는 노새를 붙들지는 못하고, 저 노새 잡아라, 저 노새, 하고 외치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 뿐이었다.

골목을 뛰쳐나온 지 한 시간이 지났을까, 노새는 시장 안에서 한바탕 **복새**를 떨고는 다시 **한길**로 나왔다. 이 무렵에는 경찰에 <sup>많은 사람이 야단스럽게 부산을 떨며 번식하는 일</sup>비상이 걸렸는지 **곳곳**에 **모자 끈**을 <sup>사람이나 차가 많이 다니는 넓은 길</sup>



**30** 노새의 상황을 바르게 이해한 사람은?

- ① 신우: 주인을 찾아 거리를 헤매고 있군.
- ② 주연: 사람들 때문에 놀라서 도망가고 있어.
- ③ 지성: 자동차 소음으로 인해 길을 잃어버렸군.
- ④ 승연: 특별히 정한 곳 없이 마구 달리고 있군.
- ⑤ 다솜: 사람들이 다칠까 봐 사람들을 피해서 달리고 있어.

**31** 거리를 휘젓고 다니는 노새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바로 알맞은 것은?

- ① 보호받지 못해 불안한 마음
- ② 꿈에서라도 무시당하고 싶지 않은 마음
- ③ 고단한 삶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소망
- ④ 자신을 업신여겼던 사람들에게 대한 복수심
- ⑤ 언젠간 새 동네로 이사 갈 수 있다는 희망

**32** (거)에 드러난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노새의 이동 경로를 상세히 밝히고 있다.
- ② 사람들의 반응과 행동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 ③ 노새가 이동하는 장소의 필연성을 제시하고 있다.
- ④ 노새가 달아나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⑤ 노새 때문에 벌어진 혼란스러운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턱에까지 내린 경찰관들이 지키고 서 있었다. 서울 장안이 온통 야단이 난 모양이었다. 군데군데 무전차가 동원되어 자기네끼리 노새의 방향에 대해서 연락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노새는 미리 그것을 알고라도 있는 듯 용케도 경비가 허술한 길만을 찾아 잘도 달려갔다. 모가지는 물론, 갈기며 어쩔죽지, 그리고 등허리에 땀이 비 오듯 해서 네 다리에 물이 주르르 흐르고 있었다. 검은 물이. 노새는 벌써 **한강 다리**를 건너고 있었다. 노새는 얼핏 좌우로 한강 물을 훑어보더니 여전히 뛰어가면서도 길게 심호흡을 하였다. 다리를 건너고 얼마를 가자 길이 넓어지고 앞이 특트였다. **고속 도로**였다. 노새는 돈도 안 내고 **톨게이트**를 빠져나가더니 그때부터는 다소 속도를 늦추었다. 그러나 **절대로 뛰는 일을 멈추지는 않았다.**

→ 변화가, 시장을 뛰어다니다 경찰을 제치고 고속 도로로 달려가는 노새

**행님 16**  
**㉮** 여느 날보다 다소 늦게 일어난 나는 간밤의 **꿈**으로 하여 어쩐지 마음이 헛헛했다. 꿈 그대로라면 우리는 다시는 그 노새를 찾지 못할 것이 아닌가. 꿈대로라면 우리 노새는 고속 도로를 따라 멀리멀리 달아나서 우리가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곳, 상상도 할 수 없는 곳에 가서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를 버리고 간 노새, 그는 매일 매일 그 무거운, 그 시커먼 연탄을 끄는 일이 지겹고 지겨워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자기의 보급자리를 찾아 영 떠나가 버렸는가. 아버지와 내가 집을 나선 것은 사람들이 아직 출근하기도 전인 이른 새벽이었다. 큰길로 나오자 두 사람은 막상 어느 쪽부터 뒤져야 할지 막연하기만 했다. 둘 중 아무도 말을 꺼내지는 않았으나 부자는 잠깐 주춤하다가 동네와는 판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다. 새벽이라 그런지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데 날씨가 몹시도 찻다. 길은 단단히 얼어붙고 바람은 매웠다. 귀가 따갑게 아래 오는 듯하자 아랫도리로 냉기가 찻찰찰 달라붙었다.

상처나 살갗 따위가 찢어지는 듯이 아파  
“아버지, 시장으로 가 봐요.” / 나는 언뜻 간밤의 꿈이 생각났다.

“시장은 왜?”

“혹시 알아요, 노새가 뛰어가다가 시장기가 들어 시장 쪽으로 갔는지.”

나는 말해 놓고도 좀 우스웠지만 아버지도 별 싱거운 녀석 다 보겠다는 듯이 시큰둥한 태도였다. 아버지는 키가 컸다. 그래서 그런지 급히 서둘러도 않고 보통 걸음으로 걷는데도 나는 종종걸음을 쳐야 따라갈 수 있었다. 나는 할 수 없이 한 손을 내밀어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 아버지의 손은 크고 투박하고 나무토막처럼 단단했다.** 끌려가듯 따라가면서도 나는 좀 우스웠다. 이날까지는 이런 일을 생각할 수도 없었다. **㉺ 아버지와 손을 잡고 길을 걷는다는 것은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렇게 지내 왔는데, 오늘 나는 아주 자연스럽게 아버지와 손을 맞잡고 길을 걷고 있다. 좀 우쭐한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런 우리를 부러운 눈초리로 쳐다보지는 않았다.

아버지와 나는 한도 끝도 없이 걸었다. 어느새 거리는 점심때쯤 되었고, 눈발이 비치기 시작했다. 어느 곳을 가나 거리는 사람으로 붐벼 있었고, 그 많은 사람들은 우리 부자더러 어디를 그리 바빠 가느냐고, 노새를 찾아다니느냐고 묻지 않았고,

**행님 16** '꿈'의 역할

'나'는 노새가 자유로운 몸으로 시장을 지나 고속 도로를 달리는 꿈을 꿈.



노새를 찾지 못할 것임을 암시함.

**교과서 날개** '나'의 꿈 이야기를 통해 말하려는 의미는 무엇일까?

**33** '나'가 꿈의 역할로 알맞은 것은?

- ① 행복한 결말을 암시한다.
- ② 인물의 정보를 간접 제시한다.
- ③ 앞으로 전개될 사건의 방향을 암시한다.
- ④ 문제 해결과 갈등 해소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 ⑤ 인물의 운명을 바꿀 만한 새로운 사건이 벌어질 것임을 암시한다.

**행님 17** 비유 표현에 담긴 의미

나무토막처럼 단단한 아버지의 손	가족을 위해 힘든 일을 해 온 아버지의 책임감
쇠사슬을 단 것처럼 무거운 다리	새벽부터 노새를 찾느라 지친 심신
우리가 옛날애기에~나그네 같다고 생각했다.	쉬어 갈 곳도 의지할 곳도 없는 처지

**34** ㉮을 통해 드러내고자 한 것은?

- ① 아버지의 거친 성격
- ② 아버지의 고단한 삶
- ③ 아버지의 건장한 체격
- ④ 아버지의 강인한 정신력
- ⑤ 아버지에 대한 '나'의 존경심

**교과서 날개** 아버지와 손을 맞잡고 걷는 '나'의 기분은 어땠을까?

**35** ㉺에서 알 수 있는 당시의 삶의 모습으로 알맞은 것은?

- ① 가부장적인 사회 분위기였다.
- ② 서구적 가정 문화가 정착되었다.
- ③ 주로 아버지가 아이들을 돌보았다.
- ④ 가족간에 애정 표현이 자연스러웠다.
- ⑤ 부모와 자녀 간의 세대 차이가 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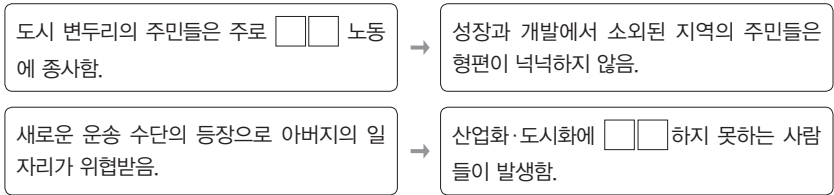
아버지와 나는 아무에게도 노새를 보지 못했느냐고 묻지 않았다. **다리는 쇠사슬을 단 것처럼 무겁고, 배가 고프고 쓰렸다. 나는 그런 우리가 옛날애기에 나오는 길 잃은 나그네 같다고 생각했다.** 길은 멀고 해는 저물었는데 쉬어 갈 곳이라고는 없는 그런 처지 같았다. 아무리 가도 인가는 나타나지 않고, 멀리서 캄박캄박 비치는 불빛도 없었다. 보이느니 거친 산과 들뿐 <sup>사람이 사는 집</sup> 사람이나 노새는 보이지 않았다.

→ 아버지와 '나'가 노새를 찾았으나 노새는 보이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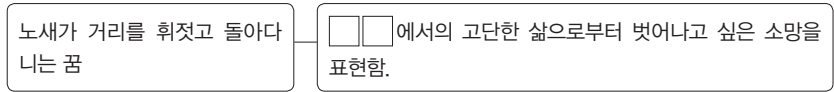
**핵심 속삭**

**위기:** 노새가 소동을 벌이다 달아난 꿈을 꾸 '나'는 아버지와 노새를 찾으러 다님.

• 소설에 나타난 삶의 모습



• 꿈의 역할



**핵심 18**

**더** 아버지와 내가 동물원에 들어간 것은 거의 해가 질 무렵이었다. 어떻게 해서 동물원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나는 잘 기억해 낼 수가 없다. 둘 중의 아무도 동물원에 들어가자고 말한 사람은 없었는데 어쩌서 발길이 이곳으로 돌려졌는지 모른다. 정처 없이 걷다가 마침 닿은 곳이 동물원이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들어왔는지도 모르겠다. 하여튼 나는 희한한 곳엘 다 왔다 싶었다. 내 경우 동물원에 와 본 것은 지금까지 딱 한 번밖에 없었으니까, 그것도 어린이날 무료 공개한다는 바람에 동네 조무래기들과 함께 와 본 것뿐이었다. 그때는 사람들에게 치여 제대로 구경도 못 했는데 <sup>어린이들을 낚아 이르는 말</sup> 지금 나는 구경꾼도 별로 없는 동물원을 더구나 아버지와 함께 오게 되었으니, 참 가다가는 별일도 있는 것이구나 하였다. 남들 눈에는 한가하게 동물원 구경을 온 다정한 부자로 비칠 것이 아닌가. 동물원 안은 조용하고 <sup>보기에 낚아 낚아 부위가 몹시 스산하고 쓸쓸한 데가 있었다.</sup> 을씨년스러웠다. 동물들은 제집에 처박혀 있거나 가느다란 석양이 비치는 곳에 웅크리고 있거나 하였다. 막상 들어온 아버지는 그런 동물들을 별로 눈여겨보지 않았다. 동물들의 우리를 보다가 하늘을 보다가 할 뿐, 눈에 초점이 없었다. 칠면조도 사자도 호랑이도 원숭이도 사슴도 그런 눈으로 건성건성 보고 지나갈 뿐이었다. 그러던 아버지가 잠시 발을 멈춘 곳은 얼룩말이 있는 우리 앞이었다. 얼룩말은 두 마리였다. 아버지는 그러나 그 앞에서도 멍하니 서 있기만 하지 이렇다 할 감정의 표시를 하지 않았다. 나는 그런 아버지를 한 번 쳐다보고, 얼룩말을 한 번 쳐다보고 하였다. **그러다가 아버지의 얼굴이 어찌면 그렇게 말이나 노새와 닮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 꼭 그랬다. 길게 찌진, 감정이 없는 눈이며 노상 별름별름한 코, 하마 같은 입, 그리고 덜렁하니 큰 귀가 그랬다. 아버지가 너무 오래 말이

**핵심 18** 공간적 배경의 기능

**동물원**  
노새와 닮은 아버지를 발견하고 노새와 함께 살아온 아버지의 존재를 깨달음.

**36** '동물원'의 역할에 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 ① '나'가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한다.
- ② '나'가 노새를 만날 희망을 가지게 한다.
- ③ '나'의 경제 형편이 넉넉하지 않음을 드러낸다.
- ④ '나'가 시련을 이겨 내고자 하는 의지를 다지게 한다.
- ⑤ '나'가 노새와 함께 살아온 아버지의 존재를 깨닫게 한다.

**핵심 19** 아버지와 노새의 동일시

그러다가 아버지의 얼굴이 어찌면 그렇게 말이나 노새와 닮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였다.



동물원의 얼룩말 우리 앞에 선 '나'가 아버지의 얼굴과 말을 쳐다보다가 아버지의 얼굴이 새삼 노새와 닮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다. 노새와 아버지가 동일시되는 대상을 알 수 있음.

**교과서 날개** '나'가 아버지를 보며 노새를 떠올린 까닭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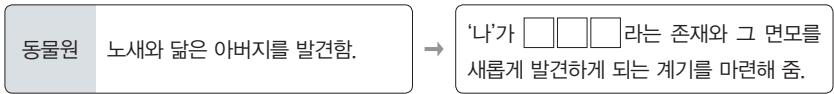
**37** '나'가 아버지를 보며 노새를 떠올린 까닭으로 알맞은 것은?

- ① 아버지가 달아난 노새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 ② 아버지가 노새를 찾느라고 지쳐 보였기 때문에
- ③ 아버지가 노새처럼 고단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 ④ 아버지가 동물 중에 노새를 가장 좋아했기 때문에
- ⑤ 아버지가 노새처럼 갑자기 달아날 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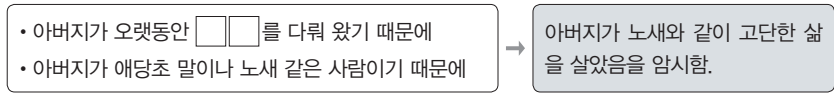
나 노새를 다뤄 와서 그런 건지, 애당초 말이나 노새 같은 사람이어서 그런 짐승과 평생을 같이해 온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막상 얼룩말 앞에 세워 놓은 아버지는 영락없는 말의 형상이었다. → 동물원에서 아버지의 모습이 말의 형상과 닮았다고 생각함.

**핵심 속삭** **절정:** '나'는 아버지가 노새와 닮았다고 생각함.

• 동물원의 역할



• 아버지를 보며 노새를 떠올린 까닭



**리** 동물원을 나왔을 때 이미 거리는 밤이었다. 이번엔 집 쪽으로 걸었다. 그럴 수 밖에 우리는 더 갈 데가 없었던 것이다. 우리 동네가 저만치 보였을 때 아버지는 바로 눈앞에 있는 **대폿집**에서 발을 멈추었다. 힐끗 나를 돌아보고 나서 다짜고짜 나를 술집으로 끌고 들어갔다. 이런 일도 전에는 없던 일이었다. 술집 안에는 사람들이 가득 차서 왁왁 떠들어 대고 있었다. 돼지고기를 굽는 냄새, 찌개 냄새, 김치 분별없이 마구 떠들거나 행동하는 모양 냄새가 집 안에 가득했다. 사람들은 우리를 의아스런 눈초리로 쳐다보았으나 이내 시선을 거두고 자기들의 얘기 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는 들어가자마자 그 냄새들을 힘껏 마셨다. 쓰러질 것 같았다. 아버지는 소주 한 병과 안주를 시키더니 안주는 내 쪽으로 밀어 주고 술만 거푸 마셔 댔다. 아버지는 술이 약한 편이어서 저러다가 어찌나 하고 걱정이 되었다. 있따라거듭

“아버지, 고만 드세요. 몸에 해로워요.” / “응응.”

대답하면서도 아버지는 술잔을 놓지 않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안주를 계속 주워 먹었으므로 어느 정도 시장기를 면한 나는 비로소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이제부터 내가 노새다. 이제부터 내가 노새가 되어야지 별수 있지? 그놈이 도망쳤으니까, 이제 내가 노새가 되는 거지.”



⑦ 기본 좋게 취한 듯한 아버지는 놀라는 나를 보고 히힃 한 번 웃었다. 나는 어쩐지 그런 아버지가 무섭지만은 않았다. 그러면 형들이나 나는 노새 새끼고, 어머니는 암노새고, 할머니는 어미 노새가 되는 것일까? 나도 아버지를 따라 히힃 웃었다. 어른들은 이

**해닝 20** 공간적 배경의 기능

대폿집
노새를 잃은 상실감을 떨쳐 내고 삶의 의지를 다짐.

**38** '대폿집'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아버지가 도망간 노새를 원망하게 된다.
- ② 아버지가 삶의 의지를 잃어버리게 된다.
- ③ 아버지가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기로 마음먹게 된다.
- ④ 아버지가 생계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게 된다.
- ⑤ 아버지가 가장으로서의 짐을 내려놓기로 결심하게 된다.

**39** 아버지가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드러내는 문장을 (리)에서 찾아 3어절로 쓰시오.

**40** ㉠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신이 처한 환경의 변화에 만족하고 있다.
- ② 시대의 흐름을 따르지 못하는 자신의 태도를 반성하고 있다.
- ③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빠르게 바뀌어 가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변화하는 사회를 원망하고 있다.
- ⑤ 자신이 처한 환경에 불만을 가지지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하지 않는다.



래서 술집에 오는 모양이었다. 나는 안주만 집어 먹었는데도 술 취한 사람마냥 턱 없이 즐거웠다. 노새 가족 — 노새 가족은 우리 말고는 이 세상에 또 없을 것이다.

→ 달아난 노새 대신 자신이 노새가 되어 살겠다는 아버지의 다짐

**머**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아버지와 내가 집에 당도했을 때 무참히 깨어지고 말았다. 우리를 본 어머니가 허둥지둥 달려 나와 매달렸다.

“이걸 어찌우, 글썽 경찰서에서 당신을 오래요. 그놈의 노새가 사람을 다치고 가게 물건들을 박살을 냈대요. 이걸 어찌지.”

“노새는 찾았대?”

“찾거나 그러면 괜찮게요? 노새는 온데간데없고 사람들만 다치고 하니까, 누구네 노새가 그랬는지 수소문 끝에 우리 집으로 순경이 찾아왔지 뭐유.”

세상에 떠도는 소문을 두루 찾아 설명.

오늘 낮에 지서에서 나온 사람이 우리 노새가 뛰는 바람에 여기저기서 많은 피해를 입었으니 도로 무슨 법이랴나 하는 법으로 아버지를 잡아넣어야겠다고 이르고 갔다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술이 확 깨는 듯 그 자리에 선 채 한동안 눈만 뒤룩뒤룩 굴리고 서 있더니 흥 하고 코를 풀었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시적시적 문밖으로 걸어 나갔다. 나는 / “아버지.” / 하고 뒤를 따랐으나 아버지는 돌아보지도 않고 어두운 골목길을 나가고 있었다. → 노새가 입힌 피해 때문에 순경이 집을 다녀갔다는 말을 듣고 아버지가 집을 나감.

나는 그 순간 또 한 마리의 노새가 집을 나가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켰다. 그러고는 무엇인가가 뒤통수를 때리는 것을 느꼈다. 아, **㉠** 우리 같은 노새는 어차피 이렇게 비행기가 붕붕거리고, 헬리콥터가 앵앵거리고, 자동차가 빵빵거리고, 자전거가 썹썹거리는 대처에서는 발붙이기 어려운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언젠가 남편이 택시 운전사인 칠수 어머니가 하던 말,

“최소한도 자동차는 굴러야지 지금이 어느 팬데 노새를 부러.”

했다는 말이 생각났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 동안이고 나는 금방 아버지를 쫓았다.

**핵심 22** 또 한 마리의 노새를 찾아 캄캄한 골목길을 마구 뛰었다.

→ 노새가 입힌 피해를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말을 듣고 집을 나가는 아버지

**핵심 속삭**

**결말:** 순경이 왔다 갔다는 말을 듣고 집을 나가는 아버지가 노새처럼 느껴짐.

• 소재의 상징적 의미

□ □  
•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존재  
• 과거의 삶의 방식에 어울리는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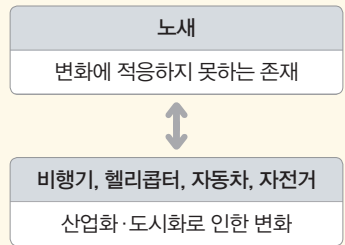
비행기, 헬리콥터, 자동차, 자전거  
• 산업화·도시화된 사회에 적합한 삶의 도구  
• 새로운 삶의 방식에 어울리는 대상

• ‘노새 두 마리’의 의미

노새  
또 한 마리의 노새 = □ □ □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존재

**핵심 21** 소재의 의미



**41** (머)에 쓰인 소재 중 나머지와 성격이 다른 하나는?

- ① 노새                      ② 자전거
- ③ 비행기                  ④ 자동차
- ⑤ 헬리콥터

**핵심 22** ‘노새 두 마리’의 의미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존재

**42** ㉠이 의미하는 것은?

- ① 돈의 노예처럼 사는 사람
- ② 이웃 간 정을 잃어버린 사람
- ③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
- ④ 권력 앞에 맞서지 못하는 사람
- ⑤ 산업화한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

**교과서 날개** ‘나가 칠수 어머니의 말을 떠올린 까닭은 무엇일까?’

**43** 이 작품의 결말을 통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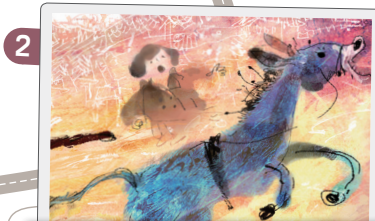
- ① 가족을 위한 아버지의 희생
- ② 서로 도와가며 시련을 극복하는 가족의 사랑
- ③ 이웃에 대한 무관심과 현대인의 물질 만능주의
- ④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의한 계층 간의 갈등
- ⑤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도시 빈민의 힘겨운 삶

**이해와 탐구** 교과서 58~61쪽

**1 이 글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빈칸에 알맞은 말 쓰기**



1 새 동네가 들어서고 아버지는 노새로 연탄을 배달함.



2 아버지와 '나'가 연탄 배달을 하던 중 □□가 도망침.



3 '나'는 □□□와 함께 노새를 찾아 나섬.



4 아버지는 노새가 끼친 피해 때문에 순경이 찾아왔었다는 말을 듣고 □을 나섬.

**2 이 글에 반영된 당시 삶의 모습 알아보기**

(1) 이 글의 시대적 배경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소재 찾아보기

→ 마차, 연탄, □□□□, 슬래브 집, □□□□, 통행금지, 삼륜차, 노새 등

**! 학습 활동 응용**

**01** 이 글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중심 소재는 노새와 아버지이다.
- ② 도시화에 따른 사회적 상황이 드러나 있다.
- ③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
- ④ 1970년대 서울 번두리 동네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 ⑤ 사건의 진행 과정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 서술하고 있다.

**02** 이 글의 중심 사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노새가 달아난 일
- ② 노새가 사람을 공격한 일
- ③ 노새가 '나'와 가족이 된 일
- ④ 노새가 경찰에게 붙잡힌 일
- ⑤ 순경이 '나'의 집으로 찾아온 일

**03** 4에서 짐작할 수 있는 아버지의 심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아쉬움                      ② 후련함
- ③ 책임감                      ④ 절망감
- ⑤ 의아함

**04** 당시 삶의 모습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소재가 아닌 것은?

- ① 마차                          ② 연탄
- ③ 번두리                      ④ 문화 주택
- ⑤ 통행금지

(2) (1)에서 찾은 소재가 구동네와 새 동네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정리하기

구동네		새 동네
• 연탄을 두서너 장, 많아야 이삼십 장씩 사 감.	연탄	• 연탄을 수백 장씩 주문하여 몇 달을 땀.
• 원래부터 있던 허름한 □□□에서 생활함.	집	• 빈터에 새로 들어선 □□□, 2층 슬래브 집에서 생활함.
• 노새를 □□□□□, 싫어하는 내색을 그대로 드러냄.	노새를 대하는 태도	• 노새를 신기하고 귀여운 동물이라고 생각하며 □□을 보임.

(3) 위 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당시 삶의 모습 추측해 보기

- 산업화·도시화로 도시가 급격한 발전을 이루었지만, □□ 격차가 심했다.
-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사람들은 □□ 되기도 했다.

### 3 이 글의 제목이 지닌 의미 생각해 보기

(1) 다음 장면을 중심으로 '노새 두 마리'의 의미 파악하기

“아버지.”

하고 뒤를 따랐으나 아버지는 돌아보지도 않고 어두운 골목길을 나가고 있었다.

나는 그 순간 또 한 마리의 노새가 집을 나가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켰다. 그리고는 무엇인가가 뒤통수를 때리는 것을 느꼈다.

이 글에서 노새 두 마리는 우리 집 노새와 □□□인 것 같아.

05 구동네와 새 동네의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새 동네에는 2층 슬래브 집이 많았다.
- ② 빈터에는 문화 주택이 새로 들어섰다.
- ③ 새 동네 사람들은 연탄을 사용하지 않았다.
- ④ 구동네 사람들은 주로 허름한 판잣집에서 생활했다.
- ⑤ 구동네 사람들은 연탄을 많아야 이삼십 장씩 사 갔다.

06 구동네와 새 동네 사람들이 노새를 대하는 태도로 알맞은 것은?

- ① 새 동네 사람들은 노새를 신기해 했다.
- ② 구동네 사람들은 노새를 친근하게 아껴 주었다.
- ③ 새 동네 사람들은 노새를 지지분 하다고 여겼다.
- ④ 새 동네 사람들은 노새를 노골적으로 싫어했다.
- ⑤ 구동네 사람들은 노새를 갖지 못해서 속상해했다.

07 이 글에 나타난 당시 삶의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제적 불균형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 ② 도시화가 진행되어 사람들이 도시로 몰렸다.
- ③ 빈부 격차가 점차적으로 해소되기 시작했다.
- ④ 산업화가 이루어져서 도시가 급격히 발전했다.
- ⑤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사람들은 소외되기도 했다.

08 이 글의 제목 '노새 두 마리'가 가리키는 대상 두 가지를 쓰시오.

(2) 다음 인물의 말을 바탕으로 하여 '노새'의 의미 말해 보기

언젠가 남편이 택시 운전사인 칠수 어머니가 하던 말,  
 “최소한도 자동차는 굴려야지 지금이 어느 땐데 노새를 부려.”  
 했다는 말이 생각났다.

- 사라져 가는 것                                 → 힘 없고 약한 것  
 → 시대의 변화에 하지 못하는 것

(3) 오늘날 '노새'와 비슷한 것은 무엇일지 찾아보고, 그 까닭 말해 보기

→ 는 과거 외부에서 상대방과 대화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휴대 전화가 있어서 공중전화는 특수한 상황에서 가끔 사용하게 되었다.

**4** 이 글의 주요 장면에 담긴 가치를 생각해 보고, 자신의 삶과 연결 지어 보기

(1) 다음 장면에 담긴 인물의 태도에 관한 자신의 생각 말해 보기

**아버지**

노새나 말이나 요즘은 그놈의 삼륜차 때문에 아버지의 일감이 자칫 줄어들듯하기도 했다. 웬만한 오르막길도 끄떡없이 오르고, 웬만한 골목 안 집까지도 드르륵 들이타치니 아버지의 말 마차가 위협을 느낌 직도 했고, 사실 일감을 빼앗기기도 했다. 그런데도 그때마다 아버지는 큰소리였다.

㉠ “휘발유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서 자동차만 많으면 뭘 해.”

-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지 못하고 만 고집하다가 삶의 형편이 어려워진 것이다.  
 → 시대 변화에 기죽지 않으려는 아버지의 이 엿보인다.

**'나'**

기분 좋게 취한 듯한 아버지는 놀라는 나를 보고 히힝 한 번 웃었다. 나는 어쩐지 그런 아버지가 무섭지만은 않았다. 그러면 형들이나 나는 노새 새끼고, 어머니는 암노새고, 할머니는 어미 노새가 되는 것일까? 나도 아버지를 따라 히힝 웃었다. 어른들은 이어서 술집에 오는 모양이었다. 나는 안주만 집어 먹었는데도 술 취한 사람마냥 퍽없이 즐거웠다. 노새 가족 — 노새 가족은 우리 말고는 이 세상에 또 없을 것이다.

- 을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는 것 같다.

**09** '노새'가 의미하는 바가 아닌 것은?

- ① 사라져 가는 것
- ② 힘 없고 약한 것
- ③ 시대에 뒤쳐지는 것
- ④ 발전을 위해 없어져야 하는 것
- ⑤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

**10** 이 글의 '노새'와 성격이 다른 것은?

- ① 요강
- ② 밧돌
- ③ 휴대 전화
- ④ 필름 카메라
- ⑤ 카세트테이프

**11** ㉠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다.
- ②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노새만 고집하고 있다.
- ③ 노새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④ 노새로 연탄을 배달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 ⑤ 삶은 어려웠지만 자신의 주관대로 깨끗하게 살아가고자 한다.

**12** ㉡에 나타난 '나'의 모습을 바르게 이해한 것은?

- ① 아버지를 본받으려는 자세가 기록하네.
- ② 어렵고 힘든 생활을 불평하는 것이 이해가 돼.
- ③ 가족을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대견하게 느껴져.
- ④ 무능력한 아버지를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안타까워.
- ⑤ 노새 때문에 친구들에게 놀림받는 것이 싫었을 거야.

문제 해결과 적용

교과서 62~65쪽

1 조선 시대에 지은 <훈민가>의 일부를 감상하고 작품에 담긴 삶의 모습을 오늘날의 삶에 비추어 보기

아버이 사라실 제 섬길 일란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답다 어찌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제4수  
 → 부모님에 대한 효행의 실천 강조

오늘도 다 새거다 호미 메고 가자스라  
 내 눈 다 매거든 네 눈 좀 매어 주마  
 오는 길에 뽕 따다가 누에 먹여 보자스라  
 -제13수  
 → 근면한 농사일과 상부상조의 강조

이고 진 저 늙은이 짐 풀어 나를 주오  
 나는 젊었거니 돌이라 무거울까  
 늙기도 설워라거든 짐을 조차 지실까  
 -제16수  
 → 노인에 대한 공경 강조  
 - 정철, <훈민가>에서

● 고쳐: 다시.  
 ● 가자스라: 가지꾸나. '-자스라'는 '-자꾸나'의 옛말임.  
 ● 보자스라: 보자꾸나.

(1) 이 시조의 각 수에서 작가가 권유하고 있는 행동 정리하기

제4수: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잘 섬겨야 한다.

제13수: 날이 새면 □□를 메고 나가서, 내 눈을 매면 다른 사람의 □□도 매어 준다.

제16수: □□의 짐을 들어 준다.

(2) 이 시조의 각 수에서 작가가 추구하는 가치 파악하기

제4수: 효도

제13수: □□, 상부상조

제16수: 노인 □□

13 이 시조에 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 ① 어려운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다.
- ② 사회 비판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 ③ 기본적으로 불교 사상이 깔려 있다.
- ④ 백성의 눈높이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하고 있다.
- ⑤ 독자가 고민해 볼 수 있도록 의문 형으로 끝맺고 있다.

14 '제4수'를 읽고 깨달을 수 있는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 ① 평소에 돈을 아껴 써야겠다.
- ② 어른께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겠다.
- ③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 섬겨야겠다.
- ④ 남의 불행을 모른 척하지 말아야겠다.
- ⑤ 이웃과 콩 한 쪽이라도 나누어 먹어야겠다.

15 '제13수'에서 권유하는 행동과 어울리는 사자성어는?

- ① 아전인수(我田引水)
- ② 상부상조(相扶相助)
- ③ 과유불급(過猶不及)
- ④ 주경야독(晝耕夜讀)
- ⑤ 오비이락(鳥飛梨落)

16 '제16수'에서 작가가 추구하는 가치로 알맞은 것은?

- ① 효도
- ② 근면
- ③ 경로
- ④ 절약
- ⑤ 양보



**2** 소록도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보살핀 마리안느와 마거릿의 삶을 다룬 영상을 감상하며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 생각해 보기

1 1960년대에 소록도를 찾은 오스트리아 간호사, 마리안느와 마거릿.

2 들꽃 같은 한센인들의 상처와 깊은 아픔을 아무만인 두 사람.

3 작은 사슴을 닮았다고 하여 소록도라 불리는 아름다운 섬. 하지만 이 작은 섬은 세상 사람들이 짐작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간직하고 있다.

4 강제 수용된 한센인들은 성치 않은 몸으로 종노동에 시달렸고, (종락) 가족들에게조차 버림받은 한센인들은 병이 나아도 돌아갈 곳이 없었다.

5 1960년대 당시엔 천연의 공포가 매우 컸다. (종락) 보육원에 아이들을 맡긴 뒤 이렇게 멀리 떨어져 눈으로만 혈육을 만나야 했다.

6 마리안느는 가까이 한센인 자녀들의 염마가 되어 주었다.

7 2005년까지 오랜 시간 소록도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살아온 마리안느와 마거릿.

8 자신들은 특별히 한 것이 없다며 아무도 모르게 편지 한 장만을 남기고 그렇게 떠났다.

9 "사랑하는 친구, 은인에게 .....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거릿, 마리안느"

(1) 당시 한센병 환자들이 처한 상황 정리하기

- 라는 섬에 강제로 수용되어 적절한  나 보호를 받지 못했다.
- 들에게도 버림을 받았다.
- 에 아이를 맡겨야 했고, 만날 때도 멀리 떨어져서 눈으로만 봐야 했다.

(2) (1)과 같은 상황에서 마리안느와 마거릿이 한센병 환자들을 보살핀 까닭 말해 보기

- 한센병 환자들은  과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 그들에게  을 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17** 1960년대의 한센병 환자들이 처한 상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족들에게도 버림받았다.
- ② 소록도에 강제 수용되었다.
- ③ 보육원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살았다.
- ④ 적절한 보호나 치료를 받지 못했다.
- ⑤ 아이를 직접 만나지 못하고 멀리서 눈으로만 봐야 했다.

**18** 마리안느와 마거릿이 한센병 환자들을 보살핀 까닭으로 알맞은 것은?

- ① 국가의 임무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 ② 평소 소록도로 여행을 가고 싶었기 때문에
- ③ 고국에서는 간호사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 ④ 한센병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기 때문에
- ⑤ 한센병 환자들이 마리안느와 마거릿을 선택했기 때문에

**19** 마리안느와 마거릿의 삶이 현대인에게 주는 가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저소득층을 위한 마음
- ② 대가 없는 봉사과 헌신
- ③ 주어진 일에 감사하는 자세
- ④ 끈기와 인내를 잃지 않는 태도
- ⑤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자세

**20** 이 영상 속의 인물에 대한 감상으로 알맞은 것은?

- ① 지은: 나의 어려움도 누군가가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
- ② 주현: 나도 봉사 시간을 늘려서 대학 진학에 참고해야지.
- ③ 미진: 요즘은 국가 차원의 지원이 잘 이루어져서 공감 안 돼.
- ④ 강준: 의료 수준이 높아진 현대 사회와는 동떨어진 이야기야.
- ⑤ 서연: 나도 내 주변의 어려운 사람에게 작은 도움이 되고 싶어.



# ▶ 노새 두 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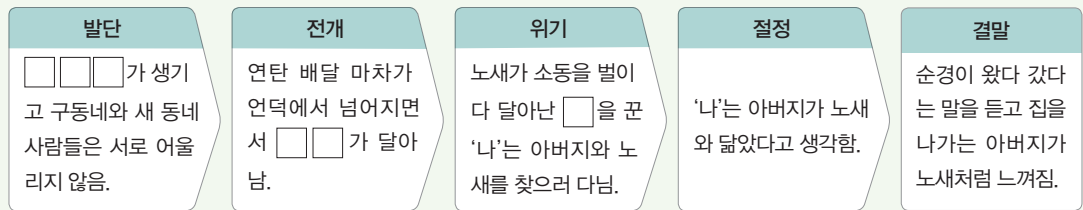
★ 바른답·알찬풀이 6쪽

## 수록 글 **한눈에** 쏙!

### 글의 개관

갈래	현대 소설, 단편 소설	성격	사실적, 상징적
배경	1970년대 겨울, 서울 □□□ 동네	주제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는 도시 빈민의 고단한 삶
특징	① '나'라는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아버지의 삶을 객관화하여 보여 줌. ② '노새'라는 소재를 통해 대도시에 적응하지 못한 □□□의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 줌.		

### 글의 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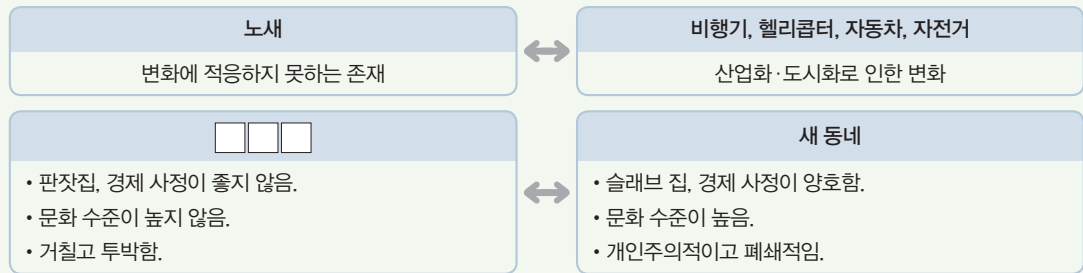


## 학습 내용 **핵심** 꼭!

### '노새'의 상징적 의미

무거운 짐을 지고 언덕을 올라가는 노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되었지만 가장의 책임을 다하려는 □□□</li> <li>• 힘겹고 고단하게 살아가는 이 시대의 아버지</li> </ul>
노새 두 마리 (우리 집 노새, 아버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화·도시화된 세상에서 뒤처진 존재</li> <li>• 시대의 □□□에 적응하지 못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존재</li> </ul>

### 소재의 대립적 의미



### 작품에 담긴 가치

새롭게 평가할 수 있는 가치	시대의 변화나 주변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이 선택한 길을 묵묵히 가는 □□□ 삶의 자세
오늘날에도 변하지 않는 가치	가족을 위하고 사랑하며 책임을 다하려는 태도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우리 동네는 변두리였으므로 얼마 전까지도 모두 그 날그날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 ㉠연탄 배달도 일거리가 그리 많지 않았다. 기껏해야 구멍가게에서 두서너 장을 사서는 새끼줄에 대롱대롱 매달고 가는 게 고작이었다. 그랬는데 이삼 년 전부터 아직도 많은 빈터에 집터가 다져지고, 하나둘 문화 주택이 들어서더니 이제는 제법 그럴듯한 동네 꼴이 잡혀 갔다. 원래부터 있던 허름한 집들과 새로 생긴 집들과는 골목 하나를 경계로 하여 금을 굵듯 나누어져 있었는데, 먼 데서 보면 제법 그럴싸한 동네로 보였다. 일단 들어와 보면 저저분한 험 동네가 이웃에 널려 있지만, 그냥 먼발치로만 보면 2층 ㉡슬래브 집들에 가려 딱지딱지 붙은 ㉢판잣집 등속이 보이지 않았으므로 서울의 변두리에 흔한 여느 신촌 부락으로만 보였다.

나 동네가 이렇게 바뀌자 그것을 가장 좋아한 사람 중의 하나가 아버지였다. 아까 말한 대로 그전에는 동네 사람들이 연탄을 두서너 장, 많아야 이삼십 장씩만 사 가는 터여서 아버지의 일거리가 적고, 따라서 이곳에서 이삼 킬로나 떨어진 판 동네까지 배달을 가야 했는데 동네에 새 집이 많이 들어서면서부터는 그렇게 먼 걸음을 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집에서 연탄을 한 번 들여놓았다 하면 몇 달씩 때니까 자주 주문을 하지 않아서 아버지의 일감이 이 동네에서 끝나는 것만은 아니고, 여전히 판 동네까지 ㉣노새 마차를 몰기는 했지만 그전보다는 자주 먼 곳까지 가지 않아도 된 것만은 사실이였다.

다 새 동네(우리는 우리가 그전부터 살던 동네를 구동네, 문화 주택들이 차지하고 들어선 동네를 새 동네라 불렀다.)가 생기면서 좋아한 것은 비단 아버지만은 아니었다. 구동네에 두 곳 있던 구멍가게 주인들도 은근히 무언가를 기대하는 눈치였다. 그전까지는 가게의 물건들이 뽕얇게 먼지를 쓰고 있었고, 두 홉짜리 소주병만 욱실하게 많았는데 그 병들 사이에 차츰 환타니 미린다니 하는 음료수병들이며 퍼머스트 아이스크림도 섞이고, 할머니의 주름살처럼 주름이 짙 짙 가 말라비틀어진 사과 사이에 ㉤굴상자도 끼이게 되었다.

• 학습 활동 용량

01 이 글에 반영된 당시의 삶의 모습으로 알맞은 것은?

- ① 빈터가 없을 정도로 건물이 뻥뻥하게 들어섰다.
- ② 노새가 끄는 마차로 연탄을 배달하는 일이 흔했다.
- ③ 판잣집이 험린 자리에 문화 주택이 들어서고 있었다.
- ④ 서울 변두리 지역이 새로운 모습으로 개발되고 있었다.
- ⑤ 판잣집에 살던 사람들이 문화 주택에 입주하게 되었다.

02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 ① 구동네와 새 동네 사이에는 경계가 딱히 없었다.
- ② 아버지는 새 동네가 들어선 것을 달갑지 않게 생각했다.
- ③ 구동네 사람들은 새 동네가 생긴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 ④ 새 동네가 생기자 구동네 사람들의 일감이 줄어들게 되었다.
- ⑤ 새 동네가 생기자 구멍가게 주인들은 새로운 상품을 들여놓았다.

• 학습 활동 용량

03 이 글에서 시대 상황을 알 수 있는 소재가 아닌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04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아 쓰시오.

보기  
구동네와 새 동네 사이의 경제 수준 및 문화의 차이와 소통의 단절감을 드러낸다.



[05~0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비단 연탄 배달을 간 집에서만이 아니라 이 근처의 길을 가던 사람들도, 우리 노새를 힐끗 쳐다본 순간 분명히 다소 놀라는 기색으로 다시 한번 거들떠보곤 했다. 대야를 옆에 끼고 불이 빨갭게 익은 채 목욕 갔다 오던 아주머니도 부드러운 눈길로 노새를 바라보고, 다정하게 나들이를 가려고 막 대문을 나서던 내외분도 우리 노새가 짹짹 지나가면 ‘고것…….’ 하는 표정으로 한동안 지켜보고, 파 한 단 사 가지고 잔걸음으로 쭈뼛거리고 가던 식모아가씨도 잠시 발을 멈추고 노새를 바라보았다.

**나** 나는 사실 새 동네 아이들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다. 개네들은 집 안에서 무얼 하는지 도무지 밖에 나오는 일도 드물었는데, 나온다 해도 저희네끼리만 어울리지 우리 구동네 아이들을 붙여 주지 않았다. 처음부터 우리가 개네들더러 끼워 달라고 한 일은 없으니까 붙여 주고 안 붙여 주고 할 것은 없었는데, 보면 알지 돌아가는 꼴이 그런 처지가 못 되었다. 우리 구동네 아이들이야 학교 가는 시간을 빼고는 내내 밖에서만 노는데, 놀아도 여간 시망스럽게 놀지 않았다. 걸핏하면 싸움질이요, 걸핏하면 욕질이었다. 말썽은 어찌 그리도 잘 부리는지 아이들 싸움이 커진 어른 싸움도 끊일 날이 없었다.

**다** 그렇다고 새 동네 아이들이 텃세를 부리지도 않았다. 그들은 저희끼리 놀다가도 우리들이 내려가면 하나둘씩 슬며시 자기네 집으로 들어갔다. 그런 아이들이었으므로 나는 평소에 데면데면하게 대했는데 이들이 우리 노새를 보고 놀라거나 칭찬할 때만은 어쩐지 그들이 좋았다. 거기 비해서 ㉠우리 동네 아이들은 노새만 보면 엉덩이를 툭 치거나, 꼬챙이 같은 걸로 건드리고 머리를 쓰다듬는 척하면서 콧잔등을 한 대씩 쥐어박고 하기가 일쑤였다. 평소에 말수가 적고 화내는 일이 드문 아버지도 이런 때는 눈에 불을 켜고 개구쟁이들을 내몰았다.

“이 때갈 놈의 새끼들, 노새가 밥 달라든, 옷 달라든? 왜 지랄들이야!”

05 이 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 ② 소재의 의미를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 ③ 인물들의 태도를 대비하여 드러내고 있다.
- ④ 사건이 일어날 공간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 무엇인지 알려 주고 있다.

06 새 동네 사람들이 노새를 대하는 태도로 알맞은 것은?

- ① 부드러운 눈길로 노새를 바라보았다.
- ② 신기한 마음에 노새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 ③ 노새가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게 경계했다.
- ④ 노새가 골목을 지저분하게 한다며 못마땅하게 여겼다.
- ⑤ 노새가 가난하고 힘든 삶을 잊게 해 주는 존재라고 여겼다.

07 구동네와 새 동네 아이들에 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 ① 새 동네 아이들은 텃세를 심하게 부렸다.
- ② 새 동네 아이들은 저희들끼리 어울리려고 했다.
- ③ 새 동네 아이들은 거칠고 투박한 모습을 보였다.
- ④ 새 동네 아이들은 구동네 아이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 했다.
- ⑤ 새 동네 아이들은 자격지심 때문에 구동네 아이들과 어울리지 않았다.

서술형

08 구동네 아이들이 ㉠과 같이 행동하는 까닭을 <조건>에 맞게 서술하십시오.

조건

- 새 동네 아이들과 대조하여 구동네 아이들에게 노새가 갖는 의미를 중심으로 쓸 것

**[09~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우리 집에 노새가 들어온 것은 이 년 전이었다. 그 전까지는 말을 부렸는데 누군가가 노새와 바꾸지 않겠느냐고 제의해 왔다. 싫으면 옷돈을 조금 얹어 주고라도 바꾸어 주겠다는 것이었다. 한 삼 년 가까이 그 말을 부려 온 아버지는 막상 놓기가 싫은 모양이었으나 그 말이 눈이 자주 짓무르고, 뒷다리 복사뼈 근처에 늘 상처가 가시지 않는 등 잔병치레가 잦은 터라, 두 번째 말을 걸어왔을 때 그러자고 응낙해 버렸다. 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큰형은 그래도 말이 낫지 그까짓 노새가 무슨 힘을 쓰겠느냐고, 바꾸지 말자고 했으나 노새를 한 번 보고 온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길로 노새와 말을 맞바꾸었다.

**나** 바로 어저께도 그랬다. 새 동네의 두 집에서 이백 장씩 갖다 달라고 해서 아버지는 연탄 사백 장을 싣고 새 동네로 들어가는 그 가파른 골목길을 들어서고 있었다. 애기의 앞뒤가 조금 뒤바뀌었지만, 우리 아버지는 연탄 가게의 주인이 아니고 큰길가에 있는 연탄 공장에서 배달 일만 맡고 있다. 그러므로 연탄 공장의 배달 주임이 어느 동네 어느 집에 몇 장을 날라다 주라고 하면, 그만한 양의 탄을 실어다 주고 거기 따르는 구전만 받으면 그만이었다. 그런데 한 가지 자랑스러운 일은 아버지는 아무리 찾기 힘든 집이라도 척척 알아낸다는 것이다.

**다** 노새는 눈을 뒤집어 까다시피 하면서 바둑바둑 악을 써 댔으나 판은 이미 그른 판이었다. 그때였다. 노새가 발에서 잠깐 힘을 빼는가 싶더니 마차가 아래쪽으로 와르르 흘러내렸다. 뒤미처 노새가 고꾸라지고 연탄 더미가 데구루루 무너졌다. 아버지는 밀려 내려가는 마차를 따라 몇 발짝 뒷걸음질을 치다가 홀랑 물구나무서는 꼴로 나자빠졌다. 나는 얼른 한옆으로 비켜섰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러나 정작 일은 그다음에 벌어지고 말았다. 허우적거리며 마차에 질질 끌려가던 노새가 마차가 내박쳐진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냅다 뛰기 시작한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벌떡 일어섰다가 순간적으

로 아버지와 내가 있는 쪽을 힐끔 쳐다보고는 이내 뛰어 버린 것이다. 마차가 넘어지면서 무엇이 부러져 몸이 자유롭게 된 모양이었다.

**09** 이 글에서 사건을 전개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 ① '나'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 서술된다.
- ② 사건이 진행되는 순서에 따라 서술된다.
- ③ 연탄을 배달하는 공간에 따라 서술된다.
- ④ 현재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방식으로 서술된다.
- ⑤ 사건을 바라보는 '나'의 가족들의 각자 입장에서 서술된다.

**10** (나)에서 알 수 있는 아버지에 대한 '나'의 태도로 알맞은 것은?

- ① 자랑스러워함.
- ② 무섭고 어려워함.
- ③ 괴팍하다고 여김.
- ④ 창피하고 부끄러워함.
- ⑤ 말이 없어서 답답해함.

서술형

**11** (다)의 중심 사건을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조건

- '~가 ~(하)면서 ~가 ~(하)는 사건'의 형식으로 쓸 것
- 25자 내외로 쓸 것

서술형

학습 활동 응용

**12** (다)를 읽고 짐작할 수 있는 <보기>의 상징적 의미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보기

무거운 짐을 지고 언덕을 올라가는 노새



[13~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금세 이 집 저 집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서 골목은 어느 사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웅성대기 시작했다.

“왜 그래,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말이 도망갔다니 봐, 말이 도망갔다니 봐.”

“무슨 말이, 무슨 말이.”

“저기 뛰어가지 않아.”

“얼라, 얼라, 그렇군. 말이 뛰어가느군.”

“별꼴이야, 말 마차가 지금도 있었군.”

이런 웅성거림 속을 아버지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뿔박질 쳐 갔다.

나 드디어 아버지는 큰길로 나오자 털썩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노새는 이제 보이지 않았지만 나는 노새보다도 아버지의 일이 더 큰일일 것 같아서, 뛰던 것을 멈추고 아버지의 손을 잡고 끌어 일으키려고 했다. 한데 아버지는 쉽게 일어나지를 못했다. 아버지의 눈은 더할 수 없는 실망과 깊은 낭패로 가득 차, 나는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슬며시 고개를 돌리다가 이내 축 처지고 말았다. 얼굴 근육이 실룩거리는 것이 옆얼굴에도 보였다. 불현듯 슬픔이 복받쳐 내 눈도 깜빡거렸으나 나는 그것을 억지로 참고 계속해서 아버지의 팔목을 이끌었다.

“아버지, 여기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해요. 노새를 찾아야지요.”

㉠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부자의 이런 모습을 구경거리나 되는 듯이 잠깐잠깐 쳐다보았다.

다 “아버지, 이렇게 하면 어때요. 둘이 같이 다닐 게 아니라 따로따로 헤어져서 찾아보도록 해요. 내가 이쪽 길로 갈 테니깐 아버지는 저쪽 길로 가세요. 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나오는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다.

아버지와 헤어진 나는 사뭇 뛰었다. 사람들은 거리에 가득 넘쳐 있었다. 크고 작은 자동차는 뽕뽕거리면서 씩씩 달려가고 달려오고 하였다. 5층 건물, 3층 건물이 즐비한 거리는 언제나처럼 분주했다. ㉡ 아무도 나를 붙잡고 왜 뛰느냐고, 노새를 찾아 나선 길인냐고 묻지 않았다.

아무도 내가 찾는 노새가 방금 저쪽으로 뛰어갔다고 걱정 말라고 일러 주지 않았다. 나는 이 사람에게 툭 부딪치고, 저 사람에게 탁 부딪치면서 사뭇 뛰었다.

13 (가)에서 노새가 도망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의 반응으로 알맞은 것은?

- ①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을 알고 나서지 않았다.
- ② 남의 일이라 그저 바라보기만 하면서 웅성거렸다.
- ③ 도와주고 싶었지만 노새가 무서워서 다가가지 못했다.
- ④ 평소에 노새를 불쌍하게 여겼기에 도망가기를 바랐다.
- ⑤ 노새가 소동을 일으키자 노새를 놓친 아버지를 비난했다.

14 (나)~(다)에 나타난 ‘나’에 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 ① 무능력한 아버지를 질책하고 있다.
- ② 노새의 평소 이동 경로를 잘 알고 있다.
- ③ 힘없이 주저앉은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다.
- ④ 아버지보다 동네 지리를 잘 파악하고 있다.
- ⑤ 슬퍼하는 아버지를 위해 일부러 꾀꾀하게 행동하고 있다.

서술형

15 (나)에 나타난 아버지의 심정을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조건

- 아버지에게 갖는 노새의 의미를 밝힐 것
- 심정을 느끼게 된 까닭을 밝혀 ‘아버지는 ~ 때문에 ~을/를 느꼈다.’의 형식으로 쓸 것

서술형

16 ㉠, ㉡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태도를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조건

- 완결된 한 문장으로 쓸 것

**[17~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언뜻 내가 왜 이렇게 쏘다니고 있을까, 노새가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왜 이렇게 방황해야만 하는가 하는 생각이 없지도 않았으나 그런 마음에 앞서 내 눈은 부산하게 거리의 구석구석을 살피고 있었다. 그리고 보면 나는 그동안 우리 노새와 깊이 정이 들어 있었는지도 몰랐다. 자다가도 바로 옆 마구간에서 노새가 투레질하는 소리, 발을 들었다 놓았다 하는 소리를 들으면 왠지 마음이 놓였고, 길에서 놀다가도 저만치서 아버지에게 끌려오는 노새가 보이면 후딱 달려가 그 **㉠** 시커먼 엉덩이를 한번 두들겨 주기도 했다. 그러면 저도 나를 알아보는지 그 큰 눈을 한번 크게 치떴다가 내리곤 했다.

**나** 하지만 저희네들 아버지는 별것이었던가. 영길이네 아버지는 **㉡** 조그마한 기계와 연탄불을 피워 가지고 다니면서 뽕 소리와 함께 생쌀을 납작하게 눌러 튀겨 내는 장사를 하고 있었고, 종달이네 형님은 **㉢** 번데기 장수였다. 순철이네 아버지는 시장 경비원이었고, 귀달네 아버지는 **㉣** 포장마차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영길이더러 ‘뽕’, 종달이더러는 ‘뽀’이라는 별명을 붙여 주었으며, 순철이, 귀달이도 모두 하나씩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 까마귀 새끼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고 별로 억울할 것도 없었다.

**다** 노새나 말이나 요즘은 그놈의 삼륜차 때문에 아버지의 일감이 자칫 줄어들어 드는 듯하기도 했다. 웬만한 오르막길도 끄떡없이 오르고, 웬만한 골목 안 집까지도 드르륵 들이닥치니 아버지의 말 마차가 위협을 느낌 직도 했고, 사실 일감을 빼앗기기도 했다. 그런데도 그때마다 아버지는 큰소리였다.

**㉠** “휘발유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서 자동차만 많으면 뭘 해.”

마치 애국자처럼 말하는 것이었으나 나는 아버지의 그 말 뒤에 숨은 오기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너무 고단해서였을까, 이날 밤 나는 앞뒤를 가릴 수 없을 만큼 깊이 잠에 빠졌던 것 같다.

**17** (가)로 미루어 볼 때, ‘나’에게 노새가 지니는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식구같이 정이 든 존재
- ② 멀리서도 보면 반가운 존재
- ③ 다른 아이들에게 감추고 싶은 존재
- ④ 서로 알아보며 친근하게 지내는 존재
- ⑤ 자면서도 함께 있는 소리에 안심하는 존재

**18**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소재를 (다)에서 찾아 쓰시오.

보기  
산업화된 도시에 등장한 새로운 문물로, 아버지의 ‘노새’와 대비된다.

**19** ㉠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아버지의 속마음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대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어서 정신이 없다.
- ② 삼륜차로 연탄을 배달하면 먼 동네까지 갈 수 있다.
- ③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자동차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 ④ 평생 해 온 마부 일이 중요한 일이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 ⑤ 도시는 자동차가 많아 답답하니까 한적한 시골로 돌아가야겠다.

**20** ㉠~㉤ 중 ‘나’의 아버지의 직업과 관련 있는 표현끼리 바르게 묶은 것은?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 ⑤ ㉢, ㉣, ㉤



[21~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서울 장안이 온통 야단이 난 모양이었다. 군데군데 무전차가 동원되어 자기네끼리 노새의 방향에 대해서 연락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노새는 미리 그것을 알고라도 있는 듯 용케도 경비가 허술한 길만을 찾아 잘도 달려갔다. ㉠모가지는 물론, 갈기며 어깻죽지, 그리고 등허리에 땀이 비 오듯 해서 네 다리에 물이 주르르 흐르고 있었다. 검은 물이. 노새는 벌써 한강 다리를 건너고 있었다. 노새는 얼핏 좌우로 한강 물을 훑어보더니 여전히 뛰어가면서도 길게 심호흡을 하였다. 다리를 건너고 얼마를 가자 길이 넓어지고 앞이 특 트였다. 고속 도로였다.

나 여느 날보다 다소 늦게 일어난 나는 간밤의 꿈으로 하여 어쩐지 마음이 헛헛했다. 꿈 그대로라면 우리는 다시는 그 노새를 찾지 못할 것이 아닌가. 꿈대로라면 우리 노새는 고속 도로를 따라 멀리멀리 달아나서 우리가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곳, 상상도 할 수 없는 곳에 가서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를 버리고 간 노새, 그는 ㉡매일매일 그 무거운, 그 시커먼 연탄을 끄는 일이 지겹고 지겨워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자기의 보금자리를 찾아 영 떠나가 버렸는가. ㉢아버지와 내가 집을 나선 것은 사람들이 아직 출근하기도 전인 이른 새벽이었다. 큰길로 나오자 두 사람은 막상 어느 쪽부터 뒤져야 할지 막연하기만 했다. 둘 중 아무도 말을 꺼내지는 않았으나 부자는 잠깐 주춤하다가 동네와는 딴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다. 새벽이라 그런지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데 날씨가 몹시도 찻다. ㉣길은 단단히 얼어붙고 바람은 매웠다. 귀가 따갑게 아려 오는 듯하자 아랫도리로 냉기가 찻찻찰찰 달라붙었다.

다 아버지는 키가 컸다. 그래서 그런지 급히 서둘지도 않고 보통 걸음으로 걷는데도 나는 종종걸음을 쳐야 따라갈 수 있었다. 나는 할 수 없이 한 손을 내밀어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의 손은 크고 투박하고 나무토막처럼 단단했다. 끌려가듯 따라가면서도 나는 좀 우스웠다. 이날까지는 이런 일을 생각할 수도 없었다. 아버지와 손을 잡고 길을 걷는다는 것은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렇게 지내 왔는데, 오늘 나는 아주 자연스럽게 아버지와 손을 맞잡고 길을 걷고 있다. 좀 우쭐한 생각이 들었다.

21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아버지와 ‘나’는 새벽부터 노새를 찾아다녔다.
- ② ‘나’는 노새가 경찰에게 붙잡힐까 봐 불안해했다.
- ③ 꿈속에서 노새는 한강 다리를 건너 고속 도로를 질주했다.
- ④ 아버지와 ‘나’는 노새가 어디로 갔을지 전혀 짐작하지 못했다.
- ⑤ ‘나’는 아버지와 손을 잡고 걸으면서 우습고 우쭐한 기분을 느꼈다.

22 ‘나’의 꿈 이야기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로 알맞은 것은?

- ①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는 가르침
- ② 결국 노새를 찾게 될 거라는 믿음
- ③ 인연이면 다시 만나게 되는 삶의 이치
- ④ 언젠가는 노새와 만나게 될 거라는 희망
- ⑤ 현실에서도 노새를 찾을 수 없을 거라는 암시

23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소재를 (가)에서 찾아 쓰시오.

보기  
앞이 탁 트이고 넓어진 길을 의미하며,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노새가 갔음을 드러낸다.

24 ㉠~㉤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노새의 몸에서 흐르는 ‘검은 물’은 고된 삶을 상징한다.
- ② ㉡: ‘나’는 노새가 연탄을 끄는 일이 힘들어서 달아났다고 생각한다.
- ③ ㉢: ‘나’와 아버지는 노새를 꼭 찾고 싶은 마음에 일찍 집을 나섰다.
- ④ ㉣: 추운 날씨는 노새를 찾는 일이 쉽지 않음을 암시한다.
- ⑤ ㉤: 아버지의 고집스러운 성격을 드러낸다.



**[25~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아버지와 내가 동물원에 들어간 것은 거의 해가 질 무렵이었다. (중략) 그러던 아버지가 잠시 발을 멈춘 곳은 얼룩말이 있는 우리 앞이었다. 얼룩말은 두 마리였다. 아버지는 그러나 그 앞에서도 멍하니 서 있기만 하지 이렇다 할 감정의 표시를 하지 않았다. 나는 그런 아버지를 한번 쳐다보고, 얼룩말을 한 번 쳐다보고 하였다. 그러다가 아버지의 얼굴이 어찌면 그렇게 말이나 노새와 닮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 꼭 그랬다. 길게 찌진, 감정이 없는 눈이며 노상 별름별름한 코, 하마 같은 입, 그리고 텅텅하니 큰 귀가 그랬다. 아버지가 너무 오래 말이나 노새를 다뤄 와서 그런 건지, 애당초 말이나 노새 같은 사람이어서 그런 짐승과 평생을 같이해 온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막상 얼룩말 앞에 세워 놓은 아버지는 영락없는 말의 형상이었다.

나 우리 동네가 저만치 보였을 때 아버지는 바로 눈앞에 있는 대포집에서 발을 멈추었다. 힐끗 나를 돌아보고 나서 다짜고짜 나를 술집으로 끌고 들어갔다. (중략) 얼마나 지났을까. 안주를 계속 주워 먹었으므로 어느 정도 시장을 면한 나는 비로소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이제부터 내가 노새다. 이제부터 내가 노새가 되어야지 별수 있지? 그놈이 도망쳤으니까, 이제 내가 노새가 되는 거지.”

기분 좋게 취한 듯한 아버지는 놀라는 나를 보고 히히한 번 웃었다.

다 나는 그 순간 또 한 마리의 노새가 집을 나가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켰다. 그리고는 무엇인가가 뒤통수를 때리는 것을 느꼈다. 아, 우리 같은 노새는 어차피 이렇게 비행기가 붕붕거리고, 헬리콥터가 앵앵거리고, 자동차가 빵빵거리고, 자전거가 썹썹거리는 대처에서는 발붙이기 어려운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언젠가 남편이 택시 운전사인 칠수 어머니가 하던 말,

㉡“최소한도 자동차는 굴러야지 지금이 어느 땐데 노새를 부려.”

했다는 말이 생각났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 동안이고 나는 금방 아버지를 쫓았다. ㉢또 한 마리의 노새를 찾아 캄캄한 골목길을 마구 뛰었다.

**25** <보기>에서 설명하는 공간적 배경으로 알맞은 것은?

- 보기 -

노새와 닮은 아버지를 발견하고 노새와 함께 살아 온 아버지의 존재를 깨닫게 되는 장소이다.

- ① 대처
- ② 동물원
- ③ 대포집
- ④ 골목길
- ⑤ 우리 동네

**26** ㉠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새로운 노새를 마련하겠다.
- ② 노새를 끝까지 찾고 말겠다.
- ③ 이제 삼륜차로 배달할 것이다.
- ④ 모든 일을 잊고 새로 시작하겠다.
- ⑤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끝까지 책임지겠다.

**27** '나'가 ㉡을 떠올린 까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우리 노새를 무시한 아주머니가 야속해서
- ② 도시를 떠나 시골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 ③ 노새가 가장 유용한 운송 수단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 ④ 도시의 삶에 적응하며 사는 것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 ⑤ '나'도 아버지가 자동차를 타고 다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28** ㉢이 의미하는 바를 한 단어로 쓰시오.



[01~05]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어린 매화나무는 꽃 피느라 한창이고  
 사백 년 고목은 꽃 지느라 한창인데  
 구경꾼들 고목에 더 몰려섰다  
 둥치도 가지도 꺾이고 구부러지고 휘어졌다  
 갈라지고 뒤틀리고 터지고 또 튀어나왔다  
 진물은 얼마나 오래 고여 흐르다가 말라붙었는지  
 주먹만큼 굵다란 흑이며 패인 구멍들이 험상궂다  
 거무죽죽한 흑도 구멍도 모양 굽기 깊이 빛깔이 다 다르다  
 새 진물이 번지는가 개미들 바빠 오르내려도  
 의연하고 의젓하다  
 사군자 중 으뜸답다  
 꽃구경이 아니라 상처 구경이다  
 상처 깊은 이들에게는 훈장(勳章)으로 보이는가  
 상처 도지는 이들에게는 부적(符籙)으로 보이는가  
 백 년 못 된 사람이 매화 사백 년의 상처를 헤아리라마는  
 감탄하고 쓸어 보고 어루만지기도 한다  
 만졌던 손에서 향기까지 맡아 본다  
 진동하겠지 상처의 향기

㉠ 상처야말로 더 꽃인 것을.

01 이 시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장소를 이동하며 느끼는 감정을 서술하고 있다.
- ② 상처가 꽃보다 아름답다는 참신한 발상이 드러난다.
- ③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④ 어린 매화나무와 사백 년 고목을 대조하여 보여 주고 있다.
- ⑤ 다양한 심상을 활용하여 고목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02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시행을 찾아 쓰시오.

보기  
 고목의 상처를 후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도치법을 사용하여 향기의 강렬함을 강조하고 있다.

03 이 시의 화자가 처한 상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자는 해가 질 무렵 가을 산의 풍경을 관찰하고 있다.
- ② 화자는 한적한 자연 속에서 한가로이 살기를 바라고 있다.
- ③ 화자는 고목을 눈앞에 두고도 가까이 가지 못해 안타까워한다.
- ④ 화자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슬픔을 고목의 상처를 보며 극복하고자 한다.
- ⑤ 화자는 구경꾼들이 어린 매화나무보다 고목에 더 몰려선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서술형 실력 UP 고난도

04 <보기>는 이 시에 관한 생각을 담은 블로그이다. 사람들이 이 시에서 공감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서술하십시오.

보기

← →
🔍
☰

내 블로그 | 이웃 블로그 | 🏠



아침

☀️

목록

- 시 읽은 아침
- 이야기가 있는 저녁
- 나의 발자국
- 
- 
-

어린 매화나무는 꽃 피느라 한창이고  
 :  
 상처야말로 더 꽃인 것을.  
 - 유안진, <상처가 더 꽃이다>  
 상처는 고통스럽습니다. 그것이 훈장이든지, 부적이든지요. 하지만 우리 인생에 상처가 없다면 그것을 극복한 성숙 또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도 있나 봅니다.  
 이 시를 읽으니 발레리나 강수진과 축구 선수 박지성의 발이 떠오릅니다. 상처투성이지만 그들의 노력을 알기에 그들의 발은 꽃보다 아름다워요.




▲ 박지성의 발
▲ 강수진의 발

♡ 공감 90 | ▼
💬 댓글 21 | ^

댓글 쓰기

- 🔴 상처는 고통. 하지만 상처가 주는 교훈이 있어 성장하게 되는 것 같아요.
- 🔴 친구를 함부로 대해서 그 친구와 멀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뒤로는 아무리 친해도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죠. 아픔이 오히려 저를 성장하게 했어요.
- 🔴 아픈 자리에서 화사한 꽃이 피어날..... 마음속 상처들이 꽃이 된다면 마음은 화사한 꽃밭이 되겠네요.
- 🔴 매화 가지의 뒤틀림에서 귀원을 발견한 시인과 이 시를 알려 준 아침 님께 감사!

**05** ㉠과 같은 표현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 ①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 유치환, <깃발>  
 ②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싸여 - 이형기, <낙화>  
 ③ 괴로웠던 사나이, /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 윤동주, <십자가>  
 ④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⑤ 나 보기가 역겨워 / 가실 때에는 /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 김소월, <진달래꽃>

**[06~0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그 아이와 읍내까지의 오십 리 길을 여행한 것도 5학년 2학기였던 것 같다. 읍내 아이들은 좋은 참고서며 입시 문제집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없으니 어떻게 그들을 따라가겠느냐는 담임의 탄식은 우리를 초조하게 만들었다. 장에 오는 책전에 진열된 문제집이나 참고서는 가짓수도 적고, 말하자면 텅뿔뿔로, 내용도 조잡한 것들뿐이었다. 나와 그 아이는 상의하고 또 상의했다. 그러고는 직접 읍내 큰 서점에 가서 문제집이며 참고서를 고르기로 결정했다. 아버지나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는 그 먼 길을 어떻게 갔다 오겠느냐며 읍내에 살고 있는 고모에게 부탁하여 사 보내게 하면 좋지 않겠냐고 했지만 나는 막무가내였다.

**나** 우리는 그 토요일로 당장 길을 떠났다. 두 시간쯤 걸으니 흰 돛 단 배, 누런 돛 단 배가 점점이 떠 있는 강이 나왔다. 강을 따라 다시 한 시간쯤 가니 살구꽃이 만발한 나무, 나무를 건너니 널따란 채마밭, 채마밭을 끼고 큰길을 또 한 시간쯤 걸으니 읍내였다. 읍내에는 이층집이 즐비하고 많은 차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질주했다. 나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다. 병이 나서 삼촌의 등에 업혀 읍내에 들어와 본 일은 있었지만 내 발로 걸어 들어오기는 처음이었던 것이다.

**다** 물어 물어 서점을 찾아갔을 때는 이미 거리에 어둑어둑 땅거미가 깔리고, 서점에는 환하게 전등불이 켜져 있었다. 너무 책이 많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데 점원이 우리에게 찾는 책을 물었고, 우리가 말하자 책을 찾아주었다. 우리는 자세히 보지도 않고 책값을 냈고, 그 책들을 배낭에 넣고 밖으로 나왔다. 밖은 이미 한밤중이 되어 있어, 나는 더럭 겁이 났다. 그래도 저녁은 먹어야겠어서 가까이 있는 식당을 찾아 들어갔다. 잠은 고모네집을 찾아가 자기로 정해져 있었다.

**라** 밥을 시켜 먹고 있는데 옆자리의 아저씨들이 우리가 촌에서 온 것을 알고는 말을 붙였다. 나는 책을 사러 왔다는 말을 하고 찾아갈 고모네 집 주소가 적힌 쪽지를 내밀었다. “야, 너희들 멀리서 왔구나!” 그러면서 쪽지를 받아 든 그는 “어, 이거 너무 멀잖아.” 했다. 고모네 집까지는 걸어서 한 시간도 더 걸린다는 것이었다. 결국 우리는 군청 직원인 그 아저씨들을 따라가 군청 숙직실에서 자고 아침밥까지 얻어먹었다.

**마** 돌아오는 길은 훨씬 즐거웠던 것 같다. 먼지가 폭삭대는 길, 강가의 널따란 채마밭, 강바람에 날리던 살구 꽃잎들. 나루터의 늙은 사공, 새파란 강물에 드문드문 박힌 노랑고 흰 돛을 단 배들……. 이때 본 이런 것들은 군청 마당의 늙은 느티나무와 마음씨 좋은 직원의 웃는 모습, 그리고 현덕의 소설 <군맹(群盲)> 속의 인물들인 만수 또는 점숙의 모습과 함께 아직도 내 뇌리에 짙은 색깔의 그림으로 박혀 있다.

**06** 이와 같은 글에 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 ① 노래처럼 말의 가락이 느껴진다.  
 ②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한다.  
 ③ 대사와 지문으로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 등을 드러낸다.  
 ④ 체험에서 얻은 생각과 느낌을 진솔하고 자유롭게 쓴 것이다.  
 ⑤ 인물과 사건을 글쓴이가 상상하여 그럴 듯하게 꾸며 낸 것이다.



▶ 학습 활동 용량

07 <보기>는 글쓴이의 경험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보기

‘나’와 그 아이는 직접 읍내 큰 서점에 가서 책을 사기 위해 길을 떠났다.  
 → 읍내 서점에서 정신없이 책을 구경하고 샀다.  
 → ( )  
 →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훨씬 즐거웠다.

08 이 글에서 ‘나’의 심리 변화로 알맞은 것은?

- ① 설렘 → 무서움 → 안도감 → 후회
- ② 설렘 → 지겨움 → 힘겨움 → 그리움
- ③ 긴장감 → 무서움 → 고마움 → 즐거움
- ④ 긴장감 → 지루함 → 뿌듯함 → 힘겨움
- ⑤ 초조함 → 다급함 → 미안함 → 자랑스러움

실력 UP 고난도

09 글쓴이가 경험을 통해 느끼고 깨달은 점에 관한 대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행복: 읍내에 나갔다 와서 매우 뿌듯하고 설레었을 거야.
- ② 채윤: 자신을 도와준 아저씨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을 것 같아.
- ③ 연우: 시골과 읍내의 문화 차이를 체감하고 한편으로 서글펐을 거야.
- ④ 새하: 새로운 세계를 만나는 것은 자신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걸 깨달았겠지?
- ⑤ 세희: 힘들었던 읍내 나들이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올 때 느꼈던 즐거운 기분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을 거야.

[10~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어린 매화나무는 꽃 피느라 한창이고  
 사백 년 고목은 꽃 지느라 한창인데  
 구경꾼들 고목에 더 몰려섰다  
 둥치도 가지도 꺾이고 구부러지고 휘어졌다  
 갈라지고 뒤틀리고 터지고 또 튀어나왔다  
 진물은 얼마나 오래 고여 흐르다가 말라붙었는지  
 주먹만큼 굵다란 혹이며 패인 구멍들이 험상궂다  
 거무죽죽한 혹도 구멍도 모양 굽기 깊이 빛깔이 다 다르다  
 새 진물이 번지는가 개미들 바빠 오르내려도  
 의연하고 의젓하다  
 사군자 중 으뜸답다  
 꽃구경이 아니라 상처 구경이다  
 상처 깊은 이들에게는 훈장(勳章)으로 보이는가  
 상처 도지는 이들에게는 부적(符籙)으로 보이는가  
 백 년 못 된 사람이 매화 사백 년의 상처를 헤아리라마는  
 감탄하고 쓸어 보고 어루만지기도 한다  
 만졌던 손에서 향기까지 맡아 본다  
 진동하겠지 상처의 향기  
 상처야말로 더 꽃인 것을.

나 그 아이와 읍내까지의 오십 리 길을 여행한 것도 5학년 2학기였던 것 같다. 읍내 아이들은 좋은 참고서며 입시 문제집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없으니 어떻게 그들을 따라가겠느냐는 담임의 탄식은 우리를 초조하게 만들었다. (중략) 우리는 그 토요일로 당장 길을 떠났다. 두 시간쯤 걸으니 흰 돛 단 배, 누런 돛 단 배가 점점이 떠 있는 강이 나왔다. 강을 따라 다시 한 시간쯤 가니 살구꽃이 만발한 나무, 나무를 건너니 널따란 채마밭, 채마밭을 끼고 큰길을 또 한 시간쯤 걸으니 읍내였다. 읍내에는 이층집이 즐비하고 많은 차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질주했다. 나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다. 병이 나서 삼촌의 등에 업혀 읍내에 들어와 본 일은 있었지만 내 발로 걸어 들어오기는 처음이었던 것이다.

물어 물어 서점을 찾아갔을 때는 이미 거리에 어둑어둑 땅거미가 깔리고, 서점에는 환하게 전등불이 켜져 있었다. 너무 책이 많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데 점원이 우리에게 찾는 책을 물었고, 우리가 말하자 책을 찾아 주었다. 우리는 자세히 보지도 않고 책값을 냈고, 그 책들을 배낭에 넣고 밖으로 나왔다. 밖은 이미 한밤중이 되어 있어, 나는 더럽 겁이 났다. 그래도 저녁은 먹어야겠어서 가까이 있는 식당을 찾아 들어갔다. 잠은 고모네집을 찾아가 자기로 정해져 있었다.

밥을 시켜 먹고 있는데 옆자리의 아저씨들이 우리가 촌에서 온 것을 알고는 말을 붙였다. 나는 책을 사러 왔다는 말을 하고 찾아갈 고모네 집 주소가 적힌 쪽지를 내밀었다. “야, 너희들 멀리서 왔구나!” 그러면서 쪽지를 받아 든 그는 “어, 이거 너무 멀잖아.” 했다. 고모네 집까지는 걸어서 한 시간도 더 걸린다는 것이었다. 결국 우리는 군청 직원인 그 아저씨들을 따라가 군청 숙직실에서 자고 아침밥까지 얻어먹었다. 이튿날 다시 서점에 가서 이번에는 동화책을 뒤졌는데, <포도와 구슬>로 익숙해 있던 현덕의 소설집 <남생이>를 어린이물로 알고 산 것도 이때다.

돌아오는 길은 훨씬 즐거웠던 것 같다. 먼지가 폭삭대는 길, 강가의 널따란 채마밭, 강바람에 날리던 살구 꽃잎들. 나루터의 늙은 사공, 새파란 강물에 드문드문 박힌 노랗고 흰 돛을 단 배들……. 이때 본 이런 것들은 군청 마당의 늙은 느티나무와 마음씨 좋은 직원의 웃는 모습, 그리고 현덕의 소설 <군맹(群盲)> 속의 인물들인 만수 또는 점숙의 모습과 함께 아직도 내 뇌리에 짙은 색깔의 그림으로 박혀 있다.

**실력 UP** 교난도

**10** (가)와 (나)에 드러난 심미적 인식을 공유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간에 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다.
- ② 세계에 관한 진실에 다가갈 수 있다.
- ③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
- ④ 심미적 상상력과 감수성이 풍부해진다.
- ⑤ 문학 작품을 비판적으로 감상할 수 있다.

**11** (가), (나)의 작가가 대화를 나누었다고 할 때,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저는 상처가 아름답다는 깨달음을 독자들에게 전해 주고 싶었어요.
- ② (나): 저는 어린 시절의 추억에서 느낀 아름다움을 말하고 싶었어요.
- ③ (가): 사람들이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고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 ④ (나): 독자들도 도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 있는 행동이라는 것을 느끼면 좋겠어요.
- ⑤ (가): 네. 의미 있는 경험과 여러 감정을 독자가 공감한다면 더없이 좋겠네요.

**12**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심미적 인식이란 인간을 포함한 세계를 아름다움의 관점에서 보는 것을 말한다.

문학은 인간과 세계의 진실에 관한 심미적 인식이 형상화된 언어 예술로, 작가는 경험에서 얻은 심미적 인식을 작품으로 형상화한다.

- ① 대주: 상처에서 향기가 난다는 표현이 참신했어.
- ② 현지: 사람들이 꽃보다 상처에 더 주목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야.
- ③ 서진: 상처가 크고 많은 사람이어야 고목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야.
- ④ 보란: 상처가 많지만 의연하게 서 있는 고목의 모습에서 감동을 받았어.
- ⑤ 수미: 일반적으로 꽃이 아름답다고 여기는 상황에서 시인은 고목의 상처를 꽃보다 아름답다고 새롭게 인식하고 있네.



**[13~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우리 동네는 변두리였으므로 얼마 전까지도 모두 그 날그날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 연탄 배달도 일거리가 그리 많지 않았다. 기껏해야 구멍가게에서 두서너 장을 사서는 새끼줄에 대롱대롱 매달고 가는 게 고작이었다. 그랬는데 이삼 년 전부터 아직도 많은 빈터에 집터가 다져지고, 하나둘 문화 주택이 들어서더니 이제는 제법 그럴듯한 동네 꼴이 잡혀 갔다. 원래부터 있던 허름한 집들과 새로 생긴 집들과는 골목 하나를 경계로 하여 금을 굵듯 나누어져 있었는데, 먼 데서 보면 제법 그럴싸한 동네로 보였다. 일단 들어와 보면 지저분한 현 동네가 이웃에 널려 있지만, 그냥 먼발치로만 보면 2층 슬래브 집들에 가려 닥지닥지 붙은 판잣집 등숙이 보이지 않았으므로 서울의 변두리에 흔한 여느 신흥 부락으로만 보였다.

**나** 새 동네(우리는 우리가 그전부터 살던 동네를 구동네, 문화 주택들이 차지하고 들어선 동네를 새 동네라 불렀다.)가 생기면서 좋아한 것은 비단 아버지만은 아니었다. 구동네에 두 곳 있던 구멍가게 주인들도 은근히 무언가를 기대하는 눈치였다. 그전까지는 가게의 물건들이 뽐양게 먼지를 쓰고 있었고, 두 홉짜리 소주병만 육실하게 많았는데 그 병들 사이에 차츰 환타니 미린다니 하는 음료수 병들이며 퍼머스트 아이스크림도 섞이고, 할머니의 주름살처럼 주름이 좌좌 가 말라비틀어진 사과 사이에 굴 상자도 끼이게 되었다. 그전에는 볼 수 없었던 우유 배달부가 아침마다 골목을 드나들고, 신문 배달부들이 조석으로 골목 안을 누비고 다녔다.

**다** 그러나 **㉠** 동네의 모습이 이처럼 달라지기는 했어도 구동네와 새 동네 사람들이 서로 어울리는 일은 없었다. 너는 너, 나는 나 하는 식으로 새 동네 사람들은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누가 다가오는 것을 거절하고 있었다. 다만 그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구동네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 조금 달라지기는 했는데 아무도 그걸 입에 올리지는 않았다. 아버지도 배달 일이 늘어나서 속으로는 새 동네가 생긴 것을 은근히 싫어하지는 않는 눈치였지만, 식구들 앞

에서조차 맞대 놓고 그런 내색을 하지는 않았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 노새는 온 동네 사람들의 눈길을 모으고 짤랑짤랑 이 골목 저 골목을 헤집고 다녔다.

**라** 우리 구동네 아이들이야 학교 가는 시간을 빼고는 내내 밖에서만 노는데, 놀아도 여간 시망스럽게 놀지 않았다. 걸핏하면 싸움질이요, 걸핏하면 욱질이였다. 말썽은 어찌 그리도 잘 부리는지 아이들 싸움이 커진 어른 싸움도 꿀일 날이 없었다. 그러자니 구동네 아이들은 자연히 새 동네 골목에까지 진출했다. 같은 골목이라도 새 동네는 조금 널찍한 데다가 사람들의 왕래도 그리 잦아서 놀기에 좋았다. 그렇다고 새 동네 아이들이 텃세를 부리지도 않았다. 그들은 저희끼리 놀다가도 우리들이 내려가면 하나둘씩 슬며시 자기네 집으로 들어갔다. 그런 아이들이었으므로 나는 평소에 데면데면하게 대했는데 이들이 우리 노새를 보고 놀라거나 칭찬할 때만은 어쩐지 그들이 좋았다. 거기 비해서 우리 동네 아이들은 노새만 보면 엉덩이를 툭 치거나, 꼬챙이 같은 걸로 건드리고 머리를 쓰다듬는 척하면서 콧잔등을 한 대씩 쥐어박고 하기가 일쑤였다.

**13 이 글의 서술자에 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 ① 사건의 원인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제시한다.
- ② 어린아이인 '나'의 시선으로 이야기를 전달한다.
- ③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를 모두 파악하여 전달한다.
- ④ 노새와 아버지 각각의 입장에서 사건을 전개한다.
- ⑤ 산업화·도시화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14 이 글에 반영된 당시의 삶의 모습으로 알맞은 것은?**

- ① 사람들은 노새 마차를 타고 다녔다.
- ②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화 주택에서 거주했다.
- ③ 구동네와 새 동네 사람들은 서로 도우며 살았다.
- ④ 세대 차이에서 오는 갈등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 ⑤ 도시의 변두리에는 슬래브 집과 판잣집이 섞여 있었다.

**15** 이 글에서 당시 삶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는 소재끼리 바르게 묶은 것은??

- ① 연탄, 판잣집, 문화 주택
- ② 슬래브 집, 노새, 굴 상자
- ③ 변두리, 새끼줄, 문화 주택
- ④ 골목, 문화 주택, 음료수병
- ⑤ 구멍가게, 음료수병, 굴 상자

**16** 새 동네 아이들에 대한 ‘나’의 생각으로 알맞은 것은?

- ① 노새에 대해 너무 몰라서 실망스러워.
- ② 우리 노새를 못살게 굴어서 정말 싫어.
- ③ 우리 노새를 대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어.
- ④ 텃세를 부리지 않아서 같이 어울려 놀고 싶어.
- ⑤ 걸핏하면 말썽을 부리고 어른들께 일러대서 싫어.

서술형

**17** 새 동네 아이들이 구동네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를 <조건>에 맞게 서술하십시오.

조건

- (라)에 나타난 새 동네 아이들의 행동을 바탕으로 하여 쓸 것

**18** ㉠에 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 ① 구멍가게의 인기가 시들해졌다.
- ② 연탄을 쓰는 집이 별로 안 남았다.
- ③ 노새가 갈 수 없는 구역이 생겼다.
- ④ 아버지의 배달 일이 갈수록 줄었다.
- ⑤ 우유 배달부, 신문 배달부가 드나들었다.

**[19~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우리 집에 노새가 들어온 것은 이 년 전이었다. 그 전까지는 말을 부렸는데 누군가가 노새와 바꾸지 않겠느냐고 제의해 왔다. 싫으면 옷돈을 조금 얹어 주고라도 바꾸어 주겠다는 것이었다. 한 삼 년 가까이 그 말을 부려 온 아버지는 막상 농기가 싫은 모양이었으나 그 말이 눈이 자주 짓무르고, 뒷다리 복사뼈 근처에 늘 상처가 가시지 않는 등 잔병치레가 잦은 터라, 두 번째 말을 걸어왔을 때 그러자고 응낙해 버렸다.

**나** 그 가파른 골목길 어귀에 이르자 아버지는 미리 노새 고삐를 낚아 잡고 한달음에 올라갈 채비를 하였다. 그러나 어떤 일인지 다른 때 같으면 사백 장 정도 신고는 힘안 들이고 올라설 수 있는 고개인데도 이날따라 오름길 중턱에서 턱 걸리고 말았다. 아버지는 어, 하는 눈치더니 고삐를 거머쥐고 힘껏 당겼다. 이마에 힘줄이 굵게 돋았다. 얼굴이 빨개졌다. 나는 얼른 달려붙어 죽어라고 밀었다. 그러나 길바닥에는 살얼음이 한 겹 살짝 깔려 있어서 마차를 미는 내 발도 줄줄 미끄러져 나가기만 했다. 노새는 앞뒤 발을 딱딱 소리를 낼 만큼 힘껏 땅을 밀어 냈으나 마차는 그때마다 살얼음 위에 노새의 발자국만 하얗게 굽힐 뿐 조금도 올라가지 않았다. 아직은 아래쪽으로 밀려 내리지 않고 제자리에 버티고 선 것만도 다행이었다.

**다** 사람들이 몇 명 지나갔으나 모두 쳐다보기만 할 뿐 아무도 달려붙지는 않았다. 그전에도 그랬다. 사람들은 얼핏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났다가도, 상대가 연탄 마차인 것을 알고는 감히 손을 내밀지 못했다. 도대체 어디다 손을 댄단 말인가. 제대로 하자면 손만 아니라 배도 착 붙이고 밀어야 할 판인데 그랬다간 옷을 모두 망치지 않겠는가. 옷을 망치면서까지 친절을 베풀 사람은 이 세상엔 없다고 나는 믿어 오고 있다. 그건 그렇고, 그런 시간에도 마차는 자꾸 밀려 내려오고 있었다. 돌을 괴려고 주변을 살펴보았으나 그만한 돌이 얼른 눈에 띄지 않을뿐더러, 그나마 나까지 손을 놓으면 와르르 밀려 내려올 것 같아서 손을 뗄 수가 없었다. 아버지는 평소의 그답지 않게 사



정없이 노새에게 매질을 해 댔다.

“이라, 우라질 놈의 노새, 이라!”

노새는 눈을 뒤집어 까다시피 하면서 바득바득 악을 써 댔으나 판은 이미 그른 판이었다.

**라** 노새는 이제 보이지 않았지만 나는 노새보다도 아버지의 일이 더 큰일일 것 같아서, 뛰던 것을 멈추고 아버지의 손을 잡고 끌어 일으키려고 했다. 한데 아버지는 쉽게 일어나지를 못했다. 아버지의 눈은 더할 수 없는 실망과 깊은 낭패로 가득 차, 나는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슬며시 고개를 돌리다가 이내 축 처지고 말았다. 얼굴 근육이 실룩거리는 것이 옆얼굴에도 보였다. **㉠ 불현듯 슬픔이 복받쳐 내 눈도 스며버렸으나 나는 그것을 억지로 참고 계속해서 아버지의 팔목을 이끌었다.**

“아버지, 여기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해요. 노새를 찾아야지요.”

**19**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가파른 골목길은 평소에도 노새 마차가 잘 오르지 못했다.
- ② 노새는 길바닥에 살얼음이 끼었던 어느 겨울에 달아나 버렸다.
- ③ 노새가 이 집에 오기 전에 아버지는 말을 이용해서 연탄을 배달했다.
- ④ 아버지는 노새가 달아나자 절망감에 빠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 ⑤ 지나가던 사람들은 옷을 망칠까 봐 오름길 중턱에 걸린 마차를 밀어 주지 않았다.

**20**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아버지의 심리 상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노새가 달아나서 당혹스러워함.
- ② 노새에게 매질을 하면서 불안하고 초조해함.
- ③ 마차가 골목을 오르지 못하자 절망감을 느낌.
- ④ 달아난 노새가 보이지 않자 실망과 낭패감을 느낌.
- ⑤ 가파른 골목 중턱에서 마차가 멈추자 놀라고 당황해함.

실력 UP 고난도

**21** 노새가 달아난 상황을 바르게 파악하지 못한 학생은?

- ① 소울: 그날따라 가파른 언덕길이 노새에겐 힘들었나 봐.
- ② 지민: 길바닥에 살얼음이 깔려 있어서 많이 미끄러웠기도 했겠지.
- ③ 준범: 마차가 미끄러지면서 노새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군.
- ④ 대한: ‘나’가 조금만 열심히 밀었더라면 마차가 미끄러지지 않았을 텐데…….
- ⑤ 예슬: 아버지가 평소답지 않게 매질을 해서 노새가 무서웠을 수도 있겠어.

**22** (다)에서 알 수 있는 당대 사람들의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정이 메말랐다.
- ② 남에게 무관심하다.
- ③ 냉정하고 이기적이다.
- ④ 매정하고 개인주의적이다.
- ⑤ 잘난 척하며 남을 무시한다.

**23** ㉠에서 알 수 있는 ‘나’의 성격으로 알맞은 것은?

- ① 밝고 천진난만하다.
- ② 어른스럽고 의젓하다.
- ③ 약삭빠르고 이기적이다.
- ④ 욕심이 많고 자존심이 세다.
- ⑤ 적극적이고 추진력이 강하다.



**[24~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아무도 나를 붙잡고 왜 뛰느냐고, 노새를 찾아 나선 길이나고 묻지 않았다. 아무도 네가 찾는 노새가 방금 저 쪽으로 뛰어갔다고 걱정 말라고 일러 주지 않았다. 나는 이 사람에게 툭 부딪치고, 저 사람에게 탁 부딪치면서 사뭇 뛰었다. 그러나 뛰면서도 둘레둘레 사방을 쳐다보는 것을 잊지 않았다. 벌써 거리는 조금씩 어두워지고 있었다. 이미 앞이마에 헤드라이트를 켜 자동차도 있었다.

㉠나는 그런 자동차들이 막 뛰어다니는 노새로 보였다.

**나** 아버지가 돌아온 것은 통행금지 시간이 거의 되어서였다. 예상한 일이지만 아버지는 빈 몸이었고 형편없이 힘이 빠져 있었다. 그때까지 식구들은 아무도 잠들지 않았다. 작은형도 일이 일인지라 기타도 치지 않고 죽은 듯이 방 안에만 처박혀 있었다. 아버지를 보고도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다** 서울 장안이 온통 야단이 난 모양이었다. 군데군데 무전차가 동원되어 자기네끼리 노새의 방향에 대해서 연락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노새는 미리 그것을 알고라도 있는 듯 용케도 경비가 허술한 길만을 찾아 잘도 달려갔다. 모가지는 물론, 갈기며 어깨죽지, 그리고 등허리에 땀이 비 오듯 해서 네 다리에 물이 주르르 흐르고 있었다. 검은 물이.

**라** 하여튼 나는 희한한 곳엘 다 왔다 싶었다. 내 경우 동물원에 와 본 것은 지금까지 딱 한 번밖에 없었으니까. 그것도 어린이날 무료 공개한다는 바람에 동네 조무래기들과 함께 와 본 것뿐이었다. (중략) 그러던 아버지가 잠시 발을 멈춘 곳은 얼룩말이 있는 우리 앞이었다. 얼룩말은 두 마리였다. 아버지는 그러나 그 앞에서도 멍하니 서 있기만 하지 이렇다 할 감정의 표시를 하지 않았다. 나는 그런 아버지를 한 번 쳐다보고, 얼룩말을 한 번 쳐다보고 하였다. 그러다가 ㉡아버지의 얼굴이 어찌면 그렇게 말이나 노새와 닮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 꼭 그랬다. 길게 찌진, 감정이 없는 눈이며 노상 별름별름한 코, 하마 같은 입, 그리고 덜렁하니 큰 귀가

그랬다. 아버지가 너무 오래 말이나 노새를 다뤄 와서 그런 건지, 애당초 말이나 노새 같은 사람이어서 그런 짐승과 평생을 같이해 온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막상 얼룩말 앞에 세워 놓은 아버지는 영락없는 말의 형상이었다.

**마** 나는 그 순간 또 한 마리의 노새가 집을 나가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켰다. 그러고는 무엇인가가 뒤통수를 때리는 것을 느꼈다. 아, 우리 같은 노새는 어차피 이렇게 비행기가 붕붕거리고, 헬리콥터가 앵앵거리고, 자동차가 빵빵거리고, 자전거가 썽썽거리는 대처에서는 발붙이기 어려운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언젠가 남편이 택시 운전사인 칠수 어머니가 하던 말,

㉢“최소한도 자동차는 굴러야지 지금이 어느 땐데 노새를 부려.”

했다는 말이 생각났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 동안이고 나는 금방 아버지를 쫓았다. ㉣또 한 마리의 노새를 찾아 캄캄한 골목길을 마구 뛰었다.

**24** (가)~(마)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나’는 노새를 잃어버린 후에야 노새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 ② (나): 아버지는 밤늦게까지 노새를 찾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 ③ (다): 노새가 흘리는 ‘검은 물’은 연탄을 배달하며 힘들었던 삶을 의미한다.
- ④ (라): ‘나’는 아버지와 동물원에 온 일을 매우 특이한 일로 여기고 있다.
- ⑤ (마): ‘나’는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25** 이 글에서 ‘동물원’의 역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가 노새를 찾게 되는 공간
- ② ‘나’가 노새를 잇기로 결심한 공간
- ③ 아버지가 삶의 의지를 다지는 공간
- ④ 아버지와 노새의 동일시가 이루어지는 공간
- ⑤ 아버지가 노새를 잃은 상실감을 떨치는 공간



· 학습 활동 응용

26 <보기>를 바탕으로 하여 이 글을 새롭게 평가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보기

과거의 삶이 반영된 문학 작품을 감상하면서 오늘날에도 변하지 않는 가치 또는 현대인의 관점에서 새롭게 평가할 수 있는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 ① 쓴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태도는 현대인들과 비슷해.
- ② 고집을 부리는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인심을 잃는 것 같아.
- ③ 주변의 평가에 귀 기울여 목표를 바꿀 줄도 알아야 할 것 같아.
- ④ 시대의 변화에 민감한 현대인이 보기에 매우 융통성이 없는 사람 같아.
- ⑤ 자신이 선택한 길을 묵묵히 가는 자세는 지금의 우리가 배워야 할 것 같아.

27 '나'가 ㉠과 같이 느낀 까닭으로 알맞은 것은?

- ① 노새를 찾아야 하는 다급함 때문에
- ② 노새가 도로를 달리고 있을 것 같아서
- ③ 너무 힘들고 지쳐서 판단이 잘 되지 않아서
- ④ 노새가 평소 자동차와 경주하는 것을 좋아해서
- ⑤ 노새가 자동차들 사이에 있을 거라는 믿음 때문에

· 서술형

28 '나'가 ㉡과 같이 생각한 까닭을 <조건>에 맞게 서술하십시오.

조건

· '아버지는 노새처럼 ~ 때문이다.' 형식의 한 문장으로 쓸 것

· 실력 UP 고난도

29 ㉢에 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 ① 노새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를 부러워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 ② 노새가 없어져서 연탄 배달을 하지 못하는 아버지를 안타까워하고 있다.
- ③ '나'가 도시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함을 표현하기 위해 인용한 말이다.
- ④ 노새는 당시 현실에 맞지 않은 구시대적 삶의 수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 ⑤ 비행기를 타지 못하고 자동차로 만족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애써 위로하는 말이다.

· 학습 활동 응용

30 ㉢이 의미하는 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아버지
- ② 아버지가 새로 사 온 노새
- ③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아온 존재
- ④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존재
- ⑤ 산업화·도시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존재

[31~35]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아버지 사라실 제 섬길 일란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답다 어찌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 제4수

나 오늘도 다 새거다 호미 메고 가자스라  
 내 논 다 매거든 네 논 좀 매어 주마  
 오는 길에 뽕 따다가 누에 먹여 보자스라 - 제13수

다 이고 진 저 늪은이 짐 풀어 나를 주오  
 나는 젊었거니 돌이라 무거울까  
 늪기도 설워라커든 짐을 조차 지실까 - 제16수

라



31 (가)~(다)에 드러나는 당시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덕목이 아닌 것은?

- ① 서로 돕는 자세
- ② 근면 성실한 삶
- ③ 학문에 힘쓰는 자세
- ④ 부모님에 대한 효도
- ⑤ 어른을 공경하는 태도

실력 UP 고난도

32 (가)~(다)를 현대 사회의 관점에서 바르게 해석한 것은?

- ① 조상들의 생각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
- ② 시대가 다르므로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다.
- ③ 현대인이 과거의 삶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은 거의 없다.
- ④ 현대인은 현대 사회에 걸맞은 새로운 가치를 찾아야 한다.
- ⑤ 오늘날에도 중요성이 변하지 않은 가치로서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을 성찰해야 한다.

33 (가)~(다)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다)는 2수 이상의 평시조가 한 편을 이룬 연시조이다.
- ② (가)~(다)는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 내용을 쉽게 전달하고 있다.
- ③ (가)는 명령형 어미를 사용하여 말하고자 하는 바를 표현하고 있다.
- ④ (나)는 화자와 청자의 대화 형식으로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 ⑤ (다)는 의문형 어미를 사용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학습 활동 응용

34 <보기>는 신문 기사의 일부분이다. (가)~(라) 중 <보기>의 주제와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의 기호를 쓰시오.

보기

젊은 농부들 모여 상부상조하니  
농촌이 '꿈촌' 됐어요.

2009년 ○○중학교 선후배 의기투합  
농사 정보 교류하고 서로 일손 도와

- 《광주일보》, 2018년 9월 21일 자에서

서술형 · 학습 활동 응용

35 (라)의 인물이 중시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조건

· 마리안느와 마거릿의 행동을 고려하여 쓸 것



# 바른답·알찬풀이

중등 국어 3-1





1 문학과 삶

01 상처가 더 꽃이다

단원 맛보기

8쪽

1 심미적, 언어 2 (1)○(2)○(3)× 3 ① 4 깨달음, 갈래

3 문학 작품을 읽으며 얻은 심미적 인식을 작가 또는 다른 독자와 공유하고 소통함으로써 세계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삶의 의미를 성찰할 수 있다.

내용 분석

9쪽

01 고목 02 상처 03 아름답다

표현 분석

9쪽

후각적, 상처, 역설

이해와 탐구

10~11쪽

- 1 (1) 구경꾼, 상처, 향기 (2) 고목, 향기, 상처
- 2 (1) 매화나무, 고목 (2) 아름답다, 상처 (3) 대조, 묘사, 역설
- 3 (1) 공통

문제 해결과 적용

12~13쪽

1 (1) 서점, 책, 아침밥 (2) 뿌듯, 따뜻한, 즐거운 (3) 묘사, 그림

학습 활동 응용

10~13쪽

- 01 ⑤ 02 ④ 03 ③ 04 ① 05 꽃 06 ④ 07 ③
- 08 직접 읍내 큰 서점에 가서 문제집과 참고서를 고르기 위해서이다.
- 09 ② 10 ② 11 ④ 12 ③ 13 ①

01 구경꾼들은 한창 꽃이 피고 있는 어린 매화나무보다 한창 꽃이 지고 있는 사백 년 고목에 더 몰려서 있다.

02 고목의 옆에는 어린 매화나무가 있고, 구경꾼들은 고목에 더 몰려서 있으므로, 고목이 홀로 외롭게 서 있다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03 1~3행으로 보아, 시인이 구경꾼들이 한창 꽃이 피고 있는 어린 매화나무보다 꽃이 지고 있는 고목에 더 몰려선 모습을 보았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04 시인은 어린 매화나무와 고목의 모습을 대조하고, 고목의 모습을 자세히 묘사하여 고목의 상처를 강조하고 있다.

05 시인은 '상처가 더 꽃이다'라는 역설 표현으로 자신의 심미적 인식을 강조하고 있다.

06 이 시를 읽은 사람들은 상처는 고통스럽지만 상처로 인해 더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

07 이 글은 초등학교 때 친구와 읍내에 갔던 일을 회상하며 쓴 수필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글쓴이가 본 풍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08 읍내 아이들은 좋은 참고서와 문제집으로 공부를 한다는 담임의 탄식을 듣고 글쓴이는 직접 읍내 큰 서점에 가서 문제집과 참고서를 고르기로 결정하였다.

09 이 글은 '읍내'라는 새로운 세계를 만나 신기했고, 도움을 준 아저씨들이 고마웠던 어린 시절의 추억을 회상하며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

10 '덤핑(dumping)'은 '원가에 비용이나 이윤을 더하지 않고 싼 가격으로 물건을 파는 일'을 의미하며, '덤핑물(dumping物)'은 그렇게 파는 물건을 말한다.

11 식당에서 만난 군청 직원이 '나가 찾아갈 고모네 집이 멀다는 것을 알고는 '나'와 친구를 군청 숙직실로 데려가 잠을 재워 주고 아침밥도 먹여 주었다.

12 글쓴이는 처음으로 어른 없이 친구와 읍내에 나가서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여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경험을 통해 따뜻한 마음과 뿌듯함, 즐거움 등을 느꼈을 것이다.

13 이 글에서 글쓴이가 새로운 경험을 하고 돌아올 때 느꼈던 즐거운 마음을 풍경 묘사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소단원 갈무리

14쪽

작품 개관 상처, 대조, 상처, 아름답다  
 시의 짜임 구경꾼, 상처  
 어린 매화나무와 고목의 대조 고목  
 고목의 송고함 으름답다, 매화, 훈장  
 시인의 심미적 인식 매화나무, 역설

기초가 튼튼해지는 소단원 다잡기

15~17쪽

- 01 ④ 02 ③ 03 ① 04 ⑤ 05 ⑤ 06 한창 꽃 피고 있는 어린 매화나무보다 꽃이 지고 있는 고목에 더 몰려선 모습 07 ③
- 08 ④ 09 ⑤ 10 읍내 11 ① 12 ① 상처 ② 그림 13 ③

- 01 시를 감상할 때 시어의 함축적 의미를 파악하면 주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 02 구경꾼들은 고목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그 의연함과 의젓함, 숭고함에 감탄하고 있다.
- 03 이 시는 고목의 울퉁불퉁하고 거칠고 상처 난 모습을 묘사하며 상처가 꽃보다 아름답다고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04 [A]는 고목의 상처를 시각적으로 생생하게 묘사한 부분이다. ① 미각적 심상, ② 후각적 심상, ③, ④ 촉각적 심상
- 05 ㉠은 꽃보다 고통을 이겨 낸 상처가 더 아름답다는 시인의 생각을 역설로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꽃’은 진정한 아름다움을 의미한다.
- 06 시의 내용으로 보아, 시인은 구경꾼들이 고목을 감상하는 모습을 보면서 느낀 생각을 작품으로 담아내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 07 ‘나’는 읍내 서점에서 시간도 늦고 책도 너무 많아 점원이 찾아 준 책을 자세히 보지도 않고 책값을 낸 후 밖으로 나왔다.
- 08 ‘나’는 오랜 시간 걸려 읍내에 도착했지만 처음 보는 어색한 풍경에 숨이 막히는 것 같았고, 시간이 너무 늦어 서점에서 책도 제대로 보지도 못했다. 이로 보아, 낯선 환경에서 긴장되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 09 곤경에 처한 상황에서 식당에서 만난 아저씨들이 뜻밖의 호의를 베풀어주셨을 때 ‘나’는 따뜻한 감동을 느꼈을 것이다. 그러한 작가의 경험을 독자가 공유하며 깨달음을 느끼는 것 또한 심미적 인식이다.
- 10 ‘나’는 처음으로 읍내라는 새로운 세계에 나가서 매우 떨렸지만, 즐겁고 아름다운 기분을 안고 돌아올 수 있었다.
- 11 시인은 구경꾼들이 어린 매화나무보다 고목에 더 몰려서서 고목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모습을 통해 내면적 아름다움이 깊은 감동을 줄 수 있음을 강조한다.
- 12 (가)에서 꽃보다 진정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상처’라고 표현하였고, (나)에서 ‘나’는 읍내 나들이 후 즐겁고 벅찬 마음으로 자신을 도와준 아저씨들의 모습과 아름다운 풍경을 ‘그림’이라고 표현하였다.
- 13 심미적 인식은 특별한 체험이 아닌 평범한 일상에서도 얻을 수 있다.

## 02 노새 두 마리

### 단원 맛보기

18쪽

1 시대, 사회상 2 ③ 3 연탄 4 (1) × (2) ○ (3) ○

- 2 과거의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에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발견하고 통찰할 수 있다.
- 3 연탄은 1970년대부터 공급되기 시작하면서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었으나 현재는 흔히 보기 어렵다. 따라서 연탄은 1970년대의 삶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는 소재이다.

### 핵심 속독

- P. 22 노새, 문화 주택, 슬래브 집, 개인주의, 어울리지
- P. 25 책임감, 짐
- P. 32 육체, 적응, 도시
- P. 33 아버지, 노새
- P. 34 노새, 아버지

### 제대로 독해 & 문제로 확인

19~34쪽

1 ③ 2 ⑤ 3 ① 4 ④ 5 ② 6 ② 7 ② 8 ② 9 ④  
 10 ④ 11 ② 12 ⑤ 13 가파른 골목길 14 ③ 15 ②  
 16 ⑤ 17 노새가 달아난 일 18 ④ 19 실망, 낭패 20 ②  
 21 ① 22 자동차 23 ③ 24 ③ 25 ④ 26 까맣게 연  
 탄 가루를 뒤집어쓰고 다니기 때문이다. 27 ① 28 ③ 29 ④  
 30 ④ 31 ③ 32 ③ 33 ③ 34 ② 35 ① 36 ⑤  
 37 ③ 38 ④ 39 이제부터 내가 노새다. 40 ③ 41 ①  
 42 ⑤ 43 ⑤

- 1 ‘나’가 사는 동네는 서울의 번두리로, 언덕이 많고 이제 막 문화 주택이 들어서는 상황이다. 따라서 원래부터 있던 허름한 판잣집과 문화 주택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
- 2 ‘골목’은 구동네와 새 동네 사이의 경제 수준 및 문화의 차이와 소통의 단절감을 드러낸다.
- 3 동네가 달라졌어도 구동네 사람들과 새동네 사람들은 서로 어울리는 일은 없었다.
- 4 예전에는 아래 쪽 길가 근처에 차를 대 놓고 버티던 청소부들이 새 동네가 생기면서 골목 안까지 차를 들이대고 쓰레기를 퍼 가기 시작했다.
- 5 노새가 아무 데나 오줌을 싸고 다니는 것을 빈정거리고 노새를 싫어하는 내색을 그대로 드러낸 것은 구동네 사람들이다.



- 6 구동네 사람들에게 노새는 생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사는 익숙한 존재였기 때문에 노새에게 특별히 관심이 없었다.
- 7 주로 밖에서 노는 구 동네 아이들과 달리 새 동네 아이들은 주로 집에서 놀고 밖으로 나오는 경우가 드물었다.
- 8 새 동네 아이들이 노새를 보며 신기해하거나 칭찬을 하면, 나는 연탄이 묻어 시꺼먼 나의 모습은 신경 쓰지 않고 괜히 어깨가 으쓱했다.
- 9 새 동네 아이들은 밖에서 노는 경우가 드물었고, 나와서 놀아도 저희들끼리만 어울려서 놀기 때문에 '나'가 새 동네 아이들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다.
- 10 (바)의 과거 회상 장면은 노새가 어떤 과정을 거쳐 '나'의 가족에게 오게 되었는지, 또 '나'의 가족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 준다. 이에 앞으로 전개될 사건, 즉 노새의 도망이 '나'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주는지 독자가 짐작할 수 있게 한다.
- 11 이 글은 현재에서 과거로 시간을 역행하며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12 '나'는 노새가 끄는 마차에 연탄을 실어 아무리 찾기 힘든 집이라도 척척 알아내어 배달하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 13 가파른 골목길은 아버지와 노새가 힘들게 일을 하는 공간으로, 앞으로 발생할 사건의 공간적 배경이다.
- 14 이 글에서 노새는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되었지만 가장의 책임을 다하려는 아버지, 즉 힘겹고 고단하게 살아가는 이 시대의 아버지를 상징한다.
- 15 (자)와 (차)에서는 몸이 자유롭게 된 노새가 도망치고, 이로 인해 아수라장이 되어 버린 상황과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 있다. 노새는 우연히 얼음길 사고로 달아난 것이며 노새가 스스로 탈출하고자 노력한 것은 아니다.
- 16 (차)에서 사람들은 노새가 도망친 상황을 보고, 아버지와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고 구경거리나 되는 듯이 바라보고만 있다.
- 17 ㉠은 마차가 넘어지고 연탄 더미가 무너진 뒤에 일어난 일로, 연탄 마차가 뒤집히면서 몸이 자유롭게 된 노새가 달아난 일을 의미한다.
- 18 노새가 도망치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놀라고 당황스러웠으며 노새를 잡기 위해 다급했을 것이다.

- 19 노새가 달아나자 아버지는 더할 수 없는 실망과 깊은 낭패로 주저앉은 자리에서 쉽게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 20 도망가는 노새를 놓치고 주저앉아 버린 아버지를 보며 '나'는 걱정과 슬픔과 안타까움, 안쓰러움을 느끼고 있다.
- 21 노새가 달아나는 것을 보고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주변 사람들의 모습에서 남에게 무관심한 태도가 드러난다.
- 22 도시의 큰길에는 온갖 자동차가 달리고 있고 그곳에서 '나'는 잃어버린 노새를 찾고 있는 상황이다. '나'는 노새를 찾아야 하는 다급함과 절박함에 자동차가 노새처럼 보였다.
- 23 '나'는 다리가 아프고 배도 고프며 지쳤지만, 계속 노새를 찾는 중이다.
- 24 '나'의 가족에게 노새는 처음에는 연탄 배달 운반을 맡을 생계 수단으로 여겨졌지만, '나'와 오랜 시간 함께 다니며 친근한 존재가 되었다.
- 25 구동네 사람들은 연탄 배달부, 뽕튀기 장수, 번데기 장수, 시장 경비원, 포장마차 장사 등 주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 26 '나'의 아버지는 연탄을 배달하기 때문에 늘 까맣게 연탄 가루를 뒤집어쓰고 다니는데, 그 때문에 아이들이 '나'를 '까마귀 새끼'라고 놀리는 것이다.
- 27 아버지는 1970년대에 존재했던 '통행금지' 시간까지 노새를 찾다가 할 수 없이 집으로 돌아온 것으로, 노새의 운명은 아직 알 수가 없다.
- 28 삼륜차, 자동차 등 새로운 운송 수단의 등장으로 노새가 끄는 마차로 배달하는 아버지의 일자리가 위협받았던 시기이다.
- 29 노새는 '나'의 꿈속에서 '골목 → 큰길 → 횡단보도 → 변화가 → 큰 시장 → 한길 → 한강 다리 → 고속 도로'로 이동하였다.
- 30 노새는 마차에서 벗어나 어딘지도 모르고 마구 달리고 있고, 사람들은 깜짝 놀라며 우왕좌왕하고 있다.
- 31 꿈에서 노새가 여기저기 마구 뛰어다니며 달아나는 장면은 매일매일 힘겹게 사는 고단한 삶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의 소망을 담은 것이다.
- 32 (거)에서는 노새의 이동 경로를 따라가며 노새 때문에 벌어진 소동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이때 등장하는 장소는 우연적이다.

**! 학습 활동 응용**

01 ⑤	02 ①	03 ④	04 ③	05 ③	06 ①	07 ③
08 (우리 집) 노새, 아버지	09 ④	10 ③	11 ③	12 ③		
13 ④	14 ③	15 ②	16 ③	17 ③	18 ④	19 ②
20 ⑤						

- 33 노새가 고속 도로로 달아나는 꿈의 내용은 앞으로 현실에서 전개될 사건의 성격, 즉 노새를 찾지 못할 것임을 암시한다.
- 34 투박하고 단단한 아버지의 손은 그동안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고달프게 살아왔음을 드러낸다.
- 35 아버지의 권위를 중요시하는 가부장적인 당시의 사회상이 나타나는 부분이다.
- 36 ‘동물원’은 ‘내가 아버지와 노새가 닮았음을 발견하고 노새와 함께 살아온 아버지의 존재를 생각하게 하는 공간적 배경이다.
- 37 ‘나’는 노새와 닮은 아버지의 면모를 발견하고 노새와 함께 힘든 일을 하며 살아온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 38 대폿집에서 아버지는 노새를 잃은 상실감을 떨쳐 내고 ‘나’에게 삶의 의지를 다짐하고 있다.
- 39 ‘이제부터 내가 노새다.’라는 말에는 노새를 잃어버렸지만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겠다는 아버지의 의지가 담겨 있다.
- 40 아버지는 노새를 잃자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노새가 되기로 결심하며 현실을 받아들이고자 한다.
- 41 비행기, 헬리콥터, 자동차, 자전거는 산업화·도시화로 인한 신문물을 상징하며, 노새는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존재를 상징한다.
- 42 노새는 산업화한 세상에서 이미 뒤떨어진 존재이다. ‘나’는 자신의 가족을 노새와 같다고 생각하면서 대도시에서는 발붙이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다.
- 43 (머)에서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노새로 인해 또 다른 시련에 직면하게 된 아버지를 통해 산업화·도시화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힘겨운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이해와 탐구** 35~37쪽

1 노새, 아버지, 집  
 2 (1) 문화 주택, 판잣집 (2) 판잣집, 문화 주택, 싫어하고, 관심 (3) 빈부, 소외  
 3 (1) 아버지 (2) 적응 (3) 공중전화  
 4 (1) 노새, 자존심, 가족

**문제 해결과 적용** 38~39쪽

1 (1) 호미, 논, 노인 (2) 근면, 공경  
 2 (1) 소록도, 치료, 가족, 보육원 (2) 사랑, 희망

- 01 이 글은 현재 시점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방식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 02 이 글의 중심 사건은 연탄을 배달하던 중 가파른 골목길에서 마차가 넘어지면서 노새가 달아난 것이다.
- 03 아버지는 노새가 끼친 피해 때문에 순경이 찾아왔었다는 말을 듣고 절망감을 느꼈을 것이다.
- 04 ‘변두리’는 ‘어떤 지역의 가장자리가 되는 곳’을 뜻하는 말로, 특정한 시기를 드러내는 소재로 볼 수 없다.
- 05 새 동네 사람들도 연탄을 때며, 한 번에 수백 장씩 주문했다.
- 06 구동네 사람들은 노새를 싫어했고, 싫어하는 내색을 그대로 드러냈다. 그러나 새 동네 사람들은 노새를 신기해하며 노새에게 관심을 보였다.
- 07 이 소설의 시대적 배경인 1970년대는 산업화·도시화로 도시가 급격한 발전을 이루었지만, 빈부 격차가 심했다. 그리고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사람들은 소외되곤 하였다.
- 08 이 글의 제목인 ‘노새 두 마리’는 달아나 버린 우리 집 ‘노새’와 노새처럼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를 의미한다.
- 09 노새는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존재를 의미하지만, 발전하기 위해 없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 10 휴대 전화는 새로운 시대 변화에 맞추어 나온 물건으로 공중전화를 대체하여 사용되고 있다.
- 11 아버지는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지 못하고 노새만 고집하다가 삶의 형편이 어려워졌지만,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주관대로 꿋꿋이 살아가려고 한다.
- 12 ‘나’는 노새를 잃고 좌절하는 아버지에게 연민을 느끼며, 생활은 어렵지만 불평하지 않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다.
- 13 이 시조는 조선 선조 때 송강 정철이 백성들이 도덕을 깨치게 하기 위하여 지은 작품으로, 삼강오륜의 유교적 윤리를 담고 있다.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 명령형이나 청유형으로 끝맺고 있다.
- 14 ‘제4수’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후회해도 소용없으니 살아계실 때 잘 모시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교과서 학습편

- 15 '제13수'는 '날이 새면 호미를 메고 나가서 내 눈을 다 때면 다른 사람의 눈도 매어 준다.'는 내용으로, 근면하고 서로 돕고 살자는 뜻의 '상부상조'가 어울린다.
- 16 '제16수'는 젊은이가 길 가는 노인의 무거운 짐을 들어 주는 내용으로, 노인 공경을 이야기하고 있다.
- 17 한센병 환자는 아이를 보육원에 맡겨야 했고, 그 아이들은 마리안느와 마거릿이 돌봐 주었다.
- 18 한센병 환자들은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이었고, 마리안느와 마거릿은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을 것이다.
- 19 마리안느와 마거릿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한센병 환자들의 치료와 보호, 정착, 처우 개선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였다.
- 20 마리안느와 마거릿이 추구하는 가치를 자신의 상황에 비추어 주체적으로 수용한 것은 ⑤이다.



### 소단원 갈무리

40쪽

글의 개관 변두리, 아버지  
 글의 짜임 새 동네, 노새, 꿈  
 '노새'의 상징적 의미 아버지, 변화  
 소재의 대립적 의미 구동네  
 작품에 담긴 가치 깨끗한

### 기초가 튼튼해지는 소단원 다잡기

41~47쪽

- 01 ④ 02 ⑤ 03 ⑤ 04 골목 05 ③ 06 ① 07 ②  
 08 노새가 익숙하지 않은 새 동네 아이들과 달리 구동네 아이들에게 노새는 늘 보던 익숙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09 ④ 10 ①  
 11 마차가 뒤집히면서 몸이 자유로워진 노새가 도망치는 사건  
 12 힘겹고 고단하게 살아가는 이 시대의 아버지 13 ② 14 ⑤  
 15 아버지는 가족의 생계를 잇는 중요한 수단이었던 노새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절망감을 느꼈다. 16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삶에 무관심하다. 17 ③ 18 삼륜차 19 ④ 20 ② 21 ② 22 ⑤  
 23 고속 도로 24 ⑤ 25 ② 26 ⑤ 27 ④ 28 아버지

- 01 빈터에 문화 주택이 들어서서 상황을 통해 변두리 지역이 개발되던 상황임을 알 수 있다.
- 02 새 동네가 생기면서 구멍가게 주인들은 환타와 같은 음료수, 퍼머스트 아이스크림, 굴 상자 등 새로운 상품을 구비해 놓았다.
- 03 굴상자는 1970년대 산업화 시대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특정한 시기를 드러내는 소재로 보기 어렵다.

- 04 '골목'은 구동네와 새 동네를 금을 굿듯 경계를 나누고 있는 공간적 배경으로, 구 동네와 새동네의 경제 수준 차이, 단절을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
- 05 (가)~(다)에서는 새 동네 아이들과 구동네 아이들의 노는 모습과 노새를 대하는 태도가 대비되어 제시되고 있다.
- 06 새 동네 사람들은 노새가 지나가면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부드러운 눈길로 노새를 바라보았다.
- 07 새 동네 아이들은 구동네 아이들이 나타나면 슬며시 자기네 집으로 들어가 버려서 새 동네 아이들과 구동네 아이들은 서로 친하게 지내지 않았다.
- 08 노새와 직접적으로 생활한 경험이 없는 새 동네 사람들은 노새를 신기하고 귀여운 동물이라고 생각하지만, 노새를 늘 봐 왔던 구동네 아이들은 노새만 보면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다.
- 09 이 글은 현재에서 이 년 전 노새가 집에 온 시절을 회상하며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10 '나'는 아버지가 아무리 찾기 힘든 집이라도 척척 알아내고, 연탄 공장 사람들도 그런 아버지의 능력을 믿고 일을 맡기는 부분에서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고 있다.
- 11 마차가 미끄러져 내박쳐지면서 몸이 자유로워진 노새가 도망치는 사건으로 '나'와 아버지는 큰 위기를 겪게 된다.
- 12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되었지만 가장의 책임을 다하려는 아버지를 의미한다.
- 13 주변 사람들은 노새가 달아나는 모습을 그저 바라보면서 웅성거리기만 할 뿐이다.
- 14 (나)~(다)에는 슬픔과 낭패감에 젖어 있는 아버지께 힘을 주기 위해 일부러 눈물도 꼭 참고 깨끗하게 행동하는 '나'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 15 아버지는 노새 마차로 연탄을 배달하며 가족의 생계를 이어 가고 있었다. 그런데 가족의 중요한 생계 수단이었던 노새가 갑자기 달아나자 절망하고 있다.
- 16 사람들은 '나'와 아버지가 노새를 쫓는 모습을 보면서도 방관자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를 통해 자신과 상관없는 일에는 무관심한 개인주의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다.
- 17 '나'가 노새와 깊이 정이 들어 있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노새는 '나'에게 가족 같은 존재임을 알 수 있다.
- 18 1970년대 삼륜차의 등장으로 더 이상 말이나 노새가 운반수단으로 쓰이지 않게 되었다.

- 19 아버지는 자신이 평생 해 온 마부 일이 중요한 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 20 아버지가 연탄 배달을 하시므로 노새는 연탄재로 인해 엉덩이가 까맣으며, '나'의 별명은 '까마귀 새끼'이다. ㉞는 뽕튀기 장사를 하는 영길이네 아버지와 관련이 있고, ㉟는 번데기를 장사를 하는 종달이네 아버지와 관련이 있다.
- 21 '나'는 노새가 경찰에 붙잡힐 것을 불안해한 것이 아니라, 꿈의 내용처럼 다니는 노새를 찾을 수 없을까 봐 걱정하고 있다.
- 22 노새가 달아나는 상황이 담긴 꿈 이야기를 통해서 현실에서 달아난 노새를 찾을 수 없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 23 '나'의 꿈에서 노새는 다리를 건너 앞이 탁 트인 고속 도로로 자꾸만 달려갔다. 이는 '나'와 아버지가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노새가 달아났음을 의미한다.
- 24 ㉞을 통해 가족의 생계를 위해 힘든 일을 해 온 아버지의 고단했던 삶을 짐작할 수 있다.
- 25 동물원의 얼룩말 우리 앞에 선 '나'는 아버지의 얼굴과 말을 쳐다보다가 아버지의 얼굴이 새삼 노새와 닮았다고 생각하게 된다.
- 26 연탄 배달 마차를 끌던 노새가 도망을 갔으므로 이제 노새가 하던 역할까지 아버지 자신이 맡아서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 27 ㉞은 노새가 당시 현실에 맞지 않는 삶의 수단이라는 의미로, 이를 통해 '나'가 대도시의 삶에 적응하며 사는 것이 힘든 일임을 깨달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 28 ㉞은 아버지를 뜻하는 것으로,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는 존재를 의미한다.

- 01 이 시에서는 한창 꽃이 피고 있는 어린 매화나무와 한창 꽃이 지고 있는 고목을 대조하여 표현하고 있으며, 상처가 꽃보다 아름답다는 역설적이고 참신한 발상이 드러나 있다. 그러나 장소의 이동은 나타나지 않는다.
- 02 '진동하겠지 상처의 향기'는 후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고목의 상처를 표현하고 있다. 또한 어순을 바꾸어 표현함으로써 향기의 강렬함을 강조하고 있다.
- 03 이 시의 화자는 구경꾼들이 한창 꽃이 피고 있는 어린 매화나무보다 꽃이 지고 있는 고목에 더 몰려서서, 고목의 상처를 바라보고 만지며 냄새 맡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 04 상처는 고통스럽지만 상처를 통해 새로운 깨달음을 얻거나 삶의 태도가 변하는 것은 아름다운 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 좌절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상처를 이겨 낼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도 성장하는 것이다.
- 05 시인은 꽃보다 고통을 이겨 낸 상처가 더 아름답다는 생각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①~④에는 역설 표현, ⑤에는 반어 표현이 쓰였다.
- 06 수필은 일상생활이나 체험에서 느낀 점을 일정한 형식 없이 자유롭게 쓰는 글이다. 이 글은 글쓴이의 초등학교 시절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 07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옆자리에 앉은 군청 직원들이 '나'와 친구의 사정을 알게 되고, 아저씨들은 '나'와 친구를 군청 숙직실에서 재워 주고 아침밥도 주었다.
- 08 '나'는 어린 시절 친구와 단둘이 낯선 읍내에 가서 숨이 턱막히는 긴장감을 느꼈고, 서점에서 책을 사고 나왔을 때 한 밤중이어서 겁이 났지만, 군청 직원의 도움을 받고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은 훨씬 즐거웠다.
- 09 '나'는 읍내 나들이를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서 본 풍경과 군청 직원의 웃는 모습 등이 아직도 뇌리에 짙은 색깔의 그림으로 박혀 있다고 하였으므로, 시골과 읍내의 차이로 인한 서글픈 감정은 글쓴이의 느낌과 거리가 멀다.

내공이 탄탄해지는 **대단한 읽기** 세계

48~57쪽

- 01 ① 02 진동하겠지 상처의 향기 03 ⑤ 04 상처가 아름답다. / 상처는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이 사람을 성장하게 한다. 05 ⑤ 06 ④ 07 식당에서 만난 군청 직원을 따라가 숙직실에서 자고 아침밥도 먹었다. 08 ③ 09 ③ 10 ⑤ 11 ③ 12 ③ 13 ② 14 ⑤ 15 ① 16 ③ 17 새 동네 아이들은 구동네 아이들이 나타나면 슬며시 자기네 집으로 들어갔다. 18 ⑤ 19 ① 20 ③ 21 ④ 22 ⑤ 23 ② 24 ① 25 ④ 26 ⑤ 27 ① 28 아버지는 노새처럼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다. 29 ④ 30 ② 31 ③ 32 ⑤ 33 ④ 34 (나) 35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다.

- 10 문학 작품을 통한 심미적 체험을 함으로써 주체적으로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독자가 될 수 있다.
- 11 (가)의 작가는 상처가 많지만 의연하게 서 있는 고목의 모습을 보며 상처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생각을 전하고 있다. 상처를 통해 보다 성숙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12 상처가 꽃보다 아름다울 수 있다는 작가의 심미적 인식이 꼭 상처가 크고 많은 사람만이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 13 이 글은 전체적으로, 어린아이인 ‘나’가 아버지를 관찰하여 서술하기도 하고, ‘나’가 자기 자신과 아버지가 겪은 이야기를 서술하기도 한다.
- 14 ‘나’가 사는 번두리에는 이삼 년 전부터 문화 주택이 들어서면서 슬래브 집과 판잣집이 섞이게 되었다. 새 동네 사람들은 개인주의적이고 폐쇄적인 태도를 보였고, 구동네와 새 동네 사람들이 서로 어울리는 일은 없었다.
- 15 ‘연탄, 판잣집, 문화 주택, 슬래브 집, 노새’ 등을 통해 이 글이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16 ‘나’는 평소 때는 새 동네 아이들에게 친밀감이 없었지만, 우리 노새를 보고 놀라거나 칭찬할 때는 새 동네 아이들이 구동네 아이들보다 더 좋았다.
- 17 (라)에 구동네 아이들이 새 동네에 진출하면 새 동네 아이들은 저희끼리 놀다가도 하나둘씩 슬며시 자기네 집으로 들어갔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 18 새 동네가 생기면서 구멍가게에 안 팔던 품목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아버지의 연탄 배달 일도 늘었으며, 우유 배달부, 신문 배달부 등도 눈에 띄기 시작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노새는 온 동네를 헤집고 다녔다.
- 19 다른 때 같으면 사백 장 정도 신고는 힘 안 들이고 올라설 수 있는 고개라고 한 것으로 보아, 노새 마차가 평소에는 가파른 골목길을 잘 오르내렸음을 알 수 있다.
- 20 연탄을 실은 마차가 오름길 중턱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멈추자 아버지는 매우 놀라고 당혹스러워할 뿐 절망감을 느끼지는 않는다. 아버지는 노새를 잃어버린 후에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
- 21 노새가 오름길 중턱에서 더 이상 오르지 못하자 아버지는 고삐를 거머쥐고 힘껏 당겼고, ‘나’는 얼른 달려붙어 죽어라고 밀었다고 했으므로 ④는 적절하지 않다.
- 22 (다)에서 당대 사람들은 남에게 무관심하며 남의 일에 관여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지만, 잘난 척하는 태도는 찾아볼 수 없다.
- 23 ‘나’는 축 처진 아버지를 보고 슬픔이 복받쳤지만 울음을 꺾 참고 아버지를 다독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의젓하고 어른스러운 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24 (가)에서 ‘나’는 가족과도 같은 노새를 찾고 싶은 마음에 정신없이 노새를 찾아다니고 있다. 하지만 이런 ‘나’에게 아무

- 도 말을 걸지 않는 모습에서 남에게 무관심한 도시인의 삶의 태도가 드러난다.
- 25 동물원에서 ‘나’는 노새와 닮은 아버지를 발견하고 노새와 함께 살아온 아버지의 존재를 깨닫게 된다. ③, ⑤는 대포집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 26 시대의 변화나 주변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나 자신이 선택한 길을 묵묵히 가는 곳곳한 삶의 자세는 오늘날 긍정적으로 새롭게 평가할 만한 가치이다.
- 27 도시의 큰길에는 온갖 자동차가 달리고 있고 그곳에서 ‘나’는 잃어버린 노새를 찾고 있으므로 다급한 마음에 자동차들이 노새로 보인 것이다.
- 28 노새가 무거운 짐을 나르며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아온 것처럼 아버지도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아왔다.
- 29 ‘나’는 도시적 삶에 적응하며 사는 것이 힘겨운 일이라는 생각을 하며 칠수 어머니의 말을 떠올리고 있다. 칠수 어머니는 노새가 당시 현실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 삶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며, 아버지가 고집하고 있는 과거의 삶의 방식을 비판하고 있다.
- 30 ‘또 한 마리의 노새’는 산업화·도시화되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아온 아버지를 의미한다.
- 31 ‘제4수’는 부모님에 대한 효도, ‘제13수’는 근면과 상부상조, ‘제16수’는 노인 공경을 권유하고 있다.
- 32 조선 시대의 작품이지만 현대에도 이어지는 변하지 않는 가치들을 추구하고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삶을 성찰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 33 (나)는 청유형 어미를 사용하여 근면과 상부상조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 34 <훈민가>의 ‘제13수’는 날이 새면 호미를 메고 나가서 내 눈을 매면 다른 사람의 눈도 매어 준다는 내용으로, 근면과 상부상조를 강조하고 있다.
- 35 한센병을 치료하기 위해 평생을 헌신한 마리안느와 마거릿의 삶에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는 삶의 자세를 배울 수 있다.